

특집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총 평—강원식

남자부 경기분석—장용규 · 이재봉

여자부 경기분석—송동석 · 지용범

취재기—강석재



1990
TAIPEI

정기총회 참석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서 개최

6월 2일 오후 2시 CHIEN TAN OVERSEAS YOUTH ACTIVITY CENTRE에서 아시아 태권도 연맹 주관으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는 허남각 아시아 연맹 회장을 비롯하여 집행위원 6명, 한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중화대북,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요르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등 15개국의 회의대표가 참석하였다.

총회는 허남각 회장의 인사에 이어 전차총회 회의록승인,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기타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92년도에 개최될 차기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열리고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세계 태권도인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각국 협회 임원들의 열의를 촉구하였다.

한편 대회 주최국인 중화대북과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주최 만찬이 연일 마련됨으로써 각국 대표들이 보다 더 친숙해질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태권도인의 화합을 다지고 종주국인 한국에 대한 친교를 두텁게 할 수 있었다.

본인은 회의에 대표로 참가하기는 10년만이라 처음 대하게 되는 각국 대표들도 여럿이었으나 대부분 세계태권도대회를 통해서 구면인 회의대표들이 많아 더욱 우의를 돈독히 다질 수 있었다.



강원식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국가대표 선수단

▲단장 : 조영기(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

(남자부)

▲감독 : 김현수(조성중학교)
 ▲코치 : 장용규(경남체고)
 ▲트레이너 : 이재봉(송곡고)
 ▲선수
 핀급 : 신재현(국군체육부대)
 플라이급 : 권학선(한국체대)
 밴텀급 : 김성진(한국체대)
 페더급 : 김현철(한국체대)
 라이트급 : 박세진(경희대)
 웰터급 : 진정우(국군체육부대)
 미들급 : 정용석(현대자동차)
 헤비급 : 최상진(경희대)

(여자부)

▲감독 : 이택명(본회홍보본부위원장)
 ▲코치 : 송동석(천안여고)
 ▲트레이너 : 지용범(충북태권도협회)
 ▲선수
 핀급 : 김진성(송곡고)
 플라이급 : 모선영(인덕공고)
 밴텀급 : 이승민(은광여고)
 페더급 : 박진경(상명여대)
 라이트급 : 남정동(성신여대)
 웰터급 : 고재경(성신여대)
 미들급 : 장철(경희대)
 헤비급 : 김태희(문성여상)

대회 총평

협회 23명의 대표팀 파견

중화대륙 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가 6월2일부터 4일까지 중화대륙 타이베이에서 개최되었는데 대한태권도 협회는 임원7명, 선수16명 등 총 23명을 파견했다. 대표팀은 출국에 앞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국가원에서 합숙훈련을 해왔으며 28일 결단식을 갖고 5월 30일 중화대륙으로 출국했다.

조영기단장모친상, 귀국미루고 선수들 독려

대회 첫날인 6월2일 아침, 한국 선수단의 조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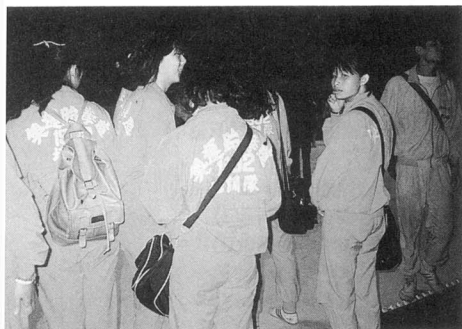
단장은 모친의 부음(이 문안씨·85세) 소식을 접하고도 귀국을 미룬채 선수단을 독려했다. 조영기단장은 고향인 전남 영광읍으로부터 국제전화를 통해 부음소식을 접했는데, 경기를 앞둔 선수단의 사기를 침체시키지 않기 위해 선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선수들의 분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선수단 결단식에서 “기필코 아시아선수대회를 9연패함으로써, 우수와 가라데 등 각종 무술의 근원지인 아시아권에서 한국 선수단의 우수한 기량을 통해 태권도의 탁월성을 전 아시아인에게 깊이 인식시켜주겠다”고 포부를 밝힌 것처럼 이번 대회의 승리를 위해 경기마지막날까지 선수들의 뒷바라지에 정성을 쏟은 후 선수단과 함께 귀국했다.

이에 선수단 일동은 묵념으로 조단장의 모친상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조영기단장의 이러한 필승의 각오와 더불어 이번

특집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총평



중화대북의 '92올림픽을 향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奧運跆拳道 1992培訓隊』

대표팀원들 모두가 선수단의 뒷바라지에 정성을 쏟았는데 이택명 여자부 감독은 경기 중 장대에 내려와 코치와 함께 자리를 같이하며 매 경기마다 선전을 기원하였고 여자부 선수단의 부진한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워 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애석하게 느낄 정도였다.

김현수 남자부 감독 또한 경기중 시종일관 스탠드에서 자리를 뜨지않고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9연패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선수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다.

대표선수의 부상에 적절한 대응 필요

경기에 있어서는 남자부 편급에 출전한 신재현선수(국군체육부대)가 1차예선에서 네팔선수에게 패하며 예선탈락했는데 이는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인해 다리에 쥐가나서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이었는데 체급경기에서 선수들의 체중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지도자의

선수관리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제대회시에 팀 닥터를 대동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발견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또한 여자부 미들급에 출전한 장철선수(경희대)의 경우, 합숙훈련 중에 다리의 인대 부상으로 인해 훈련 때부터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어 결국 이번 대회에 출전해서도 예선탈락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경우 선수단의 팀웍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대회 파견전에 3진으로의 보강 등 적절한 대응이 있었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화대북, 본대회 우승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92올림픽준비까지 치밀하게 하고 있어

이번 대회의 주최국인 중화대북은 우승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역역히 볼 수 있었다. 또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우승을 목표로 대표선수단에 막대한 재정적 투자와 함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일례로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선수단 전용버스 등에 새겨진 『奧運跆拳道 1992培訓隊』라는 문구를 새겨넣은 것만으로도 이들의 훈련 및 모든 상황이 '92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향해 벌써부터 얼마만큼 치밀한 계획 성하에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대회기간 동안 중화대북의 언론들은 본 대회를 대서특필 하였는데 이러한 면모는 우리나라가 중주국이면서도 비인기종목으로 언론에서 태권도기사가 적게 취급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를 통해서도 중화대북이 이번 대회의 승리를 목표로 협회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지원이 대단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결국 이번 대회에서 중화대북은 남자부에서는 한국에 밀려 금2, 은3, 동1개로 종합 2위에 그쳤지만, 여자부는 한국을 제치고 금4, 동2을 차지하면서 여자부 최강의 자리를 차지했다.

여자부의 종합우승 실패 - 여자부의 효과적인 육성과 훈련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 삼아야

한국은 여자부의 종합우승 실패로 국내 여자부의 효과적인 육성과 훈련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표 1, 2진을 선발해 국제대회에 파견해왔다. 그러나 세계태권도인의 기량의 평준화와 함께 신체적인 면에서의 우위성에 비추어 앞으로는 대표선수단을 2배수 또는 3배수까지 당해년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해 놓고 매대회 때마다 상비군중에서 평가전을 거쳐 대표선수를 선발, 최우수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 뿐만 아니라 코치나 트레이너 등 임원선발에서도 지역별, 팀별 안배형식을 지양하고 실력있는 지도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여자부의 경우 중주국으로서 우수선수의 선발로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자선수층이 두터워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에 여자부가 채택되지 않고서는 선수층 확보가 기대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야겠다.

한편 이번 대회기간동안 임원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량면에서의 우월성 뿐만 아니라 중주국 선수단으로서의 일거수 일투족 모두가 모범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무도 태권도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대회전적

남자

순위	국명	금 은 동	종합점수
1	한 국	5 2	76
2	중 화 대 북	2 3 1	54
3	요 르 단	1 6	37
4	이 란	1 2	23
5	필 리 핀	1 2	22
6	사우디아라비아	1	17

여자

순위	국명	금 은 동	종합점수
1	중 화 대 북	4 2	56
2	한 국	2 3 1	49
3	말 레 이 지 아	1 3	23
4	인 도 네 시 아	1 1 1	22
5	호 주	2 1	19
6	필 리 핀	2	16

록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 선수단이 매 국제대회마다 외국의 음식이 맞지 않아서 애플 먹고 김치 라면에만 의존하는 습관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대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더운 지방에서 라면이나 먹고서야 어떻게 선수들이 힘을 쓸수 있겠는가? 차후 국가대표선수라면 음식에 대한 애로사항은 극복할 수 있는 식성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든다.

끝으로 중화대북은 자국에서 대회를 주최하면서도시상식에서 중화대북기가 아닌 중화대북태권도협회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국가가 얼마만큼 국민에게 중요하며 국민이라면 국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새로운 다짐을 갖게하기도 했다.

남자부 경기분석

장용규 (남자부 코치 · 경남체고 교사)
이재봉 (남자부 트레이너 · 송곡고 교사)

금5, 은1로 우승, 9연패의 영광

6월 2일부터 4일까지 타이페이시 대북시립체육대학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는 18개국에서 116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첫날 밴텀급, 라이트급, 미들급 3개체급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한국은 세체급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9연패를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체급별 경기상황을 보면

밴텀급 : 김성진선수 (한국체대)는 준결승에서 파키스탄의 파이주레만에 2차례의 다운을 뺐는 등 탁월한 기량차로 승리,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준결승에서 요르단의 후세인을 판정승으로 꺾고 올라온 중화대북의 첸유후안과 격돌하게 되었는데 김선수는 첸유후안 선수에게 돌려차기와 뒷차기로 5:2 판정승을 거두어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한 대표선수들

특집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경기분석

미들급 : 제9회세계대회 챔피언인 정용석선수(현대자동차)는 준결에서 강호 이란의 후세인 아바시를 1:0 판정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요르단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올라온 사우디 아라비아의 살렘 알 자라니를 맞아 1회 1분 25초에 오른발 내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다운을 뺏은 등 우수한 기량으로 1:0판정승, 두번째 금메달을 차지했다.

라이트급 : 박세진선수(경희대, '89월드게임 1위)는 준결에서 요르단의 아부 자이드를 2:0판정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해 중화대북의 후양 민젠을 맞아 내려차기와 뒷차기로 매라운드 득점, 3:2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대회 이틀째 경기에서는 플라이급, 웰터급경기에서 2개의 금메달을 추가하고 페더급에서 은메달을 획득, 금5 은1개로 우승이 확정되는 날이었다.

플라이급, 페더급, 웰터급 경기를 보면 플라이급 : 권혁선(한국체대)선수는 결승에서 중화대북의 왕밍성을 맞아 특기인 뒷차기와 돌려차기로 3회전 내내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 판정승을 거두었다.

페더급 : 김현철선수(한국체대)는 준결에서 사우디의 이브라힘을 맞아 4:0 판정으로 결승에 올랐으나 중화대북의 리치안 후시양에게 4:3 으로 석패, 은메달에 머물렀다.

웰터급 : 진정우선수(국군체육부대)는 결승에서 이란의 하산자헤디와 2회전까지 1:1의 호각세를 보이다 3회 1분 10초에 이란선수의 주먹공격에 얼굴을 맞아 경기불능, 이란선수의 반칙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마지막 날 경기에서는 남자부 뿐만 아니라 여자부에서도 모두 우승을 놓고도 말았다.

핀급 : 신재현선수(국군체육부대)는 1차전에서 네팔의 나라얀에게 2:1로 패해 예선탈락했다. 신재현선



수는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게임을 원활히 뛰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다.

헤비급 : 최상진선수(경희대)는 결승에서 요르단의 나세르에게 1:0로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금5, 은2로 종합1위를 차지하며 9연패를 달성했다.

외국선수들의 기량 향상 돋보여

금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외국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요르단 이란 대만 선수들의 실력은 한국 선수와 비교해서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외국선수의 장점을 보면 첫째, 연결동작이 좋다. 한국선수들은 득점을 얻기위해 페인트에 의한 상대공격시 단발에 그치지만 외국선수는 2-3동작이 연결되고 큰 동작이 나왔다.

둘째, 윤택한 체력과 신장을 들 수 있다.

대체적으로 신장이 크고 체력이 좋아 3회전동안 지칠줄 모르고 공격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한국선수들의 득점위주의 경기는 보는 관중들로 하여금 나약하게 보였다.



한국선수들의 득점력은 인정하지만 국제무대에서의 게임에서는 공격위주의 게임과 몸통이 아닌 얼굴위주의 게임을 뛰어야겠다.

세째, 예의가 돋보였다.

경기가 끝난후 상대 코치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태도나 이긴선수를 겨안고 게임의 승패를 인정하는 모습과 패한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넷째, 집념을 들 수 있다.

경기에 지고 있어도 종료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국 선수의 단점으로는 여러가지 큰동작과 지칠줄 모르게 게임에 임하면서도 정확한 득점력이 떨어지며 순간적인 득점력이 부족하다. 이는 특히, 외국선수들이 대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 선수들 득점력 좋으나 체력 열세로 받아차기 위주의 경기

외국선수들에 비해 한국선수들의 장점으로는 첫째, 국내외에서 많은 경기 경험으로 상대를 알고 게임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하다.

둘째, 순간적 득점력이 매우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은 공격에 있어 얼굴공격이 너무 미흡하다. 오히려 외국선수들의 뒤돌려차기 공격이나 들어찍기 공격이 인상깊었으며 대만 플라이급 선수는 뒷차기 공격이 아주 날카로웠다.

이란의 미들급 선수도 들어찍기를 아주 잘 했다. 한국선수들은 겹고 뒷차기를 매우 잘하는데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겹고 뒷차기를 몸통을 보고 차야겠다.

한국 선수들이 득점으로는 게임에 이기지만 체력의 열세로 받아차기 위주의 게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리는 느낌이다. 특히 호주의 핀급선수는 한국선수보다 더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핀급선수는 기술은 미흡하지만 득점력은 매우 훌륭하다.

따라서 한국선수들의 득점력은 인정하지만 국제무대에서의 게임에서는 종주국 선수답게 공격위주의 게임과 몸통이 아닌 얼굴위주의 게임을 뛰어야겠다. 또한 대표선수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코치와 선수의 호흡을 일치해야겠다.

여자부 경기분석

송동석 (여자부 코치·천안여고 코치)

지용범 (여자부 트레이너·충북체육회순회코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부경기는 중화대북에 밀려 종합2위를 차지하며 국내 태권도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국 여자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2, 은3, 동1 개를 차지한 반면 중화대북은 금4, 동2를 차지하며 여자 태권도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여자부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빼앗기게 된 원인으로는 지난해 '89세계선수권대회를 끝으로 5명의

국가대표가 은퇴, 8명의 국가대표가 신인으로 완전 교체되면서 국제대회 경험 등이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화대북의 여자팀이 전통적으로 한국의 최대 라이벌로서 강한 면모를 보여준 것에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선수단의 전력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지도자 2명(김영인, 하용성)이 중화대북 대표팀코치로 초빙되어 감으로써 우리의 여자팀 전력이 드러난데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여자팀의 활성화를 꾀하고 국제대회 등에서 중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여자선수를 발굴,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국체전의 여자부 채택으로 여자선수를 전국적으로 양성해야 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번 대회의 여자부 경기를 체급별로 살펴보면서 한국선수와 외국선수들의 전력 및 주특기 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핀급

예선전에서 싱가포르 선수는 발들어 찌기를 특기로 도전해왔으나 한국의 김진성 선수는 받아차기, 뒤돌아 옆차기로 경기에 임하여 판정승하였다. 말레이시아 선수는 중단돌려차기와 뒤돌아 옆차기 연결동작을 잘하고 있으나 경기운영이 미숙하였다. 대만선수와의 결승경기에서는 대만 선수가 신강과 유연성이 좋아 얼굴 발차기와 상대가 공격해 오면 앞발로 얼굴받아 차기가 매우 좋았다. 이에 김진성 선수는 앞발 받아차기와 뒤돌아 옆차기로 응수하였으나 판정패하여 2위에 머물렀다.

▲ 플라이급

일본과 예선 경기에서 한국의 모선영 선수는 내려찌기로 판정승하였다. 호주선수와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순발력이 좋고 내려찌기와 밀어차기를 주로 사

특집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경기분석

금메달을 차지한 고재경, 이승민 선수



용했고 인도네시아 선수의 발차기는 한국선수보다도 잘하고 있었다. 한국선수는 체력에서 열세였고 득점력 부족으로 패하여 3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 밴텀급

한국 선수 중 이승민 선수는 가장 월등한 실력으로 승리 하였다. 오른발 받아차기, 공격발차기, 뒤돌아 엮차기 등 다양한 공격으로 일방적인 경기를 보여 주었다. 외국 선수들은 자기가 잘 사용하는 발을 앞에 두는 습관이 있으며 주로 앞발을 사용하고 있었다.

▲ 페더급

말레이시아 선수와 홍콩 선수들은 한국 선수가 공격하면 받아차려고 발을 들어 주었다. 한국의 박진경 선수는 왼발 받아차기와 오른발 발차기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승리하였다.

결승에서는 대만선수가 신장이 좋았고 돌려차기를 잘하였다. 한국선수가 공격해오면 오른발 받아찌기를 특기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득점을 올렸다. 박진경 선수는 신장이 작은데다 득점력이 부족하여 2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 라이트급

한국의 남정동 선수는 오른발차기와 내러찌기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선수를 판정승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올라 어려운 경기를 하였다. 1회전에서 우세를 상대에게 주고 2회전에서는 남정동 선수가 인도네시아 선수에게 뒤돌아 엮차기에 다문되었다. 하지만 한국선수의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2회전에서 1득점, 3회전에서 오른발 내러찌기로 상대의 얼굴을 공격하여 득점을 얻으며 어렵게 판정승을 거두었다.

결승에서는 대만 선수의 일방적인 공격과 다양한 발차기로 2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대만 선수는 발들이 밀기와 몸통에서 얼굴로 연결되는 발차기를 잘하였다.

▲ 웰터급

한국의 고재경 선수는 체력에서 떨어졌으나 기술에서 왼발 받아차기가 좋았다. 고재경선수는 싱글폴과 대만 선수를 왼발 받아차기와 오른발 내러찌기로 공격하여 승리하고 결승에 올랐다. 특히 대만과의 경기에서는 대만선수가 왼발을 밀고 들어오는 것을 고재경 선수는 받아차기를 얼굴에 적중하여 1회전과 2회전에 득점하고 3회전에서 대만 선수의 뒤돌아 엮차기에 1점을 내주었다.

결승전에 오른 호주 선수는 신장과 체력이 좋았다. 왼발 얼굴 밀어차기를 주 특기로 공격해 들어왔는데 고재경선수는 상대가 들어오기전 먼저 공격하여 우세승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 미들급

장철선수는 국내 경기와는 달리 전혀 공격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오른발차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대만 선수에게 우세패 하여 예선전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장철 선수가 승리하면 우리나라가 우승할 수 있었으나 대만 선수는 홈그라운드 장점으로 자신감있는 공격을 시도하며 승리하였다.

▲ 헤비급

헤비급경기는 한국과 중화대북 2팀밖에 출전하지 않아 경기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대체적으로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기본발차기, 신장, 체력과 순발력이 한국 선수들보다 우세하였다.

올린 대만선수들은 1체급에 4~5명씩 선별하여 92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한국선수단이 매년 국가대표를 선별해 국제대회에 출전시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대회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선수는 공격면에서도 다양한 공격 받아차기보다 공격적인 훈련, 얼굴발차기 등 난이도 높은 발차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원)을 소요, 원만한 경기 운영과 좋은 성적을 올림으로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었다.

『우리가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 하다니 꿈만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겨냥해서 더욱 더 선수 기량향상에 힘 쓰겠습니다.』라고 Carol Wang대만팀 단장이 우승후 소감을 밝혔다.

이번 종합 우승은 대만으로서는 각고의 노력끝에 얻어진 수확이었다.

여자부 대회가 남자부와 병행해서 치루어 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86년 제7회 대회 (오스트렐리아 다원)부터였다.

7회 대회에서 대만은 금3 은3 동2로서 한국의 금4 은2 동2에 이어 여자부 종합 2위를 차지, 한국에게 큰 적수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8회 대회(88년 3월 네팔 카투만두)에서는 대만이 금1 은5 동2을 차지, 한국의 금7개에 크게 뒤지는 종합 2위를 고수 했었다.

이번 9회 대회에서는 기필코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 하리라는 일념으로 대만은 4월 초순 한국인 코치 2명을 초빙, 이번 대회를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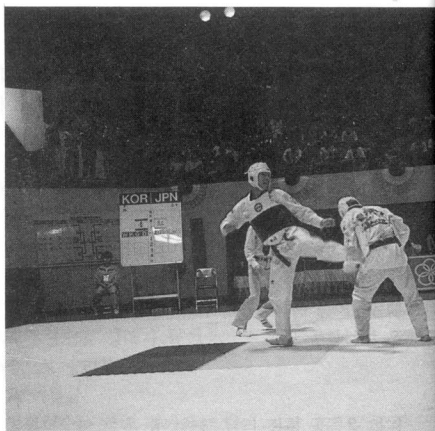
비록 한국이 이번 대회에 2진급 선수들을 파견 하기는 했어도, 대만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신장의 우세는 종합 우승에는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한국 선수와 맞 붙는 매 시합 매 마다 더욱 더 거세어지는 대만선수, 군중들의 웅원 소리는 그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음은 부인 할 수 없다.

아울러 깨끗한 심판 판정이 그들의 여자부 종합 우승을 가능 하게 하였다.

대만에서의 태권도 열기는 한국에 버금 가는 듯 싹다.

25년전 태권도가 처음 대만에 상륙 했을 당시 전



해군에게 태권도가 의무훈련 과정으로 도입 되었다.

현재 약 100만 태권도 인구로 추계되고 있으며 대만의 초·중·고, 대학의 약 80%가 태권도 클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태권도의 인기를 대변 해 주고 있다.

체격 조건이 타 경기 종목 보다는 태권도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대만은 태권도 발전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가 태권도 대회를 후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으로 계속 후원해 나가겠다. 타 종목보다 태권도가 대만에서 급성장 하고 있으며 인기 또한 대단 하다』고 이번 대회 조직 위원장이며 대회 후원자인 Albert Yu(金建新) 中國詩報 발행인이 밝혔다.

『한국이 여자 종합 우승을 놓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이것이 국내 여자 태권도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영기 한국팀 단장이 말했다.



중화대륙의 미소, 한국선수들의 침묵한 표정

**96년도 하계 올림픽 대회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서,
태권도 종주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보다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치력 발휘를 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필자 역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태권도 대회에서도 금메달과 종합 우승이 피나는 노력과 훈련 없이는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내 여자태권도 발전에 큰 자극

인도네시아가 여자 플라이급 결승에서 오스트렐리

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 하자 우승을 예측 하지 못해서 미처 국가를 준비 하지 못해 육성으로 선수 임원이 울먹이며 국가를 부르는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한국 여자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국내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에 태권도 여자부 정식 종목 채택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보다 더 과학적인 새 기술 개발과 노력이 뒤 따라야 합니다』라고 대회에 참가한 강원식 협회전무이사는 말했다.

지금이야 말로 어느 때 보다도 국기태권도의 세계화와 96년 하계 올림픽 대회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서, 태권도 종주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보다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치력 발휘를 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대만은 우승자에게 막대한 포상금을 걸어 선수들의 사기를 잔뜩 고양시켜 놓았었다.

아울러 대만 주요 언론 TV 매체들은 연일 큰 뉴스로 대회 취재 경쟁을 벌였으며 국민들의 관심도 아주 높았다.

『태권도가 '88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그리고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또다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어서 전 세계인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따라서 '96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Wu ching kuo 대만 IOC위원은 말한다.

이번 9월 동경 IOC총회는 한국의 태권도에 있어서는 사활이 걸린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을 위해서, 국내 체육부 체육회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의 적극적인 재정 후원과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더 없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언론의 역할 또한 중차대함을 지적 하고자 한다.

컴퓨터채점기 개발 완료

-7,8월 시험거쳐 9월부터 가동

대한태권도협회는 6월30일 컴퓨터채점기를 개발완료하고 7,8월, 2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쳐오는 9월부터 전국대회에서 사용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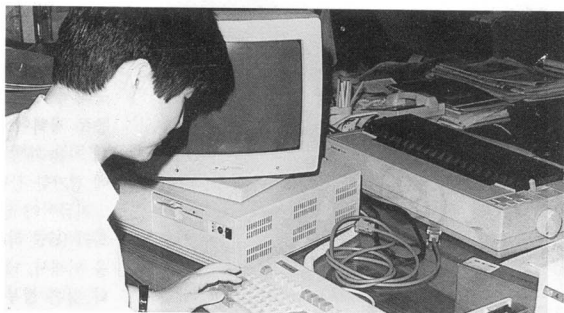
협회는 금년 3월부터 개정 적용한 경기 규칙상의 '즉시체점·즉시표출'을 위해 3월초 개발에 착수하여, 3개월의 시험제작기간끝에 가동에 성공하였다.

1천만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이 프로그램 및 기기는 2명이상의 부심이 인정한 득점이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집계되어 전광판에 즉시표출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심판들의 부정확한 판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심판이 작동한 후2초내에 다른 심판이 작동해야 득점으로 인정되어 전광판에 표출된다.

협회 강원식 전무이사는 『득점내용의 즉시 표출방식에 대한 문제는 일단 이 프로그램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 투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차례의 시험적용을 통해 발견토록하고, 2개월간의 시험기간 동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채점기의 효과에 대해



『그동안 태권도 경기장의 질서문란의 주요인이던 판정시비 불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득점내용이 즉시 표출됨으로써 관중들의 이해를 돕고, 훨씬 흥미롭게 경기를 관전케 될 것이다. 또한 부심들의

입력내용으로 정확한 경기기록을 보관 유지할 수 있으며, 고과표작성의 근거자료로 삼음으로써 심판들의 자질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태권도 연맹

심판사인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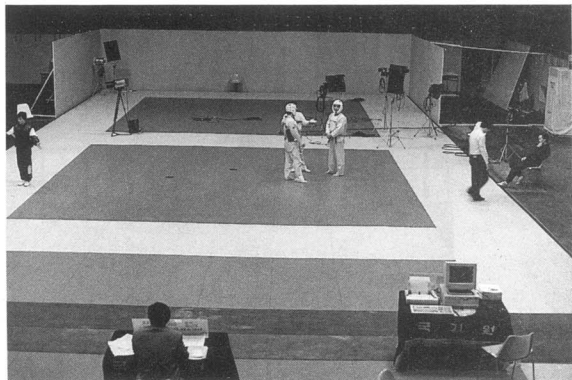
개정된 경기규칙과 함께 10월 7일부터 시행

세계태권도연맹은 심판사인을 개정하고 개정된 경기규칙과 함께 오는 10월 7일부터 함께 시행키로 하였다.

국제스포츠로서 보다 진보된 심판사인을 위해 작년 10월 세계연맹 총회 이후 개정작업에 착수한 연맹은 개정 취지에 대해 『과거의 심판사인은 시그널외에 많은 말을 함으로써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에 대해 국제스포츠로서 다소의 난점이 있고, 동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심판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 본래 동작을 간소화 또는 변질시키므로 통일성이 결여 되고 있다.』고 했다.

연맹은 개정된 심판사인의 홍보를 위해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키로 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10여명의 국제심판에게 교육을 시키고,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기원에서 촬영을 마쳤다.

연맹은 개정사인의 특징에 대해 『이번에 개정된 사인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작 마무리 부분에서 태권도의 본질인 절도를 강조하였다. 모든 심판들의 동작을 통일시키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편리한 자세로 교정하고, 가



능한 사용언어를 줄였다.』고 한다.

이 교육용 비디오는 8월초, 일 반에 선보일 예정이며 한국어외 4개국어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중우 사무총장은 개정사인의 교육에 대해 『교육단을 구성하여 각국에 파견, 교육시킬 생각이다. 더불어 그 기회에 심판들의 기본 교육을 다시 시키고자한다. 따라서 본 교육이 단순히 개정사인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선수와 함께 뛰는 심판』이 되도록 재교육

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중순부터 교육과 촬영에 참가했던 오수근 국제심판은 이 개정사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과거동작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인상이 주어지긴 하나 익숙해지면 좋아질 것으로 본다. 심판들의 동작이 통일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던 바람직 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경고를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관중들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는 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크레mlin宮에 부는 태권도바람”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에 밝은 전망



국기원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소련교포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행사에서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40억 전 세계인의 감탄을 자아냈던 태권도가 이제 사회주의의 종주국, 소련의 「철의 장막」을 넘었다.

지난 3월초, 소련의 체육부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희장은 『소련과의 본격적인 태권도 교류의 길을 트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방문에서 소련의 「그라모프」 NOC위원장으로 부터 한국에 정기적으로 태권도 유학생을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김희장은 이번 7월 1차로 20명을 초청하여 3개월간 국기원에서 지도해 주겠다고 동의함으로써 정기교류에 합의했다.

더불어 국내 유단자를 매년 3~4명씩 파견함으로써 소련내의 태권도 보급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3월28일 소련연방국가스포츠 위원회의 가맹경기단체인 소련연방무술연맹이 세계태권도연맹(WTF)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동구권내에서의 태권도에 관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현재 소련내의 15개 공화국을 비롯하여 동구권에는 최흥희씨가 이끄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보급해 왔으나 종주국인 소련연방이 WTF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가

입신청함으로써 산하 공화국과 불가리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유고·헝가리·폴랜드는 세계연맹에 가입하여 7회세계선수권대회(85년·서울)부터 교류를 하고있고, 소련의 리투아니아공화국과 라트비아공화국이 협회를 창설하여 소련연방무술연맹의 동의를 받아 가입신청을 해놓은 실정.

세계연맹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모스크바시 스포츠 행정책임자인 스탄코프·A·게오르기비치씨를 비롯한 한인교포2명과 우즈베크공화국 태권도협회장 이아지씨등 3명을 국기원에서 기술지도한 바 있다. 또 5월에는 19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을 소련·불가리아·헝가리 등 공산권 3개국에 파견하고, 소련에서 18일간 세미나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편 소련내에서도 내년 3월 모스크바시에서 4일간의 소련태권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연맹은 오는 8월 20명의 시범단을 1개월간 재 파견하여 소련 전역을 순회하며 태권도를 보급시킬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는 「한·소 태권도 교류」는 '96년 제26회 올림픽에 정식종목 채택에 훨씬 밝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정식종목 채택에 큰 장애로 작용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속속 세계연맹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

어 오는 9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정식종목 결정에 큰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1945년 소련의 북한진주로 시작된, 40여년의 오랜 한·소 냉각기가 페레스트로이카의 물결에 떠내려 가고 있다.

또, 태권도 뿐만 아니라 비공식 외교창구로 한·소 관계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소련과의 스포츠 교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88올림픽과 더불어 본격화된 양국의 스포츠 교류가 문화·예술·경제 등 여타 분야에까지 걸친 다양한 접촉을 통해 결국 양국 수뇌회담이란 외교적 결실을 이루게 했지만 이제는 역으로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체육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본다.

소련은 태권도와의 스포츠교류 외에도 지난 2월 민스크에서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 스키 페스티벌에 처음으로 한국을 초청하는 등 대부분의 경기에 한국을 동반하고있다. 또한 축구·핸드볼·하키·배구 등 4개종목에 걸쳐 정기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80년대 말부터 많은 교류가 시작되었지만 주변에 많은 유사단체의 존속과,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을 목전에 둔 우리 태권도계에 있어 「한·소 태권도교류」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을
목전에 둔 우리
태권도계에 있어
한·소 태권도 교류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태권도종목 첫채택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제7회 체육부장관기 전국체육고교 체육대회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남마산과 진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대회에서 태권도가 처음으로 채택되어 많은 태권도인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태권도의 종목채택에 대해 경남체고 장용규 교사(태권도부 감독)는 『이번 대회부터 태권도가 채택된 것은 체고내에서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태권도가 정책종목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예산상으로도 신입생 배정 등에서 많은 지원이 따르기도 하겠지만, 그간 비 종목으로서 소외감을 갖고있던 태권도선수들의 사기가 크게 고조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고 했다.

체육부장관기 체육고교 체육대회는 1984년 체육부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겨냥하여, 취약 종목으로서 우리 신체조건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9개의 정책종목(육상, 체조, 복싱, 유도,

레슬링, 역도, 수영, 사격, 양궁)을 지정하여 창설하였으며 금년까지 7회를 이어오고 있다.

태권도종목이 채택된 배경은 전국체고 교장회의(회장 류기정, 서울체고교장)에서 태권도는 우리 국기로서 향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메달박스라고 공감하고, 체육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정책종목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한편 태권도 종목으로서서는 처음으로 치뤄진 경기운영면에서도 경남태권도협회의 많은 후원으로, 화기에애한 가운데 타종목보다 평이 매우 좋았다는 후문.

경남협회의 강성환 전무이사는 『첫 대회인 만큼 소속에 치우치지 않고 타종목 임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8개 공립체육고등학교가 참가한 태권도 경기에서는,
1위 경남체고(금3, 은1, 동4)
2위 서울체고(금1, 은2, 동2)
3위 대전체고(금2, 은1, 동1)로 소속학교의 종합순위에 크게 기여하였다(※전국체전 집계방식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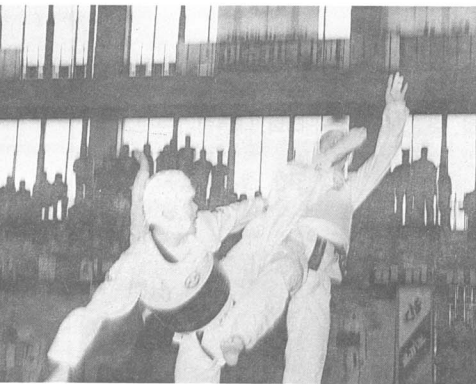
국내대회소식

- ...3월 26일부터 시작된 전국춘계종별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남녀국가대표선발전,...
- ...여자개인선수권대회, 어린이태권왕겨루기대회, 중고연맹회장기 대회, 대통령기...
- ...쟁탈전 등이 6월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 ...대회는 올해초 개정된 경기규칙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박진감 넘친 경기를보여...
- ...주었음은 물론 상임심판원제와 선수단 임원등록제의 시행으로 판정시비의 불...
- ...식과 경기장 질서확립에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남자국가대표선발전은 기존의 경기방식이던 리그전에서 토너먼트방식으로...
- ...변경 시행되어 우수한 선수발굴에 역점을 두었고 여자국가대표선발전에서...
- ...는 국가대표가 완전히 세대 교체되었다.



전국 춘계종별 선수권대회

(3.26-31, 국기원)



고등부 핀급 260 : 1기록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된 여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신인 강자를 발굴해낸 이번 경기에는 총 1,710명이 참가해 단일 종목에서는 최대의 출전선수라는 기록을 보이며 역대 대회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고등부 핀급의 경우 260명이 참가해 우승의 고지를 향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특히 1988년에 1,105명, 1989년에 1,447명(31% 증가)이 참가한 것에 비해 올해 18%가 증가한 것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3월7일자로 개정된 경기규칙을 적용한 시험무대

이번 경기는 '89년에 개정된 세계연맹 경기규칙에

발맞추어 개정되어 3월7일부터 시행된 국내경기규칙을 처음으로 적용한 대회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대회였다.

특히 우세의 관점에서 매회전 실시하던 방식을 동점이나 무득점일 경우 3회전을 통산해 주심직권으로 우세판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경기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는 전체1686게임중 한두건의 항의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경기가 진행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일선 코치들도 경기규칙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고 상임심판원제 도입으로 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물론 개정경기규칙 적용의 미숙함의 여토이기도 했고 주심의 우세판정에 대해 같은 심판들간에도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통쾌한 K.O승 연출한 정용운(리라공고) 양병권(성동고), 송정현(소림체육관), 최용환(체육선교원)

3월 28일 대회 3일째 경기에서 남고부 라이트급에 출전한 정용운(리라공고)선수는 16강전에서 이정환(동명공고)선수를 맞아 1회50초만에 원발앞돌려차기로 안면을 강타하며 K.O승을 거두고 8강전에 진출하였다.

또한 고등부 밴텀급 경기에서 양병권(성동고)선수는 같은 학교의 고유석선수를 3회1분10초만에 오른발 돌려차기로 K.O승을 거두고 32강에 올랐으며 이어 정현홍(송림고)선수를 판정으로 제압, 16강에 선착했다.

3월29일 대회4일째 경기 중 일반부 페더급 송정현(소림체육관)선수는 예선전에서 김철형(경남대)선수를 오른발 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시켜 3회32초만에 K.O승을 거두었다. 또한 같은 체급의 최용환(체육선교원)선수도 오른발 뛰어차기로 권중을(서울보건전문대)선수의 턱을 강타하며 1회 25초만에 통쾌한 K.O승을 거두었다. 최용환선수는 이어 16강전에서 서종완(용호체육관)선수를 가법계 판정으로 누르고 8강에 올랐으나 김기선(수원대)선수에게 득점을 내주며 판정패, 아쉽게 메달권 문턱에서 탈락했다.

'90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4.10 - 12, 국기원)

국가대표가 되는 길은 많은 관문을 뚫고 나가야만 된다.

이번에 1차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한 299명의 선수들은 이미 고등부 이상에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전국대회에서 무수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입상한 선수들로서 최종전 출전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체급별로는 편급 29명, 플라이급 33명, 밴텀급 47명, 미들급 27명, 헤비급 35명이며 팀별로는 57개로 고교 25개교, 대학 20개교, 일반 12개팀에서 출전했다.

체급별 주요 경기내용

· 편급 : 유망주로는 올해 2월초 이란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이경호(경희대)선수와 '89년도 같은 대회 2위자인 박재환(부산협회)선수가 기대를 모았으나 16강전과 8강전에서 각각 탈락하였다.

반면 성동고의 김인경선수는 뛰어난 뒷차기 기술을 발휘하며 노련한 대학 선배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며 편급 신예 강자로 주목을 받았다.

· 플라이급 : 대한체육과학 대학의 남학현선수는 나병수(경희대)선수에게 실격승, 김종은(대전체고)선수에게 3:1 판정승, 김영주(국군체육부대)선수에게 2:0으로 판정승, 오영주(국군체육부대)선수에게 2:2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남학현선수는 권혁선(한체대) 선수와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며 두선수 모두 득점을 내주지 않는 가운데 3회전 남학현선수가 오른발 받아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 밴텀급 : 밴텀급에서는 어느 체급보다도 국제대회 등에서의 화려한 경력의 소지자들이 많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으나 그동안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선수들이 피땀흘린 연습 끝에 이들을 꺾고

승리하였다.

국제대회 우승 경력자로는 지하철공사의 권기문선수(제5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플라이급 우승), 계명대의 정재정선수('89월드컵 플라이급 1위), 계명대의 임성욱선수(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편급1위 · '86월드컵대회1위)가 각각 예선에서 도전자들의 거센 패기에 밀려 탈락했고 올해 이란국제대회 플라이급 2위를 차지했던 송인환선수(경희대)는 예선 첫 경기에서 같은 학교의 조기현선수에게 1:0으로 패했다. 또한 올해 이란국제대회 밴텀급 우승자인 이종현선수(경희대)는 한성고의 김태호선수에게 밀리고 말았다.

이처럼 그동안 우승후보자로 떠올랐던 선수들이 대거 탈락함으로써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되어 우열을 가리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경기 당일의 체력이 승패에 변수가 됨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결승전에서는 인천전문대의 김성일선수가 한체대의 성대중선수를 2:1판정으로 누르고 패권을 차지했다.

· 페더급 : 고교 재학 중인 박재홍선수가 패기와 스파드에 의한 빠른 발차기를 주특기로 노련한 선배들을 물리치며 진출, 두각을 나타내었다.

결승전에서는 한체대의 김현철선수와 박재홍선수가 붙어 1회전 1:1, 2회전 2:2 등으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는데 3회전에 체력을 조절하며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득점을 따낸 김현철선수가 6:4로 승리를 거두었다.

· 라이트급 : 라이트급에서는 지난 해 대통령기 우승자인 동아대의 최중국선수가 예선에서 탈락하고, 전 국가대표로 제2회 월드컵 게임 페더급 우승자인 정승환선수(지하철공사)가 불참함으로써 비슷한 기량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가운데 박진석(경희대), 김광수(풍생고), 손원기(계명대) 선수가 각각 최종전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하였다.

· 웰터급 : 제7회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과 '89월드컵대회 라이트급 3위를 차지한바 있는 이창건선수(국군체육부대)가 노련한 경기운영과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제5회아시아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우승자인 한재구선수(현대자동차)는 예선전에서 오른발을 주무기로 받아차기, 내려차기,

돌려차기 등을 자유자재로 이용한 한체대의 신광수 선수에게 패하였다.

· 미들급 : 동아대의 김제경선수와 전남협회의 박은석선수의 경기로 펼쳐진 결승전은 1회에 1:1, 2회에 2:1, 3회 0:1의 득점으로 총 3:3 동점을 이루는 파이팅 넘친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박은석 선수가 2차례의 경고로 마이너스 1점(-1)을 당함으로써 판정패하여 김제경 선수가 1위, 박은석 선수가 2위로 각각 최종전에 올랐고 그밖에 3위를 차지한 정주석 선수(한체대), 주의홍 선수(리라공고)가 각각 최종전에 나갈 자격을 얻었다.

· 헤비급 : 1차국가대표선발전 중 유일하게 K.O승이 헤비급경기에서 나왔다. 8강전에서 김광섭선수(국군체육부대)는 도한진선수(대한체육과학대학)를 맞아 1회20초만에 오른발 앞돌려차기로 옆구리를 강타하며 K.O승을 거두었다. 그는 준결승전에서 김형대선수(광주체고)선수를 3:2로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 보령군청의 이정진 선수에게 기권승을 거두며 승리했다.

'90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4.26-27, 국기원)

올해부터 토너먼트방식으로 경기치루

전년도 국가대표 체급별 1,2,3위자 및 우수선수 선발대회 우승자, 올해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체급별 1,2,3위자 등 체급별로 247명씩 총56명이 최종전에 참가했다. 경기방식은 지난3월 기술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국가대표 선발대회방식 변경에 따라 리그전으로 치르던 것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였다.

팀별로는 한국 체대가 16명을 출전시켜 국가대표 산실임을 여실히 증명했고 경희대가 7명, 체육부대 6명, 동아대 5명, 현대자동차 3명, 대한 체육 과학대와 인천전문대 각 2명, 그 밖에 성동고 등에서 1명씩이 출전했다.



고교생으로 유일하게 국가대표 1위에 선발된 김인경

1차 국가대표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신인 강자로 기대를 모은 성동고의 김인경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국제대회 경험 등 노련미를 갖춘 대학생 선배들을 물리치고 국가대표 1위에 선발되면서 패기에 찬 고교생의 면모를 자랑했다.

김인경 선수는 예선전에서 지난 해 월드컵대회 1위자인 임창섭 선수(경기대)를 맞아 2:1로 판정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올라 양현석 선수(동아대)를 2:1로 누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국군 체육부대의 신재현 선수와 패권을 다투게된 결승전은 1회전 김선수가 주먹기인 뒷차기를 사용해 득점을 올리며 기선을 잡는 가운데 신선수도 돌려차기를 적중시키며 득점을 올려 1:1로 동점을 이루며 1회전을 마쳤는데 2,3 회전에서도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을 연출, 득점상 동점을 이루면서 판정의 순간을 맞이했다. 드디어 주심이 공격면에서 앞선 김인경 선수의 손을 높이 들자 관중들은 고교 국가대표선수의 출현에 많은 박수를 보내 주었다.

김철호,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태극마크

현대자동차의 김철호선수는 결승전에서 한국체대 3학년의 권혁선수를 맞아 4:2판정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 올해 월드컵 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영광을 안았다.

김철호선수는 지난해 국가대표1위로서 제9회세계 선수권대회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김선수는 올해 대표선발전을 앞두고 충남대의 윤희준선수를 대비해 받아차기동작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며 수련에 임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선수는 예선전에서 한체대의 정동현선수에게 2:2동점인 가운데 우세판정에서 패함으로써 탈락, 김선수는 가볍게 결승까지 진출하며 오른발 뒷차기, 밀기, 앞발 돌려차기 등의 기술을 주특기로 승리의 영광을 안았다.

현대자동차 2명의 국가대표 배출, 실업팀 가운데 정상에 올라

실업팀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3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2명의 국가대표를 배출, 기존의 지하철공사를 누르고 정상의 자리에 우뚝섰다.

플라이급의 김철호선수가 2연패한데 이어 밴텀급의 장혁선수도 2연속 국가대표의 영광을 안았다. 장혁선수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 앞돌려차기와 상단공격이 주특기로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노련한 공격과 수비를 병행하고 있다.

하태경선수 아슬아슬 페더급 정상에 올라

'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영광을 안은바 있는 하태경선수(한체대)가 올해 다시 국가대표가 되었다.

하태경선수는 예선전에서부터 결승에 오르기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열전으로 매경기마다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두어 누구보다도 힘들게 국가대표가 되었다.

예선전에서는 경희대의 김태형선수를 맞아 1:1동점인 가운데 우세승을 거두었고 4강전에서는 동아대의 강창모선수를 맞아 득점을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1:1우세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것이다.

결승전에는 같은 학교 후배인 김현철 선수가 한성고의 박재홍선수, 한국체대의 장혁선수를 이기고 올라와 같은 학교의 대전이 주목을 끌었으나 김현철 선수가 기권함으로써 하태경선수는 '87,'88년에 이어 올해 다시 국가대표선수가 되었다.



라이트급 양대승 월드컵 2연패 노리게 돼

오른발 뒤후리기, 받아차기 등을 주특기로 김광수 선수(풍생고)를 2: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오른 양대승 선수(한체대)는 경희대의 박세진 선수와 막상막하의 경기 끝에 우세승을 차지하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양대승선수는 '86년도에 월드컵대회에 출전,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올해 또 다시 월드컵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 2연패를 노리게 됐다.

고교생 국가대표였던 이현석, 대학생 되어 또다시 국가대표

지난 해 동성고 재학 중에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세계 강자들을 차례로 누르며 챔피언이 되어 각광을 받았던 이현석 선수가 올해 동아대에 입학, 더 나은 기술과 체력, 자신감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며 작년에 이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

이현석 선수는 현재 서울 지하철공사 태권도부 정국현코치가 웰터급의 독보적인 존재로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를 차지하며 무적을 자랑해왔는데 정선수의 기록을 능가할 재목감으로 기대를 모으게 했다.

이선수는 특히 신장이 좋은데 앞발 얼굴공격을 주특기로 우세한 경기를 펼쳐 준결승전에서 이창건 선수(국군체육부대)를, 결승전에서 진정우선수(국군체육부대)를 각각 우세승으로 누르고 승리를 거두

었다.

박은석의 행운, 정용석의 빛나던 뒤후리기

1차 국가대표선발전에서 2위를 차지하며 최종전에 출전한 박은석 선수는 결승전에서 전년도 국가대표 1위자인 정용석 선수를 맞아 원발 내려차기와 받아차기를 적절히 구사하며 2:0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국가대표가 되었다.

박은석 선수는 공격 때마다 득점으로 연결되는 등 경기를 순조롭게 풀어나가며 1986년도와 1989년도 월드컵대회 우승자이며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하는 등 화려한 국제대회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정용석 선수를 당당히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정용석 선수는 오른발 돌려차기 및 뒤후리기 등 그의 주특기를 살리며 공격에 주력했으나 박은석의 수비에 밀려 공격이 번번히 차단당하며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해비급 “꽃돼지”김광섭 우승

1차 선발전에서 뒤후리기 등을 특기로 득점을 올리며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김광섭 선수는 예선전에서 보령군청의 이정진 선수와 1:1동점을 거두며 가가스로 우세판정을 받으며 준결승전에 진출했는데 준결에서는 같은 체육부대소속의 김현일 선수에게 기권승으로 가볍게 결승까지 올랐다.

김광섭 선수와 최상진 선수(경희대)의 결승전은 1회전 김선수가 3득점이나 올리는 일방적인 경기운영의 주도권으로 2회전 최상진 선수가 기권, 해비급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가대표 1위 월드컵대회, 2위 아시아 선수권대회 출전

올해의 국가대표 1위자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1990년도 월드컵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한편 2위자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중화대륙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 9연패의 영광을 차지했다.

올해의 국가대표 1, 2위자는 내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자동 출전하게 된다.

여자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4.24-25, 국기원)

여자국가대표 완전 세대교체

총23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는 특히 지난해 국가대표 1진 8명 중 핀급의 김지향 선수가 나이제한(만15세이상 출전자격)에 걸려 출전을 못한데다가 플라이급의 원선진 선수와 밴텀급의 정남숙 선수가 예선탈락했으며 페더급의 김소영, 라이트급의 이은영, 웰터급의 김지숙, 미들급의 김현희, 헤비급의 정완숙 선수가 학교졸업 등을 이유로 선수생활 은퇴를 밝히며 불참함으로써 올해 여자국가대표 선수단은 완전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본기와 체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여자개인대회 우승 및 우수선수선발대회 3위 등을 차지하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오던 오산여중교의 유수진 선수가 핀급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87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회세계 여자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장이숙 선수는 8강전에서 신에 김진성 선수(송곡고)에게 2:0으로 패하였고 김 선수는 4강전에서 최인숙 선수(인천전문대)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 2위를 차지했다.



플라이급 국가대표 진용순.

진용순선수에게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원선진 패배

플라이급의 패권은 광명상고 1학년생인 진용순선수가 차지해 올해 최연소국가대표가 되었다. 특히 진선수는 8강전에서 지난해 최연소 국가대표선수로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효원고의 원선진선수를 눌러 파란을 일으켰다.

진용순선수와 원선진선수와의 8강전은 스피드와 패기, 기술을 바탕으로 박지감 넘친 경기를 보여주었다. 진선수는 경량급임에도 불구하고 큰키(165cm)와 발기술을 주특기로 한 득점력, 체력을 겸비하고 있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이다.

밴텀급은 선수들간에 비슷한 기량을 갖고 있어 우승자를 가리기 어려웠다.

특히 '88서울올림픽대회 우승자였던 추난룡선수가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올해 한체대에 입학함으로써 주목을 받아왔는데 8강전에서 대한체육과학대학의 공오분선수에게 패하고 메달권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밴텀급우승은 이승민선수(영덕여고)에게 돌아갔는데 이선수는 체력·신장·기술을 고루 갖추고 있어 앞으로 대회 경험을 쌓고 노련미를 갖추면 우수한 선수로서 성장하리라 기대된다.

라이트급은 공격과 수비의 적절한 대응을 구사, 두뇌플레이형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선수(인체체고 3년)가 패권을 차지했다.

웰터급은 여자 대학 태권도의 명문이라 할 수 있는 상명여대와 성신여대의 이성미선수와 고재경선수가 결승에 올라와 응원전이 경기만큼이나 열기가 가득했다. 이들은 비슷한 기량으로 승패를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1득점씩을 올려 동점을 이루었는데 이성미선수에게 우세승이 선언되었다.

미들급은 지난 해 국가대표 2위였던 박혜영(경희대)선수가 1차 예선전에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면서 지난해 헤비급 국가대표 2위였던 장철 선수와 겨루게 되었는데 2:0으로 장선수가 판정승을 거두며 무난히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상명여대의 양인덕선수에게 4:2로 패하고 말았다. 양인덕선수는 87년도에 국가대표 2위, 89년도에는 3위에 선발, 번번이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는데 올해 4학년 졸업반에 올라 국가대표로 선발되자 그 감회가 더욱 큰 듯했다.

국가대표 2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대만에 밀려 종합 2위

한편 체급별 1위자는 오는 9월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월드컵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2위자는 지난 6월2일부터 4일까지 중화대북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 대만에게 우승을 빼앗기며 2위에 머물렀다.

전국여자개인태권도 선수권대회

(5.10-11, 국기원)

국가대표들 대거 탈락, 원선진선수 재기

5월 10일과 11일 국기원에서 개최된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에는 총190명의 선수가 참가해 춘계종별 선수권대회에 1,710명이 참가한 남자에 비해 10%수 준밖에되지 않는 저조한 참여를 보였다.

첫날 첫 경기에서는 전국가대표인 원선진선수(효원고)가 최지영선수(영신여고)를 맞아 1회전에 뒤차



전세계 챔피언 원선진
선수가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기, 돌려차기 등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며 3득점을 올려 2회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R.S.C승(주심직권승)이 선언되었다. '89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수성여중 3학년생으로 플라이급 패권을 차지하며 각광을 받은 바 있는 원선진선수는 지난 4월 24일과 25일에 펼쳐진 여자국가대표선발전에서 광명상고 1학년생인 진용순선수에게 8강전에서 고배를 들어 태권도 관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대회 우승자로서의 실력을 과시했다.

한편 '87년도에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의 우승자인 장이숙선수(상명여대)는 편양광좌를 재탈환했다.

플라이급경기에서는 예선1차전서 10:0이라는 최대득점기록이 나왔다. 이는 광명상고의 홍지선선수가 고양여중고의 박진성선수를 맞아 1회에 4득점, 2회에 3득점, 3회에 3득점 등 무려 10점을 올렸다. 홍지선선수는 8강에서 88서울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이화진선수(경희대)를 맞아 3:1로 패하고 말았으며 이화진선수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밴텀급경기에서는 올해 국가대표 1위로 선발된 박동선선수(성신여대)와 2위자인 이승민선수(은광여고)가 출전했는데 본 대회에서는 이승민선수가 우승, 박동선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는 역전이 있었다.

한편 라이트급에서는 현국가대표 2위인 남정동선수(성신여대)가 예선전에서 은광여고의 최동현선수에게 2:1로 패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또한 웰터급에서는 현국가대표 2위자인 고재경선수(성신여대)가 준결에서 신인 이영미선수(천안여고)에게 우세승

을 내주며 탈락하는 비운을 겪었다.

헤비급에는 올해 2월에 성신여대를 졸업한 정완숙선수가 지난 해 제2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헤비급 우승을 차지하며 은퇴 의사를 밝혔다가 이번에 다시 출전해 태권도인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1차전서 신은실선수(인덕공고)에게 3회R.S.C승(주심직권승), 준결승서 남명희선수(한양여중)에게 2회 1분 30초만에 R.S.C승을 거두며 실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결승전에 올라 현 국가대표 2위자인 박은주선수(상명여대)에게 3:0으로 판정패하고 말았다.

제11회 어린이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

5.12~5.13 장충체육관



황성길
(국교연맹 편집위원·고양종교교사)

서울금천국민학교 단체우승 차지

제11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

도 대회가 5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장충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겨루기부분 남자 383명, 여자 44명과 품새부분 425명 총 852명이 출전하였으며 참가학교 현황을 보면 서울 32개교 경기 24개교 인천 5개교 강원 2개교 충북 2개교 충남 2개교 전북 3개교 전남 1개교 경남 3개교 부산 1개교 총 75개 학교가 참가해 선수 규모가 연맹 창립 이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21세기 세계 태권도 주역들의 기량을 과시하였다.

대회 이튿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개회식에서 국교연맹 임정대 회장은 대회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가 새로운 태권도 지식과 인격도야를 위한 교류장이며 우정의 대회로 기록되길 바라며 밝고 튼튼하고 잘생긴 우리 태권도 어린이의 모습에서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참얼굴과 도도한 민족의 자력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김운용 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한 홍종수 부회장은 그동안 갈고 닦은 태권도 기술을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힘찬기상을 보여줄 때 우리나라의 보다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식에서 남산 청년회의소 김상철회장과 안상수부회장 청주서원 국민학교 김천규 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본연맹 박재룡 관리부장 조윤제 정비부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개회식 행사에서 주한 외국인 어린이 30명(해동체육관 수련생)의 품새시범과 본연맹 이사 최재무 사범이 지도하는 신도립 국민학교의 격파시범에 5천 관중의 박수는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각 체급별 참가한 남자선수 현황은 핀급 54명, 플라이급 55명, 밴텀급 56명, 페더급 47명, 라이트급 50명, 웰터급 39명, 미들급 45명, 헤비급 37명 등이 참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경기도중 심판에 대한 코치와 학부형의 항의가 야기되기도 했으나 공개 사과와 더불어 태권도인의 긍지와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며 승자에게는 영광과 박수를 패자에게는 따뜻한 격려로 대회를 이끌어 나갔다.



청주서원국교 3연패의 꿈 좌절

이번 대회는 청주서원 국민학교가 단체 3위에 머물러 3연패의 꿈이 좌절되었으며 홍종배 코치의 탁월한 지도에 힘입은 서울 금천국민학교가 영예의 단체우승을 차지 했으며 최우수상은 이근호 (서울 금천국교) 인기상은 김원(서울신석국교)미기상은 강규선 (서울성산국교)어린이가 각각 차지 했다.

제17회 한국 중·고연맹 회장기 타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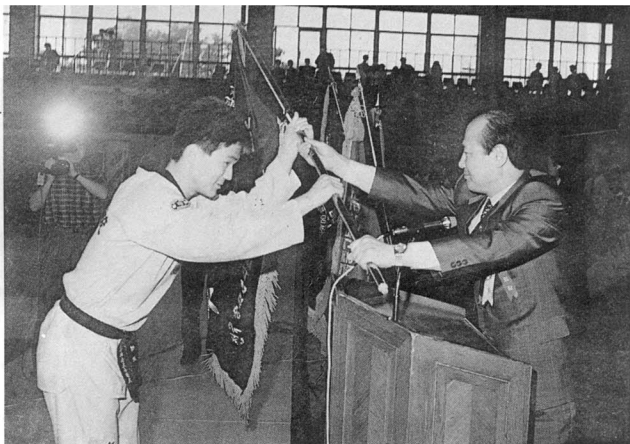
(6.4-9,국기원)



이 충 구
(중고연맹 경기부 위원장·
성암여상 교사)

총160개교에서 1310명 참가

제17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타기 대회가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의 주최하에 국기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고등부 우승을 차지한 서울체고에 우승기를 수여하는 이유생회장.

이번 대회에는 남자고등부 658명, 남자중등부 359명, 여자고등부 203명, 여자중등부 359명 등 총 160개교에서 1,301명이 참가해 큰 규모를 자랑하며 태권도의 중추적 역할을 과시하였다.(이번 대회는 종전 대회와 달리 단체전 경기를 2팀으로 제한함.)

대회 첫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개회식에서 이유생 중고연맹 회장은 대회를 통해 이대회는 교육의 연장이므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정정당당하게 발휘해 줄 것과 공정한 판정으로 그 어느 대회보다도 모범적이고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당부했다.

이어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출전 선수들이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승자와 패자 모두가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진정한 수련의 배움터가 되도록 당부했다.

경기에 앞서 개막식 행사에는 성안여상의 고적대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기량·체력면에서 많은 향상

한편 이번 대회에는 유명 선수와 무명 선수의 실력이 엇비슷해 평균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경기마다 박진감이 넘치고 스릴이 있었다. 또 기량면이나 체력적인 면으로도 많은 향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대회에서는 K.O승이 나오는 등 박진감 넘친 경기를 펼쳐 보였는데 남자고등부 밴텀급에서 천명규(리라공고) 선수가 이진성(충암고) 선수를 1회 50초만에 얼굴돌려차기를 강타하여 K.O승을 거두었고 웰터급에서 김효경(동성고)선수는 서승민(인천광성

고) 선수를 2회 13초만에 오른발 돌려차기로 안면을 강타하여 K.O승을 거두었다.

남자중등부 라이트급에서 박기태(한성중) 선수는 이윤식(용곡중) 선수를 2회 종료 직전에 앞돌려차기로 통쾌한 K.O승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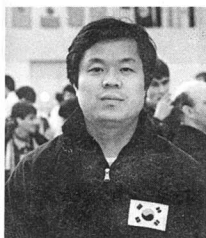
한편 여고부 웰터급에서 조항미(인천체고) 선수가 이용화(영복중합고) 선수를 2회 30초만에 왼발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K.O시켰다.

이번 대회에는 모 중학교 코치가 판정에 불만을 품고 배심식 책상을 이마로 받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질서대책위원회의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판 판정의 공정성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는 지도자의 자세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지도자는 수련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에 까지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련생(학생)을 지도할 때 신체발달이나 기술증진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교육면까지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태권도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폭력성을 초월한 인간성의 완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태권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체육의 영역에서 태권도는 정신수양을 목표로 한다고 정의가 내려지며 경기에서 태권도는 신체의 단련을 통한 승리감의 고취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고 여기에 태권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자원의 지원이 있을때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장래를 약속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제2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 대회



안용규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사무국장 · 대한체육과학대학 교수)

스페인 산탄테에서 4월 5일에서 8일까지 개최된 제2회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팀은 제1회 대회('86,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2연패를 이룩하였다.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가 주관한 이대회에서 한국선수단은 물갈이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고생하는 중에서도 종주국 대학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임해 남자 금6 은2, 여자 금4 은2 동1로 종합우승을 거두고 개선했다.

〈편집자주〉

한국대표팀 명단

△단장 : 김동석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 · 경원대학교 총장)

△회의대표 : 최인범 (경기대학교수)

△남자부감독 : 노희택 (서울대학교수)

여자부감독 : 이정길 (한국대학태권도연맹 부회장 · 암정 주식회사 회장)

△남자부코치 : 최영렬 (경희대학교수)

여자부코치 : 안용규 (대한체육과학대학 교수)

△트레이너 : 이인재 (성신여대코치)

△남자부선수 및 성적

핀급 : 서성교 (한국체대 · 금)

플라이급 : 윤희준 (충남대 · 은)

밴텀급 : 이안호 (경희대 · 금)

페더급 : 김병철 (한체대 · 금)

라이트급 : 심우현 (동아대 · 금)

웰터급 : 최창복 (경희대 · 금)

미들급 : 공두환 (경희대 · 금)

헤비급 : 최상진 (경희대 · 은)

△여자부선수 및 성적

핀급 : 이남숙 (성신여대 · 은)

플라이급 : 배은정 (성신여대 · 금)

밴텀급 : 박동선 (성신여대 · 은)

페더급 : 박선영 (경희대 · 금)

라이트급 : 석소정 (대한 체육과학대 · 금)

웰터급 : (상명여대 · 은)

미들급 : 양인덕 (상명여대 · 금)

헤비급 : 박은주 (상명여대 · 동)

우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승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전한다는 신념으로 출발

3월 31일, 개나리와 진달래의 꽃 봉우리가 고개를 내밀던 화창한 봄날 스페인의 산단테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대학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단 25명은 많은 태권도 관계자 및 가족 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8시 40분에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선수단은 단장에 김동석 대학연맹 회장을 비롯하여 제17회 대학개인태권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남녀 선수16명 등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선수들의 선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임원진들의 각오와 필히 종주국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선수들의 집념으로 인해 비행기 안에서의 분위기는 자못 숙연하기까지 했다. 서울을 출발하기 전에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이 남자팀 종합우승은 확실하지만, 여자팀의 종합우승은 불확실(?)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국제경험이 없는 신인 선수들이라 그러한 우려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 선수단 모두는 국가대표로서 우승을 하기 위해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승을 확인하기 위해 출전한다는 신념을 갖고 금번대회에 임하였다.

비행기는 백설의 대지 모스크바와 호수와 꽃의 도시 암스테르담과 스위스의 쥐리히를 거쳐 현지 시간으로 11시 30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마드리드공항에는 스페인에서 체육관을 경영하고 있는 김기호, 박재욱사범이 800km의 먼거리를 달려와 마중을 해주었다. 선수들은 너무 먼 시간의 여행이라 마드리드에서 1박을 하고, 4월 1일 오전 10시경, 목적지인 산단테에 도착하여 호텔에 투숙하였다. 우리가 투숙한 로마호텔에는 미국, 영국, 브라질팀이 같이 있었으며, 유럽 고품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오래된 호텔이었다. 식사문제는 현지에서 체육관을 경영하는 김창양사범의 도움으로 가능한 한국요리와 유사하게 주문하였다.

산단테의 날씨는 하루에도 서너번씩 비가 내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여 선수들의 건강이 몹시 걱정되었다. 도착 첫날, 임원진들은 각 국의



참가현황과 경기장소, 체재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였고, 선수들은 로드워크로 가볍게 몸을 풀고 태권도 종주국의 국가대표선수로서 우승을 확인하겠다는 필승의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 운영본부의 모든 상황이 미지수이고, 경기일정도 스페인어로만 전달되어 정보체계가 엉망이었다.

선수들은 대회에 앞서 스페인의 관광도시인 산테의 아름다운 해변을 달리며,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다. 하루 중에도 급변하는 날씨 탓으로 선수들중 5명은 감기기운이 있었다. 연습장소는 체중 조절자들 때문에 김창양사범의 체육관으로 정했다. 산단테에는 우리와 같은 사우나 시설이 없어서 사우나시설이 있는 김사범의 체육관이 안성마춤이었다. 연습후에는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미팅을 하고, 선수들은 서로 마사지를 해주며 팀워크를 다졌다.

도핑검사 우려로 약 복용 못해

4월 3일, 경기일정이 확정되었다. 경기는 3일 동안이며 6일에는 6체급, 7일에는 6체급, 8일에는 4체급을 실시한다고 했다. 선수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나, 모두들 정상 컨디션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감기환자가 7명으로 늘어났으나 도핑검사의 우려 때문에 약을 복용할 수가 없었다. 단지 보온을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였다.

체중조절을 하는 선수들은 빈덕스런 낯씨임에도 불구하고 체육관까지 로드워크를 하며 감량을 했다. 마침 3일이 박동선 선수의 생일이어서 조촐한 생일 파티로 축하를 해주었다. 케익의 불을 끌 때 머리를 누르는 바람에 얼굴에 온통 케익이 묻어서 한바탕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여자선수중 대학 4년생인 배은정, 박선영, 석소정 선수는 언니로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 한칼씩(?)을 하겠다는 맹세를 하였다.

운동중에는 최상진 선수가 경미한 부상을 입어 임원진들이 긴장한 날이기도 했다.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미숙한 운영

회의대표인 최인범 전무이사는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소청위원 선발임원으로 선출되었고, 경기일정과 심판진 구성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각종모임과 파티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운영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계체가 경기전날 4시에 실시한다는 것을 듣고 선수들은 당일날 실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경기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미국팀의 감독이 선수들에게 밀착접근하여 체중조절에 대해 캐묻거나, 교묘하게 심리전으로 선수들에게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비선사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났다. 한번은 미팅 시간에 들어와서 상식밖의 심리전을 펼치다 내가 연성을 높히며 망신을 준 해프닝도 있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촉진제가 되어 더욱 더 각오와 결속을 다지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식사가 잘 맞지않는 선수들은 서울에서 가져온 반찬으로 밥을 직접 해먹기도 했고, 교포 한분이 김치를 가져와서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했다.

28개국에서 161명 출전

4월 5일, 경기를 하루 앞두고 선수단은 최상의 컨디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날이었다. 경기운영본부에서 등록을 마치고 ID카드를 발급받았다. 또, 여자선수들은 성별검사를 실시했고, 4시부터의 계체량이 연기되어 7시에 시작되었다. 계체장

소에서 많은 한국 사범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각국의 코치, 감독으로 출전한 것이었지만 우리팀에게 우승하라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 계체량에서 예비저울이 틀려서 잠시동안 큰 걱정을 했으나 원래의 체중기와 500g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모두 무사히 계체량에 통과되었다.

선수들은 호텔로 돌아와 대진표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대진추첨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밤 2시에나 받아볼 수 있었다. 전체 출전 국가의 수는 28개국이었으며, 참가선수는 남, 여 161명이었다.

첫날 경기서 남자부 금2, 여자부 금3, 은1 차지

4월 16일 드디어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시작되었다.

첫날 경기는 여자 핀, 페더, 라이트, 미들급과 남자 페더, 미들급이었다.

경기는 3코트로 실시되었고 대진번호대로 하지 않고 경기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코치들도 세컨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선수들도 게임이 끝나고 얼마되지 않아 바로 다음 경기를 해야 했다. 특이한 것은 12시 30분까지 경기를 하고 4시까지의 점심시간이었다. 경기규정은 새로 바뀐 규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첫 경기는 여자 페더급 박선영의 경기로 오스트리아의 식스 선수와 겨루었다. 3회전동안 박선수는 몸통돌려차기에 이어 얼굴돌려차기 공격 등으로 일방적인 승리를 하였다. 사실상 첫 경기를 부담없이 풀어줘서 선수들의 긴장을 해소하는 촉진제 역할을 해주었다. 두번째 경기도 독일의 아슬래 선수를 내려찍기와 얼굴 돌려차기로 공략하여 3:0득점승을 하였다.

여자 라이트급의 석소정 선수는 개척국인 스페인의 로마 선수와 첫 경기를 했는데, 로마 선수는 캐나다의 카론 선수를 제압하고 올라왔다. 스페인의 관중들은 일방적으로 로마 선수를 응원하고 공격만 해도 환호성을 지르곤 하였다.

석 선수는 지칠줄 모르는 체력을 앞세워 3회전

동안 계속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두었다.

두번째 경기는 독일의 윈터선수였는데 석선수의 패기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다.

석선수는 오른발, 왼발에 이른 뒷차기 기술로 윈터 선수를 제압하여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미들급 양인덕 선수는 연습도중 약간의 무릎과 허리부상이 있었으나 첫경기에서 멕시코의 루즈선수를 맞이하여 몸통과 얼굴을 자유자재로 공격하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가장 유효했던 것은 선제공격을 시도해서 상대방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두 번째 경기로 독일의 물러 선수를 맞이하여 내려찍기 기술과 오른발 몸통받아차기 기술이 득점으로 인정되어 승리를 함으로써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핀급 이남숙선수는 핀급 출전 선수들 중에서 가장 신장이 작았으나 미국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대만의 민천우 선수와의 경기에서 대단한 화이팅을 보여 주었다. 조금도 밀리지 않는 체력과 기술은 가히 남자선수를 뺄질 정도였다. 민선수와 득점을 서로 주고 받았으나 3회전에서 돌려차기 득점을 빼앗아 3:1로 득점승을 하여 부전승에 힘입어 결승전에 진출했다.

남자 페더급의 김병철선수는 첫 경기에서 이집트의 아메드선수에게 4:1로 판정승을 하였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태리의 루카선수를 맞이하여 1회전 20여초 만에 뒷차기로 받아차기 한 것이 루카선수의 권관절을 맞아 경기불능으로 인한K.O승을 장식했다.

남자 미들급의 공두환선수는 첫경기에서 이란 선수를 맞이하여 뒤후리기와 나래차기 등으로 태권도의 기술을 마음껏 보여준 경기로서, 일방적인 승리를 하였다. 두번째 선수는 이집트의 파우지 선수로서 월드게임의 우승자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파우지 선수는 뒤후리기와 뒷차기 기술을 겹없이(?) 사용하며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파우지 선수는 경기운영 면에서도 국내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노련한 공두환 선수는 상대의 헛점을 읽고 붙은 상태에서 내려찍기 기술을 시도하여, 파우지 선수는 열을 썰뿔안 있어서질 못해 멋진K.O승을 장식하였다.

남자선수의 경우
경기운영면에서 앞서지만
체력조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고,
여자선수의 경우는
오히려 국내선수 보다는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고 체격, 체력면에서 월등하여
우리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트레이닝과
연습이 필요하다.

모든 결승전은 점심식사 후에 실시하기로 되어 우리선수들은 식사후에 약2시간 정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여자 페더급 결승에서 박선영 선수는 스페인의 돌스선수를 맞이하여 노련한 경기운영을 보이며, 돌려차기에 이은 얼굴 돌려차기가 적중되어 우승을 차지하였다. 태극기가 올라갈 때 국가가 연주되지 않고 FISU 공식 음악이 연주되는 것이 특색이었다.

남자 페더급 결승에서 김병철선수는 대만의 민 선수에게 오른발 뒷차기 기술과 오른발 내려찍기 기술이 득점으로 인정되어 우승을 차지하였다.

여자 미들급 결승에는 양인덕 선수가 대만의 링 선수와 격돌했는데 링 선수는 경험 많은 선수인 지 노련미가 었보였다. 그러나 양선수의 다양한 기술에는 당하지 못하고 양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여자 라이트급에서는 석소정 선수가 대만의 리엔 선수를 맞이하여 서로 팽팽한 경기를 보였다. 그러나 석선수의 빠른발 돌려차기에 이은 오른발 돌려차기 기술이 유효하여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남자 미들급 결승에서 공두환 선수는 핀란드의 자드선수에게 돌려차기와 뒤후리기 기술을 퍼부으며 경기를 주도하여 우승을 차지 하였다. 한 외국선수는 공선수의 결승전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에게로 다가와서 저런 멋진 동작들 때문에 본인이



대권도를 시작했다고 했다.

여자 핀급 결승전에서 이남숙 선수는 스페인의 로레스 선수를 맞이했는데, 로레스 선수는 체중이 적어도 밴텀급이나 페더급 정도 될 듯 싶었다. 뒷이야기이지만 첫날 스페인 선수들은 체량량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치 중학생들과 대학생의 경기모습 같았다. 그래도 이선수는 이인재 코치의 지시대로 조금도 밀리지 않으며 공격을 시도했으나 체력에서 너무 열세였다. 서로 주고받는 득점 상황에서 스페인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 덕분인지 이 선수에게 경고 벌칙이 주어져서 결국 우승은 스페인의 로레스 선수가 차지하였다.

첫날 선수단은 여자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남자 금메달 2개로서 일단 여자는 종합우승이 확정되는 날이었다.

경기후에는 도핑검사가 실시 되었는데 소요 시간이 7시부터 밤11시까지 걸려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을 너무 지치게 하였고, 전체 식사장소인 메디시이나 대학에서는 식사후에 버스가 오질 않아 2시간씩 기다리게 하였다. 이에 대해 세계각국의 선수단은 경기운영본부에 거센 항의를 하였으나, 버스가오기도 식사를 해아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일 이라고 통역하는 자원 봉사자의 말이었다.

대회 이틀째 각각 종합우승 확정돼

이틀째는 남자 4체급(핀, 밴텀, 라이트, 웰터급)과 여자 2체급(플라이, 웰터급)의 경기가 있었다.

남자 핀급의 서성고 선수는 이란의 레자이 선수에게 1회전에서 몸통돌려차기로 1득점을 얻었으나 2회전에서 레자이 선수가 뒷차기로 1득점을 빼앗아 첫 경기 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였으나 3회전에서 내려차기 기술이 얼굴에 적중하여 승리하였으며, 대만의 장중상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내려차기와 돌려차기 기술로 3:1로 득점승을 했으며 결승전에서는 미국의 리홍 선수에게 1회전에서 내려차기, 2회전에서 얼굴 후려차기, 3회전에서는 몸통돌려차기 득점이 1:1로 나와 3:1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밴텀급의 이안호 선수는 대만의 시밍후 선수와 스페인의 자스선수, 요르단의 피라스 선수를 차례로 꺾고 결승전에서 이집트의 헨나위선수와 만났는데, 경기는 순발력과 기술에서 앞선 이선수의 일방적인 승리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웰터급의 이성미 선수는 첫 게임에서 멕시코의 로자 선수에게 원발 돌려차기 득점으로 승리하였고, 스페인의 코랄선수에게는 1회전에 돌려차기로 득점을 빼앗기고, 2회전에서 원발돌려차기로 득점을 얻었다. 코랄 선수는 두번째 공격에서 뒷차기 기술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선수가 그것을 간파하

여 받아차기로 득점을 얻었던 것이며, 1:1에서 우세를 차지하여 결승에 진출하였다.

결승에서는 미국의 알렌 리마스선수와 격돌했는데 리마스선수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 대회의 우승자였다. 신장의 차이가 많았으나 1회전은 이선수가 우세했고, 2회전에서는 리마스 선수의 앞발 얼굴 돌려차기가 얼굴에 적중하여 2개의 득점을 빼앗겼다. 3회전에서 전력을 다하여 공격을 했으나 또다시 얼굴 득점을 허용하고 종료시간 까지 득점을 2개 얻었으나 득점상황 3:2로 준 우승에 머무르고 말았다. 아무리 체격의 열세이긴 하지만 리마스 선수를 이기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쉽다.

라이트급의 심우현 선수는 첫 게임에서 유고슬로바키아의 움베르토 선수에게 얼굴 돌려차기 기술로 1회전에서 K.O로 승리하였고, 대만의 황밍 선수에게는 나래차기와 돌려차기 기술을 이용하여 3:1로 승리하였고, 이란의 모하메드 선수에게는 내려차기 기술로 일방적인 승리를 하였다. 결승전에서는 이집트의 키스기와 만났는데 1회전에서 내려차기로 1득점, 2회전에서는 뒷차기로 얼굴 공격을 하여 카운터를 할 정도로 충격을 주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웰터급의 최정복 선수는 이란의 세야드 선수와 멕시코의 조세 선수에게 몸통돌려 차기에 이은 내려차기 기술로 승리하였고 프랑스의 라필선수에게는 다소 고전하였으나 깨끗한 득점1개로 승리하여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결승에서는 스페인의 멘다자 선수와 싸웠는데 2회전까지 2:2의 득점상황을 나타 내었고 최선수는 몸통득점에 비하여 멘다자 선수는 얼굴득점을 얻어서 다소 불안한 감은 있었으나 3회전에서 최선수가 오른발 돌려차기로 정확한 득점을 얻어 금메달을 차지 하였다.

플라이급의 배은정 선수는 대만의 유엔밍 선수와의 경기에서 3회전의 얼굴득점으로 승리하였으며, 멕시코의 미카엘라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경험은 많은 배선수가 노련한 경기를 펼쳐 승리하였다. 결승전에서는 미국의 테리 선수를 만났는데 1회전에서 돌려차기 기술로 얻은 1득점을 잘 관리하여 우승을 차지 하였다.

결국 두번째 날은 남 녀팀이 종합우승을 확정하는 날이었으며, 한갈(?)하졌다면 배은정, 석소정, 박선영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여 맹세를 지킨 날이기도

하였다. 선수단은 우승의 기쁨보다는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격려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경기후에는 경기장에서 디스코 파티가 있었지만 선수들은 경기가 모두 마칠 때까지 긴장상태에 있겠다고 하며 파티에 가기를 거절하였다.

김동석 회장은 한국 사범님들과 각 국의 임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만찬을 베풀었다.

마지막날 4체급경기 모두 우승 놓쳐

경기는 마지막 날로 접어 들었고, 경기는 남자 2체급(플라이, 헤비급), 여자 2체급(밴텀, 헤비급)이었다. 여자 헤비급의 박은주 선수는 첫 경기서 스페인의 소냐 선수를 만났는데 신장차이가 약 20cm정고였다. 소냐 선수는 주로 얼굴공격을 시도하였는데, 박 선수는 그것을 이용하여 몸통 돌려차기 기술로 소냐 선수를 제압하고 준결승에서 대만의 양시천 선수를 만났다. 1회전에서는 득점 1개를 빼앗기고, 2회전에서는 돌려차기로 1득점을 얻었다.

3회전에서는 서로 조금도 밀리지 않고 득점을 하나씩 얻어서 2:2상황이 되었다. 3회전에서 공격다운 공격의 횟수가 많은 박선수의 승리가 예상되었으나 한참 후의 판정은 양시천 선수의 승리였다. 결국 박 선수는 동메달에 그치고 말았다. 아마도 이를 동안에 얻은 좋은 결과가 심판들에게 작용 했으리라는 짐작을 해 보았다.

여자 밴텀급의 박동선 선수는 다부진 경기로 많은 갈채를 받은 선수 중에 한명이었다. 첫 경기에서 말레이시아의 고래티 선수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어 4:0의 득점을 얻어 승리하였다. 아마도 다부진 공격과 기압소리에 기가 질린 듯 하였다.

두 번째 경기는 미국의 하터선수와 격돌했는데 역시 일방적인 경기로 승리하였고 결승에서는 스페인의 라쿨선수를 만났는데 관중들의 웅원소리에 세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결국 득점을 주고 받는 가운데 라쿨선수의 우세승으로 판정이나서 박선수는 은메달을 차지 하였다. 그러나 중중국의 화이팅을 보여준 후회없는 경기였다.

남자 플라이급의 윤희준 선수는 이태리의 시몽선수와 멕시코의 루이스 선수에게 2:0의 득점으로 승리하여 결승전에서 미국의 세미선수와 격돌했는데,

1회전에서 득점을 1개 빼앗기고, 2회전에서는 득점 상황이 1:1에서 미국이 우세였다. 정말 세미전수는 두려움없이 모든 기술을 다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3회전에서 윤선수가 밀어차기로 다운을 시키고, 깨끗한 돌려차기의 기술로 득점을 얻었지만, 득점 1개만을 인정하여 아깝게 우세로져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헤비급의 최상진 선수는 첫 경기에서 미국의 토리 선수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하고, 스페인의 조세 선수와 격돌했다. 주심이 최선수에게 1회전에서 경고를 2회, 2회전에서 2회의 경고를 주어 이상한 분위기였으나, 최선수의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득점3개를 얻어 결승에 진출하였다. 결승에서는 서울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던 이집트의 아르르선수를 만났다. 세계대회에서 한번 패했던 최선수는 필승을 다짐하며 경기에 임했다. 정말로 아르르 선수는 침착하면서도 빈틈이 없는 선수였다. 최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최선수의 득점원이 원발인 것을 알고, 선제 공격을 피하고 기다리고 있다.

1회전에서 아르르선수의 오른발 돌려차기가 정확히 득점으로 인정되고, 최선수 또한 돌려차기로 득점을 얻었다. 2회전에서는 갈려후 공격으로 최선수에게 감점이 선언되었고 최선수의 공격이 계속되던 중, 최선수가 아르르선수의 손에 눈이 찔렸으나 주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최선수의 경기불능이 선언되어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다.

선수들은 경기종료 후 관중에 다소 불만이 있었으나 전원이 경기장 안에서 관중에게 인사를 하자 관중들은 많은 박수를 보내주었다.

결국 우리는 금메달10, 은메달5, 동메달1개로 남녀 종합우승을 하였고, 세계대회 출전시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여 근대예 보기도 큰 팔목만한한 성과였다고 생각된다.

대회를 마치고

그러나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좀더 화려한 경기 기술을 보여주지 못한것이 아쉬웠다. 이제 국제무대에서의 태권도는 한국선수들만의 독무대가 아니었다.

남자선수의 경우, 경기운영면에서 다소 앞서지만 체격조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고, 여자선수의 경우는 오히려 국내선수 보다도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

수들이 많았고 체격, 체력면에서 월등하여 우리 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트레이닝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대회였다.

호텔로 돌아와서 선수단은 김동석 회장이 배운축 하파티에 참석하여 멀고 먼 타국에서의 승리를 자축했다. 이 자리에는 어수일사범이 와서 축하해 주었으며, 처음으로 선수단 전체의 노래숨씨(?)를 알 수 있었다.

4월 9일에 우리는 가볍고 흥가분한 마음으로 알타미라 동굴입구와 시내관광을 했고, 4월 10일에는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파리에서는 김용호 사범과 차상혁 사범이 관광안내를 해주었다. 개신문, 몽마르뜨언덕, 에펠탑, 세느강 유람 등 모든 피곤했지만 건문을 넘히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특히 한국식당이 있어서 밥과 김치를 마음껏 먹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파리에서 이틀동안 관광을 하고 4월 12일에는 서울행KAL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 도착후 공항에서 수많은 환영객들의 환영을 받으며 임원 및 선수들은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종주국으로서 우승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임원 및 선수들의 합일체에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된다.

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성을 다해서 살자”라는 것이다.

끝으로, 금번대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고생을 하신 대한태권도협회의 여러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선수단을 총괄하며 몸소 뛰어주신 김동석단장님, 경기중에도 모든 열정을 바쳐 선수들과 함께 해주신 이정길 감독님, 경기운영 전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희덕 교수님, 풍부한 경험으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신 최영렬 교수님, 서류의 시작에서 부터 선수들의 식사까지 모든 상황에서 밤낮으로 뛰어주신 최인범 전무이사님, 그리고 연습도중에 췌장이 골절된 상태에서도 선수에게 정성을 다하고 “우승을 확인하기 위해 간다” 라고 말해주신 이인재 코치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가슴에 달린 태극기의 가치를 최대로 발휘해준 선수들의 노고는 선수단 누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직될 것이며, 나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제25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6.19-22 대구실내체육관)

태권도 단체전의 대명사 대통령기대회가 6월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직할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금년으로 25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온 이 대통령기 대회는 81년 경복협회에서 16회 대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각 지방을 순회하며, 지방대권도의 분조성과 경기력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더불어 시도지부에 대회운영능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부대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번 25회 대통령기는 대구시가 경북과 분리되기 전인 81년 16회대회를 경복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래 만9년만에 다시 대구에서 개최되었다.

3개부 총 87개팀 565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경기운영이나 심판판정 문제 등 모든 면에서 합격점을 받은 우수한 대회로 평가 받았다.

대학부와 일반부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한국체대와 국군체육부대가 각각 우승을 하였으나 고등부에서는 단체전 우승의 경험이 없는 한성고가 차지하는 등 향후 고등부에 큰 파란을 예상케 하였다.

한성고 신흥 명문으로 부상

57개팀 370명이 참가한 고등부에서는, 태권도의 명문고인 동성고, 서울체고, 대전체고 등이 다크호스 한성고 등에 의해 결승의 문턱에서 무너지며 파란이 시작되었다.

명문3개교가 결승6체급에서 개미군단 7개교(한성, 리라, 광성, 관악, 풍생, 부산체, 숭실)에게 각각 격

파를 당해 결국 2개 체급에서 금메달을 얻은 한성고(금2, 은1)가 창단 21년만에 첫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의 예상을 뒤엎은 25회 대통령기 고등부대회는 각 학교간 기량의 평준화(금메달 8개를 7개교가 획득)와 서울과 지방학교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전체 32개 메달중 지방교가 50%인 16개 차지)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각종 대회에서도 적지않은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2,3위는 관악고(금1, 동3)와 풍생고(금1, 동2)가 각각 차지하였고 감투상은 부산체고(금1, 동1)에 수여되었다.

대학부 시상식 1위 한국체대, 2위 계명대, 3위 동아대



한국체대 정상탈환, 계명대 준우승으로 상한가

15개팀 107명이 참가한 대학부 경기는 전통적으로 강한 한국체대와 동아대, 그리고 경희대의 3파전에 흡입된 계명대가 뛰어들며 2,3위권을 안개속으로 밀어 넣었다.

80년부터 시작한 대학부 경기 10회중 8회를 우승한 한국체대는, 전년도 동아대에 뺏긴 우승기를 다시 탈환하고자 명예회복을 선언, 결승까지 6체급을 파죽지세로 몰아 붙여 결국 금4 은2 동1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한국체대를 제외한 대학중 최초의 2회 우승을 노리고 출전한 동아대는 웰터급 우승후보 이현석(국가대표)이 1차전에서 한국체대의 양대승에게 2:1로 무너지며 사기가 꺾여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경량급 2체급에서 다크호스 체육과학대 선수에게 잡혀 3위(금1, 은1, 동2)에 그쳤다.

권태호(밴텀)와 공두환(미들)을 앞세운 경희대는 명예회복의 한국체대와 2회우승 목표의 동아대의 양면 공격에 등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당했다.

한국체대와 동아대가 경희대에 삼엄한 경계를 하는 동안 7명이 출전한 계명대는 각체급 4강에 3명(플라이, 페더, 라이트)을 올려놓고 결국 똑똑한 놈(?) 셋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플라이급 결승에서 조성호가 한국체대(박성호)를 잡아 기틀을 만들고 라이트급(손원기)에서 경희대(박진석)와 피차 배수의 진을 친 일대 격전을 벌였다. (계명대가 패하면 4위로 전락, 경희대는 2위로 부상)

손원기의 승리로 계명대는 준우승(금2, 동1)을 차지하여 대회를 유치한 대구태권도인들에게 보답을 하였다.

감투상은 헤비급에서 우승한 청주대 (금1, 동4)에 돌아갔다.

국군체육부대, 군기 재확립

15개팀 88명이 출전한 일반부는 현대자동차와 서울지하철공사 등 7개의 고장을 대표한 실업팀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설악케이블카(강원)외에도 장려상을 받은 범양식품(대구), 보령군청(충남)와, 광주시협회, 동광양시협회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출전함



일반부 시상식 1위 국군체육부대, 2위 현대자동차, 3위 광주시협회

으로써 향후 실업팀 육성의 밝은 조짐을 보여 주었다.

전년도 신생실업팀 현대자동차에 우승을 뺏기고 4위로 몰락했던 체육부대는 와신상담의 1년을 보내고 패죽필사(敗則必死)의 출사표 아래 호화군단 현대자동차와 결승 4체급에서 격돌, 2:2로 무승부를 이루고 다른 2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 금4, 은3으로 우승기를 탈환하였다.

현대자동차와 우승의 향방을 좌우한(양측 모두 금3으로 동률) 미들급 결승, 마지막 대회전에 출전한 입대3개월의 신병 윤순철(이병)과 노련한 국가대표 정용석(현대차)의 대결에서 윤순철은 훈련소 군기에 힘입어 내려차기로 3득점, 기권승을 거두고 우수선수 상으로 직행, 확실한 신고식을 치렀다.

현대자동차는 미들급을 제외한 중량급에서 각각 불의의 일격을 당해 호화군단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준우승(금3, 은2, 동1)에 머물렀다.

한편, 전년도 현대자동차 우승과 체육부대 함락의 일동공신이었던 지하철공사는, 질치부심의 체육부대에 3체급에서 패퇴함으로써 등의(동3)로 몰려났다.

3위와 감투상은, 광주시협회(금1, 동1)와 설악케이블카(은2, 동1)에 돌아갔다.

“투자한 예산 이상의 무형의 효과 있었다”

—대구직할시협회 전무이사 김영곤—



제25회 대통령기 D-15일차부터 최종일 시상식까지 밤잠 못 자고 뛰어다닌 대구시협회 김영곤 전무이사.

종합시상식, 각팀의 임원선수가 환호하고 있을 때 로열박스빌 임원실 구석에 탈진해 앉아있는 잔치집 큰머느리를 만나 대회 뒷얘기를 물어보았다.

—먼저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쳐 축하드립니다. 대구시에서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하신 동기는?

『'85년, 대구·경북이 행정상으로 갈라지면서부터 계속 전국체전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경기력 향상과 대구시민들의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했습니다.』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번대회가 우리 대구시의 임원·선수 모두에게 실력평가와 낙후된 경기력 활성화의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일부부 경기에 범양식품팀을 내보내긴 했지만, 2~3년안에 정식실업팀을 육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임원들이 협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는 등, 다소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하나로 결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투자한 예산 이상의 무형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큰 대회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셨을텐데...?

『물론 적지않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살림에 지장이 없도록 협회예산에서 1/3을 충당하고, 고문단업체에서 2/3가량을 지원받아 살림살이에는 큰영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점이나 아쉬운점이 있다면...?

『부회장, 이사들을 비롯한 전 임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또 각 기관과의 협조도 잘 이루어져 모든 것이 잘 되었으나, 월드컵 축구 등 다른 행사 때문에 다소 빛이 감소된 듯하여 아쉽습니다.』

—중앙협회의 대구심판 배정(1명)에 대해 너무 인색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대구심판이 많았다면 타시도에서 불만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대구심판을 한명으로 배정하여 홈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줄인 것이 다른 대회보다 항의가 적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 경기장에 공정함이 뿌리 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국내에 정착되어야만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체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회를 마치며 소감 한 말씀.

『이제 우리 대구시는 92년 전국체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가 92국체를 치루어내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요즈음 심판관정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공정하다고 지방의 여론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을거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팀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중석

▲대타(代打) 개최식

6월19일 11시 개최식에는 대구 여고 밴드부가 대동, 개최식의 분위기를 살리고, 본부석에는 주요 기관장과 시도지부 임원들이 임석하여 국내 최고권위의 대회로서 면모를 갖췄는데.

정작 각종 식사를 해야할 대회장(대회사)과 주관 협회장(환영사), 대구시장(축사)이 모두 공무로 불참, 다른 사람이 대독(代讀)하는 바람에 임석했던 모지방 일간지 기자는 '대타개회식'이라고 일침(一針).

▲모든면에서 우수한 대회로 평가

9년만에 대구에서 치른 25회 대통령기 대회는 여타 대회와 비교하여 경기 운영면에서나 심판 판정면에서나 일단 합격점이었다는게 중론.

전년도 대통령기(24회)를 주관했던 강원도 박병철 전무이사는 『신속한 질서유지와 안내방송으로 보다 매끄러운 진행을 못한 것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운영이나 심판관계 등 전반적으로 잘 치루어진 대회』라고 평했다.

또 심판 판정에 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각 팀의 코치들도 『규정 적용과 해석상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수 있었지만, 과거처럼 터무니없는 장난(?)은 없는 것 같다. 대체로 무난하였다.』고 말하며 특히 지방팀 코치들일 수록 만족도가 높은 편.

대회를 주관한 대구시협회 임원들도 『운영상 큰 경험을 얻은 것도 수확이지만 9년만에 치르는 큰 대회라서 선후배 가리지 않고 일에 뛰어들어 임원간의 화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대구 태권도계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자족, 안팎으로 만족한 대회임을 자타가 공인.

▲경기장 질서확립 조짐

이번 대회에는 경기중단 1회가 옥의티로 지적되고 사소한 판정항의가 있긴 하였지만, 태권도경기장이 몰라보게 점잖아 졌다는 일선기자들의 지적.

이는 경기장 질서확립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있는 집행부가 그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임심판원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대구시협회 임원들.

도와 현장경제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조짐으로 해석할수도.

물론 일선 지도자들의 성숙된 질서의식과 판(?)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자의의식이 선행되고 있는 시점에 오비이락(烏飛梨落)적으로 맞아 떨어졌겠지만...

아뭏든 금년부터 강력한 칼을 뽑아들은 집행부에 대해 많은 코치들이 가능한 감정을 자제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더불어 '대전장(大戰場)'이라고 불리는 전국체전에서도 두제도의 위력을 기대한다고.

▲현대자동차 함준, 상중투혼(喪中鬪魂)

일반부 밴텀급에 출전한 함준(현대자동차)은 22일 아침 형의 교통사고 사망소식을 전해듣고도 경기에 출전, 금메달을 획득하여 그의 상중투혼에 많은 갈채.

21일 전주-군산간 국도에서 사고가 난 신생 프로 야구단 쌍방울레이더스팀의 트레이너 함진씨가 그의 형.

아버지 함봉준씨는 21일 저녁 현대팀 김종관 감독과의 전화연락에서 경기종료후 알릴 것을 당부하였으나, 22일 조간신문을 통해 당사자도 알아.

결국 현대팀은 모두 도복에 검은 리본을 달고 경기장에 출전하고, 대회 종료후 모두 함진수의 고향인 전북 전주로가 조문, 동료애를 과시하기도.



“악조건에서도 분전한 선수들에게 영광을”

—창단22년만의 처녀우승, 한성고 윤창욱교사(지도상)—



창단 22년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한성이 대통령기를 입에 물었다. 어느 단체전에서도 우승기를 안아보지 못한 한성이 대통령기라는 월척(?)을 건져올렸다.

‘86년 중고연맹전 준우승이 최고의 성적이었던 한성고, 과연 고등부의 신흥명문으로 부상할 것인가?

25회 대통령기 고등부 지도상의 윤창욱 선생을 만나보았다.

—소감 한 말씀

『악조건에서도 분전한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학교와 한성동문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웠던 상대는?

『대전체고를 경계했습니다. 다행히 대진운이 따라 맞붙질 않았고, 또 다른팀에서 잡아주는 바람에... 어려웠던 경기는, 페더급에서 고려고와의 경기와 밴텀급 결승에서 동성고와의 경기였습니다.』

한성고는 오후1시부터 3시반까지 팀훈련, 4시부터 5시반까지는 개인훈련을 한다. 한성고 선수들이 내세우는 발기술은 윤창욱선생이 선수생활시 특기로 사용하던 원발빠른발과 내려차기, 뒷차기.

—내년에도 자신있습니까?

『올해가 3학년으로 구성된 최고의 멤버였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없습니다.』 ‘아직은’이란 말을 강조

하는 것으로 봐서는 1~2학년 유망주에 대한 기대가 큰눈치다.

—앞으로의 목표는?

『제자들을 한성고에서 졸업시키기전에 대표선수로 만들어 보는 것이 꿈입니다.』

—이번대회 우승의 의미는?

『단체전의 첫 우승을 대통령기로 해내 선수들의 사기가 매우 높아졌다. 선수들의 자신감으로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윤창욱교사는 74년 대표선수 시절 제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편집 우승의 경력을 갖고있다. 83-84년까지 상무팀을 지도하며 84년 일반부에서 우승하여 대통령기와는 두번째 인연.

동아대를 졸업하였으며 84년 한성고에 부임하였다.



고등부 우수선수상

강병삼
(한성고3년, 미들급 우승)

앞발 받아차기가 특기인 강병삼은 89년 중별대회 3위가 고등부에서의 유일한 전적이었다. 이번대회 미들급 34 : 1의 경쟁에서 금메달을 따 한성고 우승의 주역이 되었다.

『아직도 우리학교가 우승을 했다는 것이 실감이 안잡니다. 졸업하기전 모교에 우승기를 가져온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리라공고의 주의홍을 꺾은 그는 집안에서 1남4녀 중의 막내. 장차 대표선수와 대통령을 꿈꾸는 그에 대해 윤창욱 선생은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팀의 주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해낸다.』고 말했다.

장구락

(태권도 경기장 의무위원)



“태권도 경기에서 부상의 정도는 선수의 실력과 거의 관계가 없고 경량급보다는 중량급선수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심각한 부상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인제의과대학 부속 백병원에서 의무위원으로 대회에 파견되어 춘계종별과 1차 및 남녀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개인선수권 등을 지켜본 장구락 의사의 설명이다.

부상의 정도는 보통 가벼운 정도로 주로 보호장비로 보호되지 않는 노출부위 즉, 안면에서는 입술이 찢어지는 열상이 가장 많고 코피(비출혈), 고무바닥에 미끄러져 발바닥이 찢어지는 경우와 2·3번째 손가락사이(제2중수지골절)의 골절 이 대부분이다.

부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안면부위의 부상이 많아 보호구를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로 하지만 태권도가 기합을 넣어 힘을

“의사를 왜 적극 활용하지 않는가”의문

쏟는 운동이기 때문에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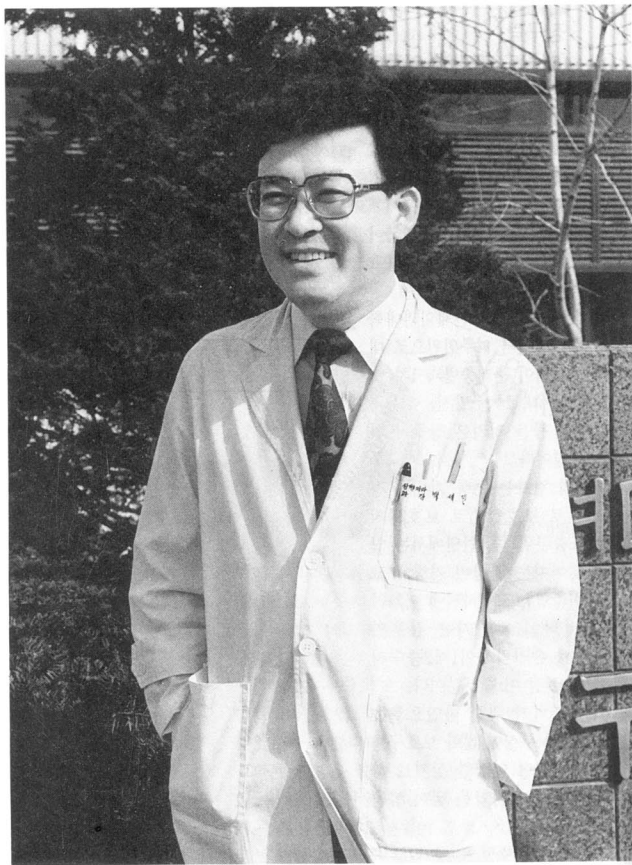
다만 부상의 정도는 가벼우나 의사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운동 선수들이라 지도자나 선수들이 웬만한 부상을 “그 정도도 못참느냐”는 식이라 부상을 방치하는 측면이라고 하는데 의사가 경기장에 나와 있는데 “의사를 왜 적극 활용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스러워 한다.

그는 특히 뼈가 골절되었을 경우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달려오지만 인대가 다치는 경우는 그 통증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냥 경기를 마칠 때까지 선수가 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인대는 다치자마자 바로 기브스를 하여 이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인내심으로 참아야 하는 것이 미덕인양 운동 선수에게 인식된 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했다.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해

백병원 성형외과 백세민박사



그로 인해 인생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백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 있는 백세민박사는 공인 6단의 태권도인이다.

부산에서 중학교 재학시절에 태권도계의 원로라 할 수 있는 황기사범이 운영하는 무덕관에서 이열친 사범 밑에서 태권도를 수련하였고 1961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옮겨와 태권도를 계속하던 곳이 지금의 대한태권도협회 홍종수 부회장이 운영하던 불광태권도장이었다. 그는 196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전까지 그곳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공인5단을 땀고 미국에서 6단으로 승단했다.

『그때는 학교에서 선후배간에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그것보다도 훨씬더 엄격해 하루라도 먼저 태권도를 수련한 선배에게는 수련을 마치면 세수대야에 씻을 물까지 갔다 드릴 정도로 엄격했으며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그때의 선배들이 무척 엄격했지만 인간적인 유대관계는 무척 좋았습니다.』라고 당시 수련도장의 분위기를 회고하는 백세민박사.

그것은 엄격한 도장 분위기에서 누가 태권도의 「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수련과정에서 예의도 복종도 인내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사회는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 등을 갖춘 사람을 특히 존경하는 풍토이지만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그 사람이 학벌이나 지위가 어떻든간에 상관없이 선배라는 의식, 그들에 복종할 줄 아는 마음과 한 분자가 나보다 나으면 존경할만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백박사는 부모와 형제 밖에 없는 데다 동생이 12살이나 아래여서 어릴 때는 외아들로서 집에서 그야말로 부모들이 왕대접하듯 했다는 것—이렇게 고생모르고 귀여움만 받고 자

란 그가 도장에 가면 얼음꺼서 물길러다 마루바닥을 청소하면서 성격의 변모를 가져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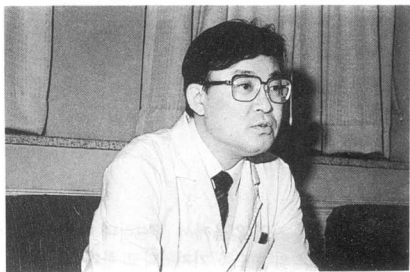
그가 태권도를 배우게 된 것은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도장으로 데리고 그자리에서 바로 입관해 멋모르고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태권도가 인식이 나뻤기 때문에 집에서 태권도를 못하게 해서 도복을 친구집에 맡기고 도장에 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대련을 마치면 실습한다고 골목을 다니기도 했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무척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다행히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학교에서 태권도를 장려하게 됨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태권도부에 들어가 태권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태권도를 하고 나선 싸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유단자라고 하면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 그것은 그때만 해도 태권도하는 사람이 드물어 유단자라고 하면 누가 감히 덤비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학 때는 한일친선 태권도 대회가 열려 선수로 출전한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보호구없이 태권도를 하던 때였고 일본의 가라테는 보호구를 입고 시험 하였기 때문에 보호구를 입는 경우와 입지않는 경기로 나누어서 실시했는데 그때 보호구를 벗고서 한경우는 모두 이겼고 보호구를 입었을 때는 몸이 어색하고 말을 안들어 모두다 패했다고 한다.

대학졸업후 미국에 유학 가게 되자 '무지무지한'고 생을 하면서 유학생활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고생을 견디게 한 것은 바로 태권도 수련할 때를 회상하며 "겨울에도 맨발로 도장을 걸레질 하면서 보냈는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생각을 가질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강인한 정신력의 배양으로 어떠한



고된 유학생할, 태권도의 강한 정신력으로 버텼어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태권도를 통해 배운 고생의 가장 값진 재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10년간 있으면서 쉬운 길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얻은 정신력 때문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미국에 유학갔을 때 월남전이 있던 당시라 매일 T, V를 통해 월남전이 가장 큰 뉴스거리였고 1주일에 한번꼴로 한국의 월남전에서의 용맹성을 특집으로 내보냈고 그용맹성의 원인을 바로 태권도라고 소개함으로써 미국 전역에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태권도를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갑자기 태권도 붐이 일어나 당시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도장을 설립 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월남전 전만해도 태권도 도장은 간판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 가라데 간판을 붙이고 태권도를 지도했는데 월남전 이후 태권도라고 고쳐 달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사람만 만나면 길가의 돌을 주어다 한번 깨보라고 하는 주문이 많아 한국인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당시 병원에서 야유회를 간직이 있는데 넓은 잔디밭에 모두 모여 앉자 사회자가 갑자기 태권도 시범이 있겠다며 벽돌 2개를 갖고와 그에게 벽돌을 깨보

라고 하여 식은 땀이 날 정도로 당황한적이 있다고 한다.

그 벽돌은 시멘트벽돌도 아니고 쇠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한 빨간벽돌이었는데 모두다 관심을 집중하며 시범을 기다려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것도 잔디위에다 놓고 깨라니... 시멘트바닥위만 되어도 좀 나았을 텐데 그 넓은 광장은 잔디로 덮여져 있었다.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었으면 받침대라도 준비하였을 텐데... 결국 너댓차례의 실패 끝에 온힘과 기를 합해 켤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도 깨지 않으면 안될 그 상황이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만든 것 같다고 한다.

학교 다닐 때 함께 태권도를 수련했던 동기들로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천류사범, 서울대 사회학과 의 남세진 교수, 신동규 사범 등이 있고 부산에는 많은 동기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들과는 어느 누구보다는 유대관계가 좋다고 한다.

사람구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바르게 고쳐 정상인들 처럼 살 수 있게 만드는 직업에 보람

현재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성형외과 의사이기도 한 그는 『성형외과라 하면 보통 코를 높혀 미인을 만든다든가 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런 경우는 약20%정도이고 대부분이 기형의 신체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라며 『사람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바르게 고쳐 정상인들처럼 살 수 있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자신의 직업을 만족해했다.

그는 태권도를 먼저 배운 선배로서 후배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정신력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하면 태권도 기술의 발전보다는 그로인해 인생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30년 넘게 일선 지도자로 후배양성

“나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아이들 돌보다 가고 싶다”

이영기 (완산중고 · 완산여상코치)



본받을 만한 코치상 보여줘

태권도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선 팀의 코치로 생활해온 사람이 누구일까?

현재 전북태권도협회 부회장이면서 전북완산중고와 완산여상팀을 지도하고 있는 이영기코치(52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다. 지난 6월 4일부터 9일까지 국기관에서 개최된 중고연맹회장기 타기대회에 완산중고와 완산여상 3개팀에서 35명의 선수를 대회에 출전시킨 이영기 코치는 설새없이 청·홍코너를 왔다 갔다하며 켜코보기에 바빴다.

『30년 넘게 코치로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아는데 코치로서 본받을 만한 분입니다.』고 중고연맹 대회관계자는 그를 평했다.

이영기 코치의 제자로 국가대표 출신은 권기문(서울지하철공사), 최상진(경희대), 함 준(현대자동차)이 있고 김양식(한체대), 송준호(대한체육과학대) 선수가 이에 버금가는 우수한 선수들이다.

이코치는, 스파르타식 훈련지도로 유명한데 새벽5시 30분에 기상해 완산칠봉산에 올라 6시부터 8시까지 체력훈련을 하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기술전반에 관해 지도하고 있다.

완산여상 태권도부 학생들은 이영기코치가 『너무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눈만 봐도 무섭다』고 한다. 그러나 『수련할 때 다치기라도 하면 직접 약국이 뛰어가 약까지 사다주실 정도로 자상하다』고 덧붙혔다. 『코치선생님께서는 늘 “물러서지 말라” “연습을 시합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손발차기도 소용없다. 인간자체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학생들은 이영기코치의 지도방침을 이렇게 대신했다.

이영기코치는 완산중학교에서만 15년을 지도해 왔고 4년전에 완산고에 태권도부를 창단하였다. 또한 완산여상이 1989년도에 창단되어 여자부 태권도부를 지도하게 되었는데 현재 10명의 선수가 있다. 이들중 9명이 올해 중고연맹대회에 출전, 4명이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실력을 발휘했다. 올해 다시 기림여중이 태권도부를 창단하면서 5명의 선수에게 태권도 수련을 지도하고 있다.

“운동을 좋아하다보니 이렇게 오랫동안 지도를 맡

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그나마 유지되는 전북의 태권도 선수들이 손이 끊길것 같아 계속하니 까 나이먹어 한다고 비웃는 사람도 많은것 같습니다.”고한다. 그러면서 그는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했지만 전라북도는 너무나 침체된 현실을 맞고 있다”고 걱정스러워 했다.

태권도부에 대한 학교에서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완산여상에서 약간의 예산이 책정되어 호구와 추리닝을 구입하고 있을 정도이다.

올해의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면도 피부로 느껴

더구나 전국대회 출전시 서울에 올르면 매대회시 여비만 200~300만원 가량이 드는데 이것을 자비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은 크다.

농촌에서 집안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렵게 여비 마련해 서울에 왔다가 저조한 실적을 갖고 내려가기에는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부모를 얼굴보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지방의 코치들은 무엇보다도 심판들의 공정한 심판을 강조한다. “뻔히 이기고도 지고 만 경기” 몇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는 듯 그는 지방코치들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대변하기라도 하듯 심판판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태권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도자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요.
제자가 한명이라도
더 잘 성장하면
보람이지요**

“그런데 올해의 경기장 분위기는 전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낙제점수였다면 70~80점은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심판판정이 태권도 경기장에 뿌리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오랜 코치생활을 통해 올해 협회



가 시행한 상임심판원 제도와 선수단 임원등록제도로 말미암아 경기장 풍토의 변모가 확실히 피부로 와닿는다고 했다.

이영기코치가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20살때 전북 종합체육관에서 사범으로 첫발을 내딛으면서였다. 태권도를 배운곳도 물론 그 도장에서이다. 대회에 출전한 것은 완산국민학교 팀을 이끌고 전국국교연맹회장기타기 개인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것인데 그때 서울의 명문팀이던 남대문 국민학교를 누르고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지방 태권도명문 국교로 이름을 떨친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도 오래된 사실이라 몇년도 출전인지도 기억에 없지만 다만 그것이 지도자로서 첫 출전이자 첫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영기코치의 이러한 면모는 전북에서 태권도를 키우는 지도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국가대표를 배출하면서 많은 일선 코치들의 귀감이 되었다.

또한 대학진학이 어려운 때에 우수한 선수배출로 대학에 진학시키면서 지방 태권도 명문으로 완산중고를 키워왔다.

『지들이 잘했으니가 대학에 들어갔겠지만, 촌놈들 뽑아주니 고마울 뿐입니다.』고 겸손해 하는 이영기코치. 그는 『나야 한 몸 희생해 태권도만 지도하면 되지만 새벽부터 나와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 정성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1등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하며 땀흘리고 있고 이들을 뒷바라지 하려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생각을 하면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

지방팀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있어야

『서울에서는 대부분 경기를 비디오로 찍어가 상대 선수들을 분석하고 기술을 향상 시키는 등 앞서가고

있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지방보다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대부분 서울에서 경기가 있어 많은 대회에 참가하지만 지방에서는 1년에 두세차례의 대회밖에는 올라올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는 그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인데 이번 중고연맹전의 경우 참가자를 팀별로 체급별 2명으로 제한시킨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방선수들이 인원면에서 적게 참가할 수 밖에 없는데 서울에서 무조건 다 참가신청을 하면 경기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는 데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해준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방코치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안타까운 것은 선수들이 서울에만 올라오면 기량의 반도 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르친 것, 그들이 연습한 것의 반만 발휘해도 우승할 수 있을 텐데 서울에 왔다는 것 만으로도, 전국대회라는 것 때문에 벌써 긴장감으로 위축되어 잘했던 다리도 제대로 펴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패기로 경기에 임하라고 강조해도 그것이 또한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한다.

현재 그는 6단이다. 그 나이의 태권도인이려면 8,9단은 족히되어 있는데 그는 이미 74년도에 중단한 이래 중단할 생각을 하지않고 있다. 『만단을 따면 뭐합니까. 태권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도자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요. 제자가 한명이라도 더 잘 성장하면 그것이 보람이지요.』라고한다.

학교의 지원없이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일선코치로서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땅이 좀 있어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선 학교지도자가 현실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코치들이 제일 불쌍하지요.』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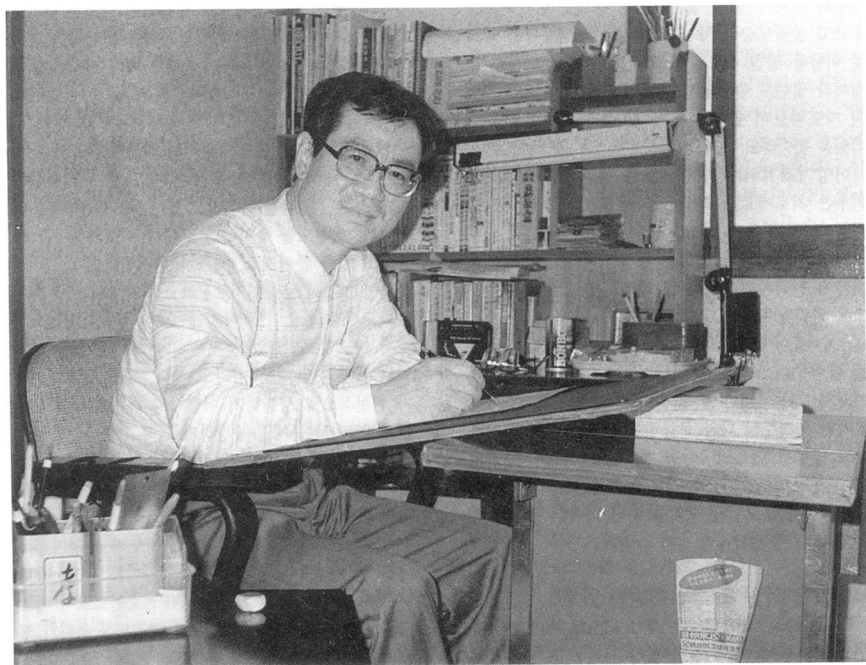
태권도인들 중 이영기코치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일선 지도자로 남아 있는 사람이 드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이영기코치는 언제까지 계속 지도자로 경기장에 나올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아이들 돌보다 가고 싶다.』며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를 사랑해 태권도인을 키우며 태권도를 하다가 생을 마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심신단련, 예를 배우는데는 태권도가 으뜸”

만화 『태권가족』의 저자 이향원



태권도지의 가장 사랑받는 페이지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1986년 3월에 “심신단련, 예를 배우는데는 태권도가 으뜸이니라”라며 제1편을 그리기 시작했던 『만화-태권가족』은 그동안 계간 태권도지의 가장 사랑받는 페이지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왔다.

태권가족이 인기를 얻어온 까닭은 태권소년인 철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예의와 인내와 극기, 애국심 등을 고취시키면서도 감동적으로 만화를 그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태권가족의 저자 이항원씨는 만4년간의 작업에 대해 『태권가족이 2페이지용 이라 분량은 적지만 태권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태권도가 격투기이기 때문에 잘못 묘사하면 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태권도의 수련과정에만 치우치면 내용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내용구성에 애를 먹는다고 토로한다.

제3회 우수어린이 만화작가상 수상

그는 태권도지외에도 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소년중앙」에 야구를 소재로한 『士父』를 연재하고 있고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소년동아」에 『금동아와 박순경』, 「만화왕국」에 『텔레파시』, 카톨릭재단에서 발간하는 「소년」에 『내가최고』 등을 연재하고 있는 인기만화가이다.

이항원씨는 지난 4월에 「소년중앙」에 연재하고 있는 『士父』로 YWCA에서 수여하는 제3회 우수어린이 만화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항원씨가 태권도를 소재로 만화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비공인3단의 태권도인이기 때문이다.

비공인 3단의 태권도인

고등학교 졸업반시절에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 계속해서 7년정도 배워 3단까지 뒀는데 당시 공인단중이 꼭필요한 일이 없어 취득하지 않고 미루다 현재 그는 비공인3단이 최중단이다.

『국민학교 4학년때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태권도가 격투기이기 때문에 잘못 묘사하면 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태권도의 수련과정에만 치우치면 내용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내용구성에 애먹어”

이야 국민학생들도 안경을 많이 쓰고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안경인 사람이 학교에서 손꼽을 정도로 작았지요. 안경인 아이들이 약질인 것처럼 보여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싫어서 뭔가 운동이라도 해서 강인하게 보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야 도장에 나갈 수 있었지요」

어린 나이에 도장을 갈 수 없었던 것은 당시만 해도 태권도장에는 주로 어른들, 최소한 중학교 이상은 되어 가서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어른들의 무도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가면 도장의 엄격한 분위기를 깰까고하여 도장의 사범이 나중에 커서 다시오라고 돌려보낼 정도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도장이었다고 들려준다.

하지만 지금의 도장이 유치부와 어린이들의 태권도장으로 변모한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태권도는 무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예절을 알게하고 극기를 배우게 하는 등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도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학교 졸업반때 처녀작 『의남매』출판

이항원씨는 태권도를 배우기 훨씬 이전이라 할 수 있는 국민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누구에게 만화 그리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만화그리는 것을 좋아해 노트의 남은 뒷부분은 항상 만화로 소비했다고 한다. 남의 만화를 보고 흉내를 내기도 하면서 잘그렸다고 싶으면 유명한 만화가에게 사사를 받기위해 만화를 그려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만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중학교 졸업반때



안경끼 아이들이
약질인것처럼 보여
아이들로 부터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싫어서 뭔가
운동이라도 해서
강인하게 보이고
싫어 태권도 시작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전봇대에 붙어있는 「만화가 모 집」이란 구인광고 덕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만화가를 모집한다는 곳으로 가서 그 만화 출판사 사장으로부 터 만화그리는 요령이나 이야기 구성방법 등에 대해 서 배우면서 한권의 만화책을 만든 것이 그가 첫번 째로 세상에 내놓은 『의남매』. 그의 처녀작 『의남 매』는 당시 6.25사변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전쟁 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만나 의남매지간이 되어 어려움을 헤치고 꽃꽂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만화책은 그의 서재에서 지금 찾을 수가 없다.

오랫동안 『의남매』는 기념작품으로 항상 서재를 장식하여왔는데 친구들이 와서 볼 때마다 처녀작이 다 그렇듯 유치하고 서툰 솜씨를 놀려대자 어느날인 가 화가나고 부끄럽기도 해서 찢어버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딸만 셋인 그는 “소질만 있다면 딸을 만화가로 키우고 싶다”고 한다. 그것은 남녀 차별이 전혀없는데 다 창작하는 일이라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일 이기 때문이란다. 안타깝게도 딸들이 만화는 좋아하 는데 소질은 없는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딸들이 만화 를 좋아하는만큼 「만화가인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인다.

스포츠나 동물을 소재로한 어린이용 만화

요즘은 만화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학교 어린 이에서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만화를 즐겨보는데 만화의 소재도 다양화되어 만화로 배우는 『산수』에

서부터 대학생들용 『자본주의, 공산주의』, 직장인의 『주식투자』용 만화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항원씨의 만화는 바로 어린이 만화라고 할 정도 로 어린이용 만화를 그려왔다. 얼마전에 요즘의 많 은 성인 독자들을 의식하고 한두번 성인만화를 시도 해보았으나 『어색하고 표현이 잘 안돼요』라며 더이 상 못 그려겠다고 한다.

어린이용 만화에 초점을 두다보니가 재미있게 읽 혀지게 하도록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있어 극적인 상 황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극적이고 효과를 높 이면서도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 단으로 이용되도록 하는데에는 무척 어려움이 많다 고 한다.

이항원씨가 그리고 있는 만화는 태권도를 비롯해 축구, 야구 등 스포츠를 소재로 하거나 주로 개를 등 장시키며 동물을 소재로 그리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 으로 우정과 사랑과 인간애를 그리며 재미와 함께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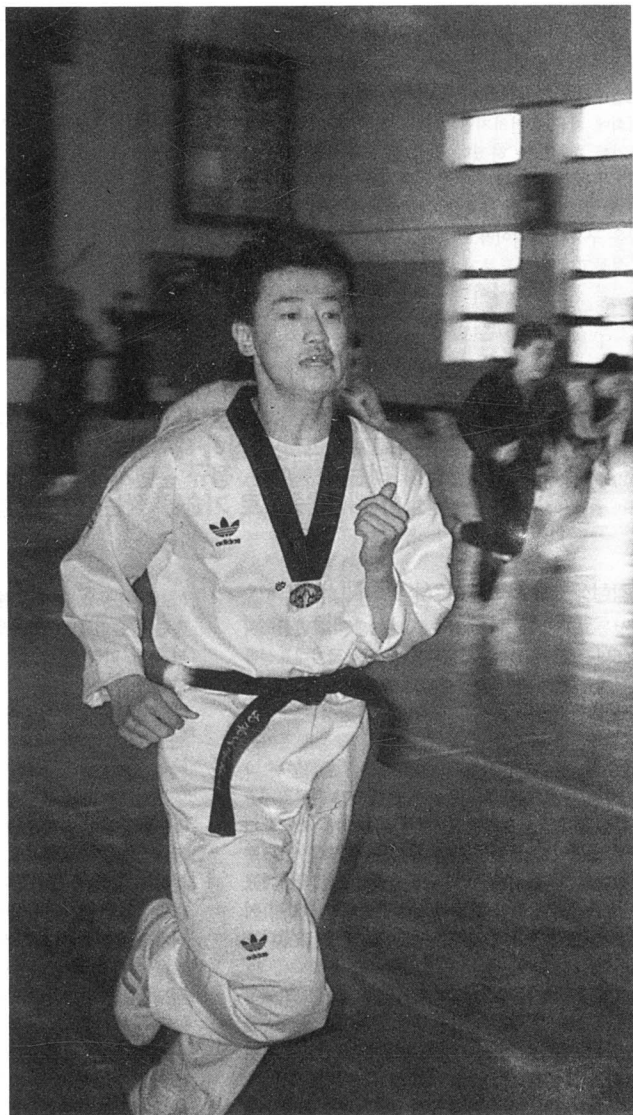
그가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태권도를 소재로 만화를 그릴 수 있을 뿐더러 야구도 수준급 이라고 한다. 만화가들의 야구 동호인들이 모여 야구 도 하곤 한다는데 예술인대회에 만화가팀 대표로 출 전해 우승한 경력도 갖고 있다.

소재를 찾기 위해 독서를 주로하고, 가끔 야구장도 찾는다 그는 앞으로 국기원에도 들러 직접 태권도 경기도 관람해 좋은 태권도 만화를 그려보겠다고 한 다.



국민운동의 국가대표

김인경 (성동고3)



성동고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국가대표

유일하게 고교생으로 국가대표가된 김인경선수.

그는 앞으로 9월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을 월드컵대회에 국제대회로는 처음 출전하게 된다. 『국제대회에 처음 출전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수련해 좋은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다』는 그는 노련미를 갖춘 선배선수들을 대표선발전에서 패기로 밀고나가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국제대회를 대비해 강하고 큰 동작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동고에 태권도부가 창단된 것은 7년전. 그동안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긴 했지만 국가대표가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생들과의 대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패기로 밀고 나가는 길뿐』이라는
그는 그저 열심히 해야한다고 말한다.
“열심히”라는 표현에는 정규 훈련시간 외에 남들 놀 때
열심히 개인운동으로 기술을 쌓는 것도 포함된다.**

김현성코치 「지도자로서의 보람」느끼

성동고코치로 김인경선수를 지도해온 김현성코치는 5년간 성동고팀을 지도해오는 동안 국가대표선발 문턱에서 번번히 좌절되어서인지 올해 국가대표 배출에 대한 기쁨이 크다 『국가대표로 확정되는 순간 그동안 쌓인 피로가 짙 풀려나가는듯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고 그때의 심정을 말하면서 다른 때는 경기가 끝나고 우승자가 나오게해도 경기를 마치고 선수단을 이끌고 갈 때면 이상하게 그렇게 허무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허무감을 완전히 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국가대표선발전에서 국가대표를 길러낸 코치들의 얼굴이 싱글병글해도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의 그 기쁨은 지도자로서의 보람이기도 했고 앞으로 있을 대학입학시에 한결 수월하게 진학시킬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는 든든한 전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인경선수는 우수한 기량, 우수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우승의 고지에서 좌절되는 불운을 맞았는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 같다』는 김현성코치.

이번 대회는 특히 작년의 불운을 만회시켜주기라도 하듯 김인경선수는 라이벌이자 3전3패의 기록을 갖고있는 서성교 선수와의 대전을 피할 수 있었던 점도 대회우승을 기대하게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종별대회 핀급1위, 대통령기 핀급1위, 경희대총장배1위를 차지했으나 우수선수선발전 결승전에서 서성교(한체대2년)에게 졌었다.

이번 최종전 때는 주로 서선수의 특기라 할 수 있는 원발돌려차기, 내려차기 등을 대비해 오른발 뒷차

기, 회축 등을 많이 수련하며 득점 찬스를 포착하는 훈련에 중점을 두었는데 서선수와와의 대전을 피하게 되자 별 어려움없이 국가대표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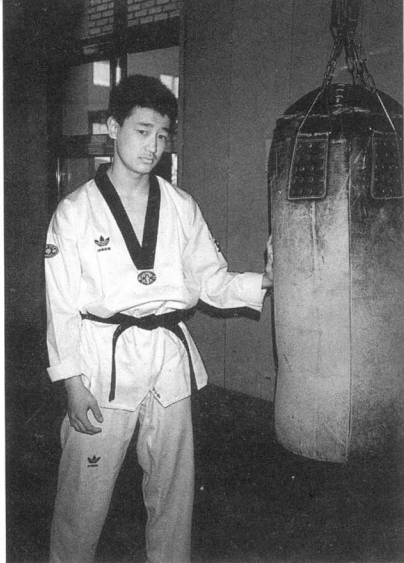
대학생들과의 대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패기로 밀고 나가는 길뿐』이라는 그는 그저 열심히 해야한다고 말한다.

“열심히”라는 표현에는 정규 훈련시간 외에 남들 놀 때 열심히 개인운동으로 기술을 쌓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김현성코치는 김인경선수가 특히 『득점력이 좋다』고 평가한다.

한경기당 평균 2점이상이라고 하는데 주특기는 돌려차기, 뒷차기이지만 시합에서는 특기에 의한 단조로운 기술발휘가 아니라 거의 모든 기술을 한번씩 시도할만큼 다양한 기술발휘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유연성 보강에 힘써야 할 것

또한 경기에 임할 때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수련이 계속되는한 최강자의 자



리를 지킬 것이라고 본다. 다만 유연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보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국가대표는 또 하나의 시작일 뿐

성동고체육교사이면서 태권도부 감독으로 재직중인 이진표선생은 김민경선수에게 『국가대표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연습해 앞으로 세계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선수도 대표선수로서의 책임과 위신 때문인지 『마음자세도 행동거지도 변모되는 것 같다』고 스스로 느낄 정도라는데...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만을 자신있게 할 뿐이다.

김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의 노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간이공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중고시절에 육상선수 출신이다.

『6살때 키도 작고 맞고다니니까 걱정이되서서 태권도를 시키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태권도를 시킨 것을 김선수는 지금 무척 감사해한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첫시합을 가졌는데 성남제2국교때 성남시대회 1등을 했었다고 한다. 국민학교때는 최국한사범으로부터, 한영중학교에 입학해서는 김진수감독에게, 성동고에 진학해서 계속 김현성코치에게 수련지도를 받으며 탄탄한 기본기와 기술을

익혀 드디어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된 것이다.

태권도 수련시 가장 힘든 것은 평소의 수련보다 갑자기 강도높은 훈련을 받는 때와 시합에 나가 졌을 때라고 한다.

고교졸업반인 그에게 대학진학의 어려움은 없다. 적어도 국가대표인 고교졸업반 학생은 그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를 각 학교에서 스카우트하려할 때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김선수는 대학에 진학해서도 계속 태권도를 수련함은 물론 이후에 외국에 나가 해외사범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신체조건은 좋으나 아직 실력은 한국에 미치지 못해 그들에게 기술지도로 완벽한 선수로 키워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회에서의 징크스라면 『햇빛이 쨍쨍할 때는 잘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격도 내성적인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고교생처럼 운동없이 쉬는 날엔 음악을 듣고 특히 팝송을 좋아하며 가요는 햇빛존의 『유리창엔 비』가 좋다고 한다.

김현성코치 존경, 정국현선수처럼 세계대회 챔피언 될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김현성코치를 들었는데 『훈련시에는 무섭게 지도하시지만 대화 할때는 친근감이 감정도』라는 것. 선수로서는 정국현지하철공사코치를 존경하는데 정선수처럼 꾸준한 수련으로 세계 4연패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편 성동고의 태권도부 32명 중 김선수의 겨루기 파트너인 최진철선수는 김선수 못지않게 신체조건이 (172cm 52kg) 좋을 뿐더러 기술이 좋아 내년도 국가대표급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데 그는 김선배와 함께 겨루기를 하니까 『기술이 향상된다』고 한다.

『인간성 좋고 남도 잘 도와주고 후배들에게 기술 지도를 잘해준다』고 김선수를 칭찬했는데 다만 『자신감 넘친 모습이 보기도 좋지만 그게 오히려 불안』 하기도 하다는데 앞으로 김선수는 후배의 이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소련에서온 박비탈리 · 최명철씨 최초로 국기원에서 수련하고 승단



모스크바시 스포츠 행정책임자인 스타코프씨와 한 국계 소련인 박비탈리씨(모스크바종합체육관장)와 최명철씨(러시아 공화국 쿠즈간주 무술협회회장)가 소련인들로서는 처음으로 국기원에서 태권도 지도를 받아 승단심사를 보았다.

한국계 소련인인 박비탈리씨와 최명철씨는 소련 WTF태권도 연맹 창립준비 위원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WTF정식발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와 이규형 사범과 고국환사범의 지도로 태권도 수련을 한 뒤 3단으로 승단하고 6월 22일 귀국했다.

박비탈리씨는 레닌그라드대학 체육대학출신으로 가라데 · 복싱 · 태권도 등을 지도하는 모스크바 종합 체육관관장이고 최명철씨는 레닌그라드대학 건축과 출신으로 건축기사로 일해오면서 유도, 가라데 등을 수련한 무술인으로 쿠즈간주 무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이 WTF태권도연맹 창립을 준비하게 된 것은 그동안 김운용 IOC위원이 소련 체육부 고위관리들과의 스포츠외교를 통해 태권도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소련내에



서는 1988년도부터 북한의 지원을 받는 ITF(국제태권도연맹)가 들어왔으나 소련인들과 접촉, ITF소련연맹을 발족시키면서도 한국계 교포들은 상대를 하려하지 않고 소련인들만 상대해왔기 때문에 한국계 무술인들이 이들과 맞서WTF창립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련에서는 유도와 가라데가 그동안 인기있는 스포츠였으나 84년도에 브레즈네프서기장이 가라데를 사회주의에 합당한 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라데를 스포츠종목으로 인정치 않게 되면서 가라데 등을 수련하던 무술인들이 쿡후나 우슈 등 타종목으로 바뀌 수련하게 되었고 88년도에 ITF가 들어오면서 대부분ITF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WTF태권도가 '88서울올림픽에서 시범경기로 치루어 짐으로써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92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시범경기로 채택되었고 '96년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이들이 국기원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동안 국기원 시범단이 소련에서의 시범과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쳐 ITF태권도인들이 WTF태권도로 전향함으로써 ITF태권도연맹이 분열, WTF 태권도연맹을 창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계 무술인들이 창립하고자 했던 WTF태권도 연맹 창립준비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바비탈리자와 최명철씨는 『우리가 창립하려했던 WTF태권도 연맹이 창설됨으로써 우리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태권도종주국에서 태권도를 배운 사범으로서 소련에 돌아가 태권도인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WTF창립 때문에 ITF계열과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들은 소련사람들을 ITF든 WTF든 별 상관을 하지 않는다면 『WTF태권도가 기술면에서 더 과학적이고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고 WTF태권도의 국제적인 스포츠로서의 면모 때문에 이번에 전향한것 같다』고 했다.

『소련에 돌아가면 태권도를 수련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소련인들은 영화나 책을 보고 가라데·우슈·쿡후 등을 많이 접하고 있고 직접 운동을 하는 무술인들이 많아 이들에게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면 태권도로 전향할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고 했다.

가라데 선수와 코치생활을 한바있는 이들은 가라데와 태권도, ITF태권도를 비교해 볼 때 가라데와는 발기술에서 차이가 나지만 태권도의 공격력은 가라데를 능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복싱의 경우 경기중 다치는 경우가 많아 소련에서는 복싱종목을 없앴는데 태권도는 보호구 등 보호장비가 갖추어져 다칠 염려가 없으며 과학적인 기술동작을 구사하고 있다고 했다.

귀국할 때는 태권도관계 책, 비디오테이프 등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겠다고 그들은 소련내에 한국인은 50만명 가량된다고 했다.

소련에 돌아가 태권도장에 한국기를 소련기와 나란히 걸여놓는다면 동포들에게 조국을 상기시키고 소련인들에겐 한국의 지위를 다시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같다며 매우 감회가 깊다고 했다.

한편 『한국인들은 소련에 대해 단편적으로밖에 모르는 것 같다』며 소련의 음악·발레·문학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만이 모두인 것처럼 알고 있으나 록음악도, 가요도, 현대무용도 아주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했다.

태권도를 통해 앞으로 한·소교류가 계속되길 바란다는 그들은 『소련에는 무술인들이 많아 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면 앞으로 태권도 챔피언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이에 대비할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 태권도 협회

김운용회장, 부산·
경남 협회방문

태권도 소식



김운용회장은 지난 3월6일과 7일 대전직할시, 광주직할시,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지부를 방문한데 이어 3월 28, 29일 양일간 부산과 경남협회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회장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협회 임직원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태권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전 태권도인이 합심단결해 태권도 발전에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하였다.

28일 경남협회는 간담회에서 회장에게 건의사항으로 지방심판의 중앙대회 참가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숙원사업인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을 위해 82년도 제16대 회장으로 현 이순달 회장이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5천만여원을 적립해 왔으며

대지 600평, 건평 300평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중에 있다고 밝히며, 시로부터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협조요청토록 회장에게 건의하였다.

29일 부산협회 간담회에서는, 점차 관원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고하고 강력한 홍보대책 수립을 건의하였다. 또 현행 도복의 비실용성을 들어 과거도복으로 환원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김회장은 부산·경남협회 방문을 통해 『그동안 태권도가 올림픽을 향한 외형적 발전에 치중,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로 발전해왔으나 앞으로는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어 태권도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로 동구 3개국 방문

김운용회장은 6월13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동구 3개국을 방문하였다.

10일간의 방문기간 중 김회장은 유고의 요비치대통령과 폴랜드의 야르젤스키대통령, 그리고 헝가리의 곤츠대통령과 만나 동구권과의 우호 협력 증진에 관해 협의하고 귀국하였다.

미국 스포츠아카데미서 명예박사학위 수상

김운용 대한태권도회장 겸 IOC 집행위원은 미국 스포츠아카데미가 선정한 90년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스포츠지도자로 아나타·데프란츠 미국 IOC위원과 함께 뽀혀 7월 21일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1990년도 월드컵 태권도대회 한국대표 선수단 임원 선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1990년도 월드컵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한국대표팀 임원이 선임되었다.

한국대표선수단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감독 : 예조해 (경북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남자팀코치 : 유수철 (리라공업학교 교사)

▲ 남자팀 트레이너 : 윤오남 (조선 대학교 코치)

▲ 여자팀코치 : 김영희 (서울지하철 공사 감독)

▲ 여자팀트레이너 : 윤준철 (부평고등기술학교 교사)

한국 대표선수는 남녀 국가대표체급별 1위자가 출전하게 된다.

상임심판원 64명 임명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 총 4,200여명의 심판원 중 자질이 뛰어난 전문 심판원 64명을 상임심판원으로 임명하고 4월 19일 오전 10시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상임심판원은 감독관 12명(7단 이상 1급 심판원 자격 소지자), 주부심 52명(2,3급 심판원 자격 소지자)로 구성됐다.

상임심판원제도는 태권도의 올림픽정식종목채택을 앞두고 투기종목에서 종종 발생하는 관정시비를 불식하고,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신 제도로서 본 협회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상임심판원은 매년 심판강습회와 보수교육 종료후 본인의 신청에 따라 협회에서 자격심사후 위촉한다. (상임심판원명단은 행사 기록에 게재)

질서대책부 위원 임명

경기장질서확립을 위해 '90년도 경기대회시 질서대책부위원 10명이 임명되었다.

질서대책위원은 경기대회시 경

기장질서확립과 소청의 심의(경기대회의 소청위원 겸임), 고등상별 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갖게되는 현장징계를 결의하게 된다.

● 질서대책부위원 명단

위원장 : 홍종수 (후회장)

부위원장 : 강원식 (전무이사)

위원 :

권경옥 (기술심의회 의장)

전재규 (기술심의회 부의장)

김용서 (기술심의회 부의장)

김경지 (기술심의회 부의장)

임춘길 (사무국장)

김봉기 (경기분과 위원장)

박현섭 (심판분과 위원장)

김대연 (상별분과 위원장)

인제대학부속 백병원 의사 3명 의무위원 위촉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시에 발생하는 각종 부상 등을 대비해 매 대회마다 전문의료진을 경기장에 배치, 선수보호 측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함에 따라 본회 후원병원으로 지정된 인제대학부속 백병원 소속의사 3명을 의무위원으로 위

태권도 소식

촉했다.

또한 인제대학부속백병원은 본회의 후원병원으로 지정되어 본회 경기대회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등의 의료진을 파견키로 함에 따라 지난 3월에 개최된 춘계특별선수권대회부터 의료진을 파견해 왔다.

본회의 홍중수부회장은 지난 3월 22일 의무위원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의무위원

백세민 : 성형외과과장 의학박사 · 인제대학교수

김병직 : 정형외과과장 의학박사 · 인제대학교수

장석호 : 일반외과과장 · 인제대학부교수

기술심의회규정, 상벌규정, 국가대표선수단 선발규정 개정 시행

3월 9일 기술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규정 개정안이 승인되어 3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기술심의회규정은 기술심의회 설치근거와 그 운영방법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술발전을 위한 각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였다.

특히 경기규칙의 개정으로 경기, 심판분과 위원회 규칙에 혼재되어 있는 경기규칙을 정비하였고 사회체육강화의 일환으로 신설된 생활체육분과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정립하였다.

상벌규정은 대한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체계를 정비하고 경기장 질서확립을 위한 현장 징계권을 특례조항으로 추가했다.

한편 국가대표선수단 선발규정은 종전의 리그전 선발방식의 취약점을 보완해 토너먼트전을 실시하기로 개정하였다.

이택명 협회연구분과위원장 체육부 장관표창



이택명 연구분과위원장이 1989년도 제70회전국체육대회 유공 표창자로 선정되어 체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택명위원장은 제70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질서대책부 임원으로서 경기장 질서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

이택명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정 태권도 사범으로 재직하고 있다.

'89세계선수권대회 결과보고서 발간

협회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잠실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 제9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및 제2회 여자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두터운 우정, 빼어난 기술, 고귀한 정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바 있는 세계선수권대회에는 59개국에서 69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결과보고서는 총7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있는데 1장은 대회배경, 2장 대회조직위원회, 3장 참가현황, 4장 경기결과, 5장 부서별 업무결과, 6장 각종물자 및 서식, 7

장 언론기관 주요보도 내용을 실었고 북쪽에는 경기력향상을 위한 제언, 대진표, 조직위원회 운영요원 명단을 실었다.

특히 대회결과보고서의 발간은 대회기간 중 작성된 경기운영 실행계획, 대회 팸플렛, 선수단 안내서 등과 함께 향후 국제대회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자료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제28회 체육주간 기념행사 전방땅굴견학



본회 임원 및 사무국직원은 지난 4월 28일, 제28회 체육주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방 땅굴을 견학했다.

일행은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9시에 집결해 판문점으로 향했는데 홍중수부회장, 강원식 전무이사는 제1사단장 집무실에서 사단장을 접견했다.

임직원들은 임진각을 거쳐 제1사단 멸공관 강당에서 영화를 관람한 뒤, 사병 식당에서 사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어 도라전망대에 올라가 망원경을 통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어 땅굴로 이동해 북한이 파놓은 땅굴을 들어가 보았고 판문점에 들어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염원을 되새겼다.

서울 특별시 협회

「서울 태권도회보」 창간호 발행

서울시 협회는 올해부터 편집본과를 신설하고 회보를 발간 하였다.

서울특별시 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시도협회로서는 처음으로 발간된 「서울 태권도회보」는 서울시 태권도인의 대화의 장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종 소식을 담아 정보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제10회 서울시 교육감기대회

제10회 서울 특별시 교육감기타기 초중고단체대항 및 개인 선수권대회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612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단체별 종합우승은 국교부 거여국민학교, 중등부 한영중학교, 고등부 성동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제10회 서울시 초중고 개인 선수권대회 겸 제17회 전국 체전 고등부 1차 선발대회

5월 18일과 19일 이틀간 국기원에서 제10회 서울시 초중고 개인 선수권대회 겸 제17회 전국체전 고등부 1차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체급별 우승자를 선발했다.

제7회 소년 체육대회 개최

5월 29일과 30일 국기원에서 소년체육대회를 개최 하였다.

각 교육구청별로 우수선수들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동부 교육

구청이 우승, 강동교육구청이 준우승, 중부교육구청이 3위를 차지했다.

부산직할시 협회

심판보수교육 및 심판강습회 개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심판원들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심판원 양성을 위하여 심판보수교육 및 심판강습회를 구덕운동장 훈련장에서 개최 하였다. 교육에 앞서 중앙협회 강원식 전무이사는 특강에서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모든 병폐와 부정을 버리고 새로 개정된 경기규칙에 따라 양심적이고 정직한 자세를 생활화 하자고 당부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2급 2명, 3급 78명이 수강하여 개정된 경기규칙과 심판실기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며 보수교육에는 42명이 참가하였다.

종별태권도 대회 개최

부산직할시 종별태권도 대회가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구덕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최용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 대회는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부산의 태권나도 발전과 향토 부산체육의 역군이 될 선수를 많이 육성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우리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연구개발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는 이 시대

태권도 소식

가 우리 태권도인에게 부여한 사명을 잘인식하여 태권도의 발전은 물론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대회 중 국민학교부에서는 성북교교가 3명의 우승자를 내어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중등부 또한 11체급 중 영남중학교가 거의 전체급을 석권하여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8체급으로 구분된 고등부에서도 동천고등학교가 5체급을 휩쓸어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환호의 박수를 받았으며 일반부에서도 서로의 명예를 걸고 붙들리는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여성부에서도 저마다 각체급의 열띤 응원속에서 유감 없는 실력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역력하였으나 미들급과 해비급의 선수가 참가치않아 앞으로 여성태권도 선수발굴의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

부산 직할시 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 교육위원회주최, 부산직할시 태권도 협회 주관으로 교육위원회 관계자와 많은 관중과 응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성대히 개최 되었다. 이번 대회는 각 교육구청별로 예선전을 치루고 1개 교육구청에서 한체급 2명씩을 선발하여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 열띤 응원 속에 저마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만족스럽게 대회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경기에서 국민학교부는 시범경기로 손색없는 실력을 발휘하여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어린 꿈나무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태권도 기량을 연마하여 앞으로 태권도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이번 경기에서 서부 교육구청이 714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동부교육구청이 406점으로 2위 남부교육구청 3위 동래교육구청이 4위를 차지했다.

제2회 승품·단 심사대회

90년도 제2회 공인승품·단 심사사가 2천여명의 응심자가 참가한 가운데 구덕실내 체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최용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응심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불합격자가 없이 전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4-5단 응심자들의 논술고사는 경기장 마루 바닥에서 치루어져 인내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한편 심사대회 후 임원에 대한 임명장수여식에서 최용수회장은 각 분과 위원장 및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부산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윤성노 편집위원〉

대구 직할시협회

제25회 대통령기타기 전국단대항대회 개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실내체육관에서 대통령기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에 체급별 토너먼트, 단체전 복합경기 방식으로 거행된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57개팀, 대학부 15개팀, 일반부 15개팀 등 총 87개팀에서 56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2차 승품단 심사대회, 1492명 승단

4월 27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제2차 심사대회를 개최하고 1492명을 합격시켰다.

품단별로는 1품 832명, 2품 275명, 3품 52명, 1단 169명, 2단 90명, 3단 47명, 4단 19명, 5단 8명 등이다.

인천직할시협회



인천태권도협회는 춘계 개인 종별선수권대회를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새로운 신인선수들을 탄생시켰다.

이날 경기장에는 인천시 체육회 이달성이사, 이성만 경기력향상위원, 교육위원회의 안봉균장학관이 참석하였으며 한재수 인천태권도협회장이하 협회임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대회에는 중등부 11체급, 국민부, 여자부, 고등부, 일반부는 8체급으로 총 472명이 참가하여 각부 체급별 토너먼트식 개인전으로 치루어졌으며 선수들은 저마다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금번 대회에서 두드러진 것은 심판들의 적극성과 자체보수교육을 통한 정확한 체급과 판정으로 정직한 심판원이 되고자 노력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타의 귀감이 되었으며 각팀 코치들도 선수들의 선전을 격려해주는 모습이 눈에 쉽게 띄었으며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는 일 등이 사라져 앞으로는 진정한 무도스포츠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경기에 들어가기전 한재수회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 인천의 태권도인은 이제부터라는 마음과 자세로서, 수련과 대회를 통하여 성숙하고 알찬 실력을 배양하며 평소에 닦은 실력을 심본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와 인천 태권도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의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은 국교부에 박희철(상정국민학교), 중등부 이정훈(제물포중학교), 고등부 김재덕(광성고등학교), 일반부 배상오(청천체육관), 여자부 김미년(서인천고등학교)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이일구 편집위원〉

광주직할시 협회

소년체육대회 개최

5월 30일과 31일 광주실내체육

관에서 개최된 소년체육대회에는 총 239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초등부 우승자를 보면 편급 이현호(서산국) 플라이급 황성준(우성국), 밴텀급 최윤수(중앙국), 페더급 나승영(백운국), 라이트급 강무희(백운중), 웰터급 전한권(중흥국), 미들급 박도영(상무국) 헤비급 이상학(상무국)이 차지했다.

중등부 우승자는 편급 채익기(북성중), 플라이급 김수연(체육중), 밴텀급 김철민(체육중), 페더급 김재중(북성중), 라이트급 조성현(용봉중), L-웰터급 박진영(북성중), 웰터급 정남철(상무중), L-미들급 문지훈(북성중), 미들급 김용주(체육중), L-헤비급 윤병석(북성중), 헤비급 정기봉(송의중)이 각각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승품 및 승단 심사대회개최

4월 8일 광주실내체육관에서 승품 및 승단 심사를 실시했다.

품단별 합격자는 1품 348명, 2품 102명, 3품 26명, 1단 78명, 2단 52명, 3단 37명, 4단 12명, 5단 2명 등 총 657명이다.

대전직할시협회

소년체육대회개최

5월 26일 육군군악대의 광파르에 맞추어 시작된 소년체육대회가 이틀간 대전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제2회 대전직할시 소년체육대

태권도 소식

회 정규종목으로 채택되어 국민학교부, 중등부경기로 치루었는데 200여명의 새싹들이 지역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참가했다.

한용석 대전직할시 태권도 협회장은 시종 일관 경기장을 지키면서 "금번의 출전 선수들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기술이 발전 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한회장장은 여고부가 없어 우수 선수의 육성이 어렵다는 이진수 임원장의 현장 보고를 받고 대전 D 여고에 창단을 서둘도록 노력해 보라고 했다.

아울러 동구청 선수단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특채 되는 문제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금번 소년체육대회에는 심판진이 특별교육 및 개정된 경기규정을 사전 교육하는 등 집행부의 특별한 배려로 역대 대회 이래 가장 모범적인 대회였다고 지도사범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각 출전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들이 직접 경기장에 참관하여 지도사범의 사기를 높여주는데 기여한바 컸다.

이번 대회에서 소년 태권도 3층사가족이 탄생하여 주위의 눈길을 끌었는데 화제의 주인공은 차시우 선수의 가족으로 동생진우, 여동생진희 어린이가 대전 국기체육관(판장 이형진5단)에서 수련하여 모두 결승에 진출, 진우(오정중) 선수가 금메달 진희(성남국교)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기도협회

학도애향대 체육대회

시군별로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학도애향대 체육대회가 5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안양중앙국민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중등부는 1진에 18개시군, 2진에 15개 시군이 참가해 성남시가 우승을 차지했고 6개시군이 참가한 고등부에서는 성남시가 우승을 차지했다.

심사대회, 1644명 승품단

경기도협회는 5월 13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품 · 단별로 보면 1품이 810명, 2품이 295명, 3품 50명 1단 323명, 2단 83명, 3단 55명, 4단 23명, 5단 5명 등 총 1644명이 승단했다.

광명상고, 태권도부 창단

광명상업고등학교가 여자 태권도부를 창단하여 5월 30일 학교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창단식을 가졌다.

태권도부 부장에는 체육주임 안선열 교사, 감독에는 신정숙교사, 코치는 이재원사범이 선임되었고 태권도부 창단멤버로는 국가대표 플라이급 1위자인 진용순선수를 비롯하여 국가대표 핀급 3위자인 권은주선수, 89년도 국가대표선수로 세계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 김지향선수와 전국대회 입상성적을 가지고 있는 조화임, 조상숙, 홍지선 선수 등 모두 6명이다.

이처럼 여자 고등부 중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대거 광명상업고등학교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광명상업고등학교

제1회 한국 (대전직할시협회) · 인도네시아 친선경기

대전직할시 태권도협회(회장 한용석)가 석유와 원목, 유인원의 발상지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도네시아」에 한국태권도의 열을 심어주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대전직할시 태권도협회와 인도네시아 「시말랑」시 태권도협회의와 자매결연으로 이루어진 제1회 한국-인도네시아태권도경기는 태권도 중추국인 한국태권도의 진수를 「인도네시아」에 널리 보여준 알찬대회였다.

8천석규모의 「자바탕하」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인도네시아태권도 친선경기는 4월 22일에 시작, 입주의 여지없이 폭발적인 관중들이 끝날 때까지 진지하게 관전, 한국의 썰렁한 관중석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속에 태권도에 대한 열기를 보여주었다고 이진수 한국팀 감독은 힘주어 말했다.

98년 「아시안게임」을 추진중인 「인도네시아」는 한-인도네시아 체육교류협정 체결을 앞두고 열린 이번 태권도친선교환경기는 스포츠투를 통한 민간외교활동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73년 우리나라와 수교, 현재 약 3천여명의 한국인들이 활약하고 최근들어 국내 중소

기업과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서 이번 친선교환경기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현지인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고 귀국 했다고 장태운 지도사범은 전해왔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실력자로 올림픽 조직위원장과 태권도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스웬오」씨는 이번 태권도선수단에 몸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위 출전했던 임원, 선수들의 고마움의 청송이 자자하다.

한용석 대전직할시 태권도협회장은 「이번 대회가 한국태권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물론, 교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간의 긴밀한 유대를 위해 이대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한-인도네시아태권도친선경기는 한용석협회장이 경비를 지원해 정기교환경기를 추진함으로써 지방 태권도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줬는가 하면 충남과의 분리로 인해 다소 침체된 대전지역 태권도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오노균편집위원〉

는 여자부 최강의 자리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광명상업고등학교는 1979년 11월에 안서상업고등학교로 설립인가되어 개교한 이래 1985년 3월에 안서중, 상업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가 1988년 광명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극기와 자율』을 교훈으로 하고 있는 광명상업고등학교는 태권도부 외에도 육상부를 키우고 있는데 육상부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승자를 내는 등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이는 특히 광명상업고등학교 신옥균 교장의 격려와 함께 체육진흥후원회(회장 이종은)의 뒷받침이 그동안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태권도 관계자들은 앞으로 광명상업고등학교의 활약이 여자태권도 발전의 전환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협회

제13회 회장기타기대회 검 제17회 전국 체육대회 1차선발대회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횡성고등학교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강원중학교,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관동대학교, 속초시(설악케이블카)가 각각 부별 우승을 차지하였다.

제2회 어린이태권왕겨루기대회

5월 26일과 27일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어린이태권왕겨루기



태권도 소식

대회에는 52개 국민학교에서 총 395명이 출전하여 태권소년의 기개를 펼쳐 저학년에서는 최승용(홍천국민학교)어린이가, 고학년에서는 연호진(근화국민학교)어린이가, 여자부에서는 임정희(마현국민학교)어린이가 각각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한 지도상은 홍순태(홍천국민학교), 이주복(근화국민학교), 사정옥(마현국민학교)씨가 받았다.

충청북도협회

심판보수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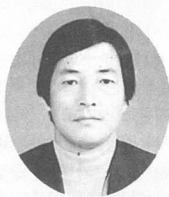
제71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올해 새로 개정된 태권도 경기규칙을 심판원 및 지도사법들에게 인식시키고 심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차 (4월 8일 충북협회, 5월 13일 제천체육관)에 걸쳐 46명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제14회 충북국민학교 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 개최

4월 29일 청주 한벌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자유겨루기 및 품새 겨루기에 총 18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종합우승의 영광은 청주한벌국민학교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서원

'90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우수도장상 수상 강원도 성무체육관



(관장 박동선)

성무체육관의 박동선관장은 원호 대상자로서 1970년 원주시 소재 원주체육관에서 처음으로 사범생활을 하던 중 1978년도에 무도경관으로 특채되면서 횡성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태권도 도장 설립을 항상 염두에 두다가 조그마한 체육관을 개관하게 되어 적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군, 경, 원호자녀들에게는

무료로 지도하는가 하면 근무시간 외에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태권도 수련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태권도 보급을 위하여 횡성읍에 체육관을 직접 건축하고 강원도 협회 횡성군 지부에 전무이사직을 맡으며 강원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과 열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 90년도 제13회 회장기타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수련생들이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타시군보다 좋은 전적을 거두고 선수 및 임원들에게 숭선수범 협조하는 가운데 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현재 체육관 수련생이 15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이 참된 태권도인으로서 성장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최찬영 편집위원〉

국민학교, 3위는 주성국민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제29회 도민체육대회 및 제19회 소년체육대회 개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청주중학교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 가을에 제71회 전국체전을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도민체전과 소년체전을 겸해서 충주시가 주축이 되어 5개 지역에서 각종 경기가 분산 개최되었다. 태권도는 청주체육관에서 3일간 개최되었는데 소년체전은 1위 청주시, 2위 체천시, 3위 충주시가 차지하였고 도민체전은 1위 청원군, 2위 청주시, 3위 옥천군·진천군이 각각 차지했다.

〈박한규 편집위원〉

충청남도협회

심판강습회 및 보수교육 실시

충청남도협회에서는 부족한 심판원을 확보하고 심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개정된 규칙을 보급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천학생체육관에서 심판강습회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심판강습회수료 후 실시된 3급 심판자격 시험에서는 38명이 합격, 자격증을 획득했다.

승품단심사 대회 개최

3월 18일 대천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승품단심사대회에서 충

90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로 보면 1품 449명, 2품 70명, 3품 9명, 1단 230명, 2단 90명, 3단 42명, 4단 11명, 5단 5명이다.

전라북도협회

제10회 교육감배선수권대회 개최

국교부 23개팀, 중등부 25개팀, 고등부 17팀에서 총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에서는 최초로 여자심판원으로 감미선사범이 등장했으며, 경기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부 및 심판부 47명과 각팀 코치들에게 임원카드를 발급하여 패용도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은 전북체육고의 김경진(고등부 헤비급 우승)선수가 차지했으며 단채우승은 국교부가 고창청송국민학교, 중등부가 군산중앙중학교, 고등부가 전북체육고등학교, 여자부가 기린여자중학교, 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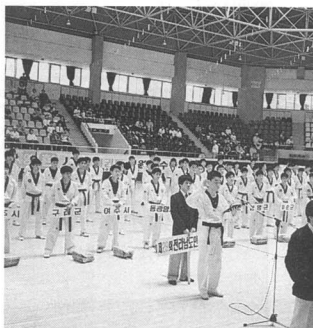
심판보수교육 및 심판교육(2, 3급) 실시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완산중고 강당에서 심판보수교육과 2, 3급 심판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심판보수교육에는 44명, 심판교육에는 87명이 참가했다.

〈김재선편집위원〉

전라남도협회

제29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화합과 질서 그리고 번영을 다짐하는 전남인의 대제전 제2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가 4월 10일 여수에서 태권도외 13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2일까지 3일동안 열렸다.

태권도는 여천시 홍국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루었는데 여주시가 종합우승, 승주군이 2위, 목포시가 3위를 차지했다.

소년체전 겸 제15회 학도종합체전개최

5월 24일부터 항도 목포에서 벌어진 소년체전 겸 제15회 학도종합체전에서 목포시가 종합우승을 거둔 가운데 26일 폐막됐다.

태권도는 담양공고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루었는데 소년체전에서는 목포시가 1위를 차지했고, 제15회학도종합체육대회에는 여주시가 우승을 차지했다.

〈김현수편집위원〉

태권도 소식

경상북도협회

제28회 도민체육대회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경북시군에서 총 468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시부에서는 영천시가 우승, 경주시가 준우승, 구미시가 3위를 차지했고 군부에서는 의성군이 우승, 영천군이 준우승, 칠곡군이 3위를 차지했다.

1/4분기 승단심사 개최 2329명 승단

3월 29일 경북 실내체육관에서 1/4분기 승품 및 승단 실기검사를 실시했다.

합격자는 총 2329명으로 1품 1085명, 2품 386명, 3품 60명, 1단 428명, 2단 242명, 3단 103명, 4단 18명, 5단 7명이다.

경북태권도협회 신용우 편집 위원 임명

경북태권도협회는 전임 윤종욱 편집위원 후임으로 신용우관장을 임명했다.

신임 신용우 편집위원은 현재 안계 제일도장 관장으로서 경북 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경상남도협회

제95회 승품단 심사대회 2037명승단

지난 3월 30일 마산실내체육관

에서 제95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였다.

심사대회에서는 총 2037명의 합격했는데 품단별로 살펴보면 1품 996명, 2품 314명, 3품 67명, 1단 378명, 2단 173명, 3단 83명, 4단 23명, 5단 3명이다.

제주도협회

제25회 전도 태권도 대회

도지사기·교육감기·교육대학장기 타기 제25회 전도 태권도 대회가 4월 25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대회는 제71회 전국체전 제주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치르어 족으므로 수준높은 기량의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대회 열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여자가 부가 추가되어 앞으로 제주여성 태권도의 발전을 기대해 보게 되었다.

중등부 단체전에서는 남주중(서귀포시)이 대회 5연패를 달성, 태권도 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남주중은 이번 대회에서 11체급 중 6체급을 석권,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본 대회에서 발군의 기량으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송창훈선수는(오현고)제주 태권도의 유망주로서 빛차기, 얼굴돌려차기가 주특기로 전국종별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바 있다.

시상식에서는 서귀중앙국민학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가 각각 부별 우승을 차지했다.

경남태권도협회 유럽5개국 순회 경기

경남 태권도협회 임원과 선수 일행은 서독 슈트트가르트의 박수 남사범의 초청으로 4월 24일부터 5월15일까지 23일간 유럽5개국(서독, 벨기에,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순회경기를 가졌다.

선수단은 김익곤 단장을 비롯하여 감독에 강진홍, 심판에 문석희, 코치에 김영국씨가 맡았고, 선수에는 경상대의 장종원 외 7명과 진주실전 김윤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선수단은 첫번째 순회국인 독일에서 대표팀과 첫시합에 들어가 6:3의 경기를 치루었다. 서독대표팀은 예상보다는 기량면에서 뒤떨어졌지만 좋은 실력이었고 관중들의 매너도 훌륭하여 우리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두번째 순회국인 영국에서는 돈 웨스트시의 돔체육관에서 시범과 경기를 가져 6:2로 승리했지만 관중들은 훌륭한 관전매너로 시종일관 공정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또한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는 시범과 경기내용을 녹화방송했다. 캠브리지시에서는 150여명의



태권도인이 모인 가운데 경기기술 강습을 성황리에 마쳤다.

덴마크에서의 경기는 유럽선수권 종합2위를 했던 대표팀답게 중량급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어 우리와 거의 대등한 실력을 펼쳤다. 또한 덴마크 국영방송으로 경기와 시범이 중계되었고 천여명의 관중들의 호응도 대단하였다.

벨기에에서는 웰렌의 디브로큰 홀에서 열린 경기에서 벨기에 국영방송국의 대대적인 홍보 속에 체육관을 가득 채운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범과 경기가 치루어져 7:2로 승리를 거두었다.

오스트리아의 티롤에서의 경기에서는 유럽선수권자가 3명이나 있는 대표팀과 경기를 펼쳐 중주국으로서의 위신을 세웠다. 오스

트리아 국영방송 티롤지국에서는 우리 선수단의 시범경기를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마지막 경기는 독일 슈트트가르트시 대표팀과 가졌는데 총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좋은 경기를 펼쳐보였다.

5개국 순회경기에 참가했던 김영국코치는 『방문국에서의 TV생중계는 우리에게 태권도중주국으로서의 우월감과 함께 국력신장을 느낄 수 있게 했고, 이렇게 태권도가 인정받을 수 있기까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현지 사범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며 『우리가 더 열심히 태권도 보급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소년체육대회개최

자라는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큰잔치 '90년도 제주도 소년체육대회가 5월10일 오전10시 메인스타디움인 제주 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밝은마음, 힘찬나래, 빛나는

내일」을 대회표어로 내걸고 시도단위로의 개최 2년째를 맞이한 '90년 소년체전의 식전 공개 행사에서 제주오현중학교 6백10명이 출연, 태권도 시범을(지도: 최철영체육관장) 선보여 많은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특히 태권도에서 소년체전 출신 선수중 최연소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 화제가 되었는데 태권도 편급에 출전한 이창훈선수(8세 서귀중앙고 3년)는 이번대회 1천6백30명중 최연소로 이선수는 지난 제25회 전도 태권도대회에서 우승한바 있어 올해 2관왕을 차지한 태권도 꿈나무이기도 하다.

시군 대항전으로 벌어진 태권도는 서귀포시 교육청이 국민학교 8

태권도 소식

체급 중 7체급, 중학교 11체급 중 10체급을 석권, 태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단체시상식에서는 서귀포시가 초등부와 중등부 우승을 휩쓸었다.

제24회 도민체육대회

「군센체력 알찬단결 빛나는 전진」을 표어로 내걸로 제주도민의 화합과 제주체육의 중흥을 다지는 제24회 도민체육대회가 5월 21일 상오10시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화려하게 개막되었다. 21일과 22일 양일간 주경기장과 16개보조 경기장에서 펼쳐진 도민체전 태권도 시합은 제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고등부는 남주고, 일반부는 제주대학교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제1기 심판보수교육

4월 22일 제주도태권도협회에서 심판보수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제주에서 30명, 서귀포에서 27명 등 총 57명이 참가했다.

(정한수편집위원)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제2회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남녀 종합 우승

4월 5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산탄데에서 개최된 제2회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했다.

총26개국이 참가한 이 대회는 FISU(국제대학스포츠 연맹)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남자부는 급6, 은2개를 여대부는 급4, 은3, 동1개를 차지했다.

한국선수단은 단장에 김동석 대학연맹회장 겸 경원대학교총장, 남대부감독에 노희덕 서울대학교수, 코치에 최영렬 경희대학교수·트레이너에 이인재 성신여대교수, 여대부감독에 이정길 대학연맹부회장 겸 (주) 암정 엔지니어링 대표, 코치에 안용규 대한체육과학대학 교수가 파견되었다.

한국 중고태권도연맹

제17회 한국 중고태권도 연맹회장기타기 대회개최

제17회 중고 연맹회장기대회가 6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국기원에서 총 1301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학교별로는 총160개교에서 참가했는데 남중부는 동성중, 여중부는 공릉중, 남고부는 서울체고, 여고부는 문성여상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

제11회 어린이 태권왕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대회개최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과 서울남산청년회의소 주최로 5월 12일과 13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1회 어린이 태권왕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에서 서

울 금천국민학교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참가현황을 보면 전국의 75개 학교에서 남자거루기 부문에 383명, 여자거루기부문에 44명, 품새부문에 425명 등 총 852명이 참가했다.

한편 준우승은 서울쌍문국민학교, 3위는 충북 서원국민학교, 장려상은 서울광희 국민학교와 경기 서릉 국민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4명의 이사 보선

4월 17일 국민학교연맹은 4명의 임원을 보선, 대한 태권도협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보선된 임원으로는 이규형 미동국교사범, 이종찬 국회경비대교관, 최재무 신도립국교사범, 정찬진 개포국교사범이 이사로 임명되었다.

국기원

3급 사회체육지도자교육 7월 이후 실시예정

국기원태권도지도자연수원이 체육부로부터 사회체육지도자연수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체육부세부교육내용이 7월이후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 3급 사회체육지도자교육이 7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3급 사회체육지도자교육의 수강자격은 고졸이상자로서 입교일을 기준으로 만20세 이상자, 4단 승단일로부터 만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11기 2급태권도 지도자교육 47명 수료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은 4월 9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제11기 2급 지도자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2급경기지도자 연수과정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원에서 매년2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교육으로 실시된 제11기 교육에는 총52명이 수강, 5명이 탈락하고 47명이 수료했다.

5월 19일 국기원에서 실시된 수료식에서는 여성으로서서는 처음으로 이은영 (경희대 교육대학원)씨가 체육부장관상, 김낙중 씨가 대한체육회장상, 조남혁, 이지성씨가 연수원장상(우등상), 김무인, 최점현씨가 연수원장상(공로상)을 받았다.

1차고단자 (6.7.8.9단) 심사대회 개최

국기원은 90년도 1차 고단자(6.7.8.9단)승단시험을 3월 10일 시행, 18명의 고단자를 배출했다.

총21명이 응심한 가운데 3명이 실기에 불합격하고 18명이 합격되었는데 6단은 10명, 7단은 7명, 8단은 1명이 합격되었다.

세계태권도연맹

제10회 세계선수권 및 제3회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그리스에서 개최

세계연맹 회원국 및 집행위원 서민투표에 의해 제10회 및 제3회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가 그리스로 결정되었다.

세계연맹은 1989년 10월 7일에 개최된 제9회 세계연맹총회의 결정에 따라 유치 신청국인 그리스와 브라질에 질의서를 발송, 대회유치에 관련한 답변을 받아 각국 회원국에 서민투표용지를 발송한 바 있다.

투표결과 29:14로 그리스가 유치국으로 결정되어, 1991년도에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소련·불가리아·헝가리에 시범단 파견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의 보급추진 및 공산권과의 스포츠교류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소련·불가리아·헝가리 등 동구공산권 3개국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했다.

이계광단장(대한태권도협회 감사)을 위시해 국기원 시범단으로 구성된 이들 시범단은 지난 5월 8일 출국해 21일 까지 3개국을 순회하며 태권도의 각종 품새 및 우수성을 선보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태권도복 개량 검토중

세계태권도연맹은 5월 15일 국기원 강의실에서 개량도복 평가회를 가졌다.

태권도 소식

김운용회장을 비롯하여 연맹,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주요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평가회에는 3종의 개량도복을 선보였다.

연맹은 도복의 입고 벗는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기능적인 도복으로 개량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한 시안은, 현재 도복의 앞을 '벨크로(일명 찍찍이)'로 개폐할 수 있는 모양과, 전체모양을 약간 변형한 수련복,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경기복 등 3종이다.

참석한 임원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한 연맹은 개량도복에 대해 계속 검토 중에 있다.

기 타

제71회 전국체전 대학부 참가요강 변경

대한 체육회는 금년 10월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71회 전국체육대회부터 대학부 선수들에 한해, 소속시도에 한하지 않고 본적지 또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참가를 허용키로 하였다.

체육회는 89년말 전국체전개선 평가회에서, 일반부와 대학부 선수층이 얇은 일부 시도로 부터 대학·일반부의 통폐합 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하였으나, 통폐합보다는 대학선수들의 연고지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지방팀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89년 70회 전국체전개선은 한국체육대학교와 대한체육과 학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선수들은 선수 등록이 되어있는 시도로

만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대학선수들이 소속시도뿐 아니라 연고지 참가가 가능케 되어, 대학부 경기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코치협의회』발족

『전국코치상조회』(회장 주진규)는 제25회 대통령기 대회 기간 중인 6월20일 대구 뉴영남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전국코치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협의회는 『전세계적으로 기술이 평준화돼 가는 추세아래 체격과 체력이 열세인 종주국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일선 지도자인 코치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경기기술 개발, 지도방법 등을 개선하여 국내의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주목적』이라고 창립목적을 밝혔다.

제2회 태권도학회 학술세미나

태권도학회(회장 강원식)는 7월 28일 올림픽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중앙대학교 유진박사(심리)의 논문을 비롯하여 역학·철학·생리 등에 걸쳐 총10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1987년 150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태권도학회는 현재 3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88년11월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1회 학술세미나를 갖고 '태권도선수의 체력기준치 설정에 관한 연구'(단국대 정찬모교수)의 12편을 발표한 바 있다.

정호정

(태권도 경기장 아나운서)



어느새 태권도인이라도 된듯...

“경기가 재미있어요. 태권도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경기장에 나오고 부터는 스포츠면에 태권도가 나오나 꼭보게 됩니다. 언론에서 좀더 취급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새 태권도인이라도 된듯 태권도가 다른 어느 종목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가 되길 바라는 정호정씨는 현재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다.

맑고 단아한 목소리로 경기진행을 맡고 있는 정호정씨는 한대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정호정씨 이전에 88올림픽때 한대방송국 아나운서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태권도와 인연을 맺게되어 지금은 정호정씨가 전국대회 아나운서를 맡게된 것. 인천 석암 국민학교 시절에 아침체조로

태권도를 하게 됨으로써 약 3년정도 태권도를 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요즘은 여자들이 호신술을 배워둘 필요가 있는것 같으며 기회가 있으면 호신술을 배우겠다고 한다. TV에서 태권도하는 것을 볼 때나 「일요일밤의 대행진」에 나온 임신자전수가 태권도를 하는 것을 볼 때는 멋있게 보였는데 막상 경기장에 앉아 직접 눈으로 보니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지만 기합 넣는 우렁찬 소리는 꽤 멋있게 들린다고 한다.

취미로는 음악을 듣고 춤추는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녀의 꿈은 방송국 아나운서나 전공을 살린 영어선생님이다.

그녀는 결혼해서 애기낳으면 “아들 딸 구별없이 태권도를 시키고 싶다”고 한다.

스포츠에게 바치는 노래

쿠베르탱 지음
이완배 역

-1-

오 스포츠여 신의 기쁨, 생의 정수!
현세의 삶의 협곡에서, 험된 고역으로 불안한 중에, 그대는 인류가 웃을 수
있었던 옛날의 태평세월의 빛나는 전령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숲의 어두운 바닥을 햇살이 비쳐 환하게 했다.

-2-

오 스포츠여, 그대는 아름다움!
그대는 인간의 육체라는 집의 건축가, 그 집은 비열한 정열 때문에 더럽혀
지느냐, 건전한 노력으로 가꾸어 지느냐에 따라, 초라하게도 되고, 고상하
게도 되는 것을, 균형과 조화없는 아름다움은 없는데, 그대는 이 두가지의
비결바 없는 명수.
그대는 조화를 만들고 동작을 리듬으로 채우고 강인함을 우아하게 하고, 힘
에게 부드러움을 준다.

-3-

오 스포츠여, 그대는 정의!
사람들이 사회제도에서 찾다가 얻을 수 없는 완전한 공정성이 그대 가까
에서는 저절로 일어난다.
이무도 자기가 뛰어넘는 놀이를 1센치도 더 뛸 수 없고, 달릴 수 있는 시
간을 줄일 수 없지. 그의 몸과 마음이 합쳐진 힘만이 그의 성공의 한계를 정
해준다.

-4-

오 스포츠여, 그대는 용감성!
근육의 노력의 뜻은 오직 한 단어에 있는데, 그것은 '용감성'.
용감성을 발휘 못한다면, 근육은 무슨 소용이며, 부드럽고 강하게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유연함과 강함을 훈련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그대가 일깨우는 용감성은 노름꾼이 한번에 전재산을 다치는 무모
함이 아니고, 신중하고 숙고한 대담성이지.

-5-

오 스포츠여, 그대는 명예!

그대가 주는 명예로운 칭호는 절대적인 공정함과 조금도 사심없는 가운데 얻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자기 동료들 속여서 성공한 자는 마음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기가 부린 사기수단이 밝혀지면, 자기 이름에 붙어다닐 누명을 겹내게 된다.

-6-

오 스포츠여, 그대는 기쁨!

그대가 부르면 육체는 만 일을 제쳐놓고 쉬며,
두 눈은 미소짓고, 피는 동맥에서 자유롭게 강하게 흐른다.
생각의 지평선이 보다 밝고 뚜렷해진다. 슬픔에 잠긴 자에게는 그들의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한 자들에게는 삶의 즐거움을 만끽케 한다.

-7-

오 스포츠여, 그대는 자존변창!

그대는 곧고 바른 길을 따라, 병마의 씨를 말리고, 필요한 건강을 위협하는 결함을 시정하고, 완전한 종족을 향하는 바르고 고상한 길을 가게 한다.
그대는 운동가의 마음 속에 활발하고 튼튼한 아들들이 자라 자기 뒤를 쫓아 경기장에 나아가 나뭇대로 월계수를 따는 것을 보기를 바라는 욕망을 갖게 한다.

-8-

오 스포츠여, 그대는 발전!

그대를 잘 섬기려면,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야 한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더 훌륭한 섭생법을 지키라고 하고, 모든 지나침을 금하게 한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건강의 균형을 깨지 않으며 최고의 노력을 할 수 있게 현명한 법을 가르쳐준다.

-9-

오 스포츠여, 그대는 평화!

그대는 모든 민족들을 통제되고, 조직되고 자제된 힘을 존중하는 일에 끌어 들임으로써, 민족간의 행복한 유대를 만든다.
그대를 통해,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며, 그래서 다양한 국민성이 관대하고 평화로운 경쟁의 원천이 된다.

-역자후기-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 : 1863-1937)이 1912년에 쓴 『스포츠에게 바치는 노래』는 이분의 체육에 대한 교육철학과 신념이 깊은 사색으로 농축된 내면의 열정을 읽을 수 있다.

체육에 대한 애정이 이만큼 함축성있게 정돈되고 온전한 감성과 이론으로 찬사된 글을 대하기란 드문일 같다.

“sports”를 ① 신의 기쁨 ; 생의 정수, ② 아름다움 ③ 정의 ④ 용감성 ⑤ 명예 ⑥ 기쁨 ⑦ 자손번창 ⑧ 발전 ⑨ 평화의 9단락으로 순차적인 체육의 성숙단계로 분류, 사려깊게 구분한 흔적을 느낄수 있다.

이분이 주장했던 본래적인 체육의 순수성은 정작 상실해가고 있고, 아마도 퇴색해 버렸는지도 모를 현대체육이 「행(行)」만을 강조한 나머지 「지(智)」가 무시되고, 영육의 조화가 깨뜨려져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구된 소승적(小乘的)인 초라한 모습 (마치 근육만 발달된 원시인을 바라다보는 듯한)을 본다.

이 송시(頌詩)에서 선택된 가슴뛰는 언어의 박동을 느끼며, 운동의 멋지고 대승적(大乘的)인 원융무애(圓融無礙)한 사상의 완숙한 일미를 독자들과 맛보고 싶다.

『스포츠에게 바치는 노래』가 Coubertin의 본래의 뜻에 오역이 될까 두려워 원문을 함께 싣는다.

이 송시는 그가 49세에 쓴 것으로 독일에서 영문으로 번역된 Carl-Diem 연구소에서 1967년에 출판된 「The Olympic Idea」에서 발췌했다.



●역자-이원배

태권도 7단

미국 TRENTON 주립대학 대학원 체육교육학과 수료

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원국 근무

Ode to Sport

I

O Sport, delight of the Gods, distillation of life! In the grey dingle of modern existence, restless with barren toil, you suddenly appeared like the shining messenger of vanished ages, those ages when humanity could smile. And to the mountain tops came dawn's first glimmer, and sunbeams dappled the forest's gloomy floor.

II

O Sport, you are Beauty! You—the architect of this house, the human body, which may become object or sublime according as to whether it is defiled by base passions or cherished with wholesome endeavour. There can be no beauty without poise and proportion, and you are the incomparable master of both, for you create harmony, you fill movement with rhythm, you make strength gracious and you lend power to supple things.

III

O Sport, you are Justice! The perfect fairness which men seek in vain in their social institutions rises around you of its own accord. No man can surpass by one centimetre the height he can jump or the time for which he can run. His combined strength of body and mind alone set the bounds to his success.

IV

O Sport, you are Daring! The whole meaning of muscular effort lies in one word—to dare. What good are muscles, what good is it to feel nimble and strong and to train one's nimbleness and strength if not to dare? But the daring you inspire is far from the rashness which impels the gambler to stake his all on a throw. It is a prudent and considered daring.

V

O Sport, you are Honour! The titles you bestow are worthless save if won in absolute fairness and perfect unselfishness. Whoever succeeds in deceiving his fellows by some ignoble trick, suffers the shame of it in the depths of himself and dreads the dishonourable epithet which will be coupled with his name if the fraud from which he prospers should come to light.

VI

O Sport, you are Joy! At your call the flesh makes holiday and the eyes smile; the blood flows free and strong in the arteries. Thought's horizon grows lighter and more clear. Even to the grief-stricken you can bring a healing distraction from their sorrows, while you enable the happy to taste the joy of living to the full.

VII

O Sport, you are Fecundity! You tend by straight and noble paths towards a more perfect race, blasting the seeds of sickness and righting the flaws which threaten its needful soundness. And you quicken within the athlete the wish to see growing about him brisk and sturdy sons to follow him in the arena and in their turn bear off joyous laurels.

VIII

O Sport, you are Progress! To serve you well, man must better himself in body and in soul. You enjoin him to observe a loftier hygiene; you require him refrain from all excess. You teach him wise rules which will give his effort the maximum intensity without impairing the balance of his health.

IX

O Sport, you are Peace! You forge happy bonds between the peoples by drawing them together in reverence for strength which is controller, organised and self-disciplined. Through you the young of all the world learn to respect one another, and thus the diversity of national traits becomes a source of generous and peaceful emulation.

태권도, 민족자존심을 지키는 상징



문갑식
(조선일보체육부기자)

『어떤 종목을 맡아보고 싶나』

정확하게 21개월간의 편집부생활을 마치고 체육부 발령이 난 첫날 부장이 묻던 말이다.

『가능하면 격투기쪽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희망대로 내게는 몇몇 격투기종목이 배정되었고 「태권도 담당기자」라는 레테르가 붙은지 4개월이 지났다.

태권도에 대한 기억은 고교시절 체육시간에 배웠던 일, 외국에 이민간 한국인들이 덩치 큰 외국인을 태권도로 제압했다는 몇가지 일화 등 단편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 기억 중에는 물론 국민학생시절 재미있게 보았던 찰리 설이라는 태권도4단 경력의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도 포함되어있다.

이같은 인상은 체육부배속 1주일만에 종별선수권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국기원을 찾으면서 수정됐다.

통상 「국기」라는 현상의 수식어에 둔감하던 나는 국기원이 상업화되어가는 다른 스포츠의 추세에 맞서 의연히 민족 자존심을 지키가는 상징물로 인식됐다.

엄격한 규율, 선수들이 내뿜는 직선동작의 정제미와 화려한 발기술, 국기원은 수천년전부터 행해져오던 한민족 원래의 몸짓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에 취재한 선수출신의 한여대생은 매우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원도복에 매료돼 태권도에 입문한지 10년만에 세계선수권을 두차례나 석권한바있는 그녀는 「태권도는 도를 추구하는 스포츠」라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도」는 무엇일까. 간혹 취재를 마치고 국기원 언덕길을 내려오며 떠올린 그녀의 말속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정신을 우선하는 신체의 단련과정.

당시 순간적으로 떠오른 자기만족적 정이었지만 수년간 진지하게 수련한 이들에게서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체취가 그녀에게서 느껴진다는 기억은 그런 생각을 확신으로 이끌었다.

그 여대생의 기억과 함께 떠오르는 것은 태권도사범경력을 가진 동료기자에 관한 것이다.

K일보에 근무하는 그의 경험담을 듣게된 것은 대학선수권대회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던 전철 안에서였다.

이스라엘에서 사범생활을 했다는 그는 「실력」을 입증하라는 현지인들의 눈초리에 상당기간 고민했다

고 한다.

결국 그는 묵었던 도복을 꺼내입고 남들이 잠자리에 드는 한밤에 연습을 시작한다. 잊혀졌던 동작의 반복, 흐르는 땀방울.

이국의 하늘 아래서 서너시간의 개인연습을 마치고 담배를 피워물었을 때의 상쾌한 기분을 그는 아직도 잊지못한다고 말했다.

잘 단련된 그의 신체에서도 여대생의 그것과 같은 건강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국인이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세계적인 것 그것은 태권도다.

이런 기억과 함께 국기원 취재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일반관중의 부재현상이었다.

팅빈 관중석을 보면서 한국인은 항상 남의 것을 선호하고 내것을 잃고난 후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아쉬워한다는 어느 외국학자의 지적이 떠올랐다.

그 「우둔」한 우리 중에 혹시 나도 포함된 것이 아닌지 국기원 언덕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된다.

요즘의 태권도계는 상당히 「의미」있는 몇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각종 심판-경기 규정과 법령의 단행본화 작업이다.

현상적인 인기에 가려 별로 빛을 보지못한다손 치더라도 이같은 법적 충실을 기하기 위한 작업은 상당한 성과를 면할 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규정집이 각대학, 일선도장에 배포될때 「문무검비」라는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문구가 현실화될 것이다.

또 다른 것은 경기중 채점결과가 즉시 전광판에 나타나게하는 시스템의 개발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취재기자는 선수의 어떤 동작이 포인트와 연결되는지, 마감시간에 쫓길 경우 경기 결과를 발표하는데 소요되는 그 짧은 시간마저 길게 느껴지는 적이 여러번 있다.

「국기」의 진정한 「국기화」, 이런 것은 스스로 내실을 기하는 자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태권도인들이 몸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일반시민의 인식부족과 보다 적극적인 홍보노력의 필요성이다.

기자는 한 해의 거주사범의 기사를 쓰고난후 엄청

**팅빈 관중석을 보면서
한국인은 항상 남의 것을
선호하고 내것을 잃고난 후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아쉬워한다는
어느 외국학자의 지적이 떠올랐다.**

나게 많은 양의 독자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 그 많은 양의 전화보다 기사를 놀라게 한 것은 내용이었다.

독자들의 관심은 기사내용 중 단 한 문장에 집중돼있었다. 「...현직 대통령을 지도한바있는...」 부분.

그들은 이 사범이 자신들의 현직진출을 위한 중요한 「줄」로 인식되었음이 분명하다.

『어떻게 연락 좀 할 수 없느냐』 『식사나 같이 하면서 좀 도와달라』등등.

기자는 이때 얼마나 필력이 부족했으면 독자들이 그 사범의 고생담이나 앞으로 그가 추구하는 목표보다 「줄」에 관심을 가졌을까하는 자괴감과 함께 태권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한계를 느꼈다.

태권도가 좀 더 일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발굴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전세계를 통틀어 경기인구가 가장 많은 종목, 공산권국가에 대한 진출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목, 그렇지만 일반인에게는 어린이들의 신체수련용이나 군인들의 단련용으로밖에 인식되지않는 종목, 이러한 인식을 깨기 위하여 소재의 발굴과 관심의 유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다.

언젠가 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태권도는 엄청난 경기종목입니다」그는 프로야구나 축구를 예로 들면서 그같은 종목의 실제 경기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오늘도 전국의 거리에서 흰도복의 검은 띠를 자랑스레 어깨에 매고 활보하는 어린이들의 해맑은 얼굴, 큰 경기의 식전행사 때 으레 등장하는 연무 등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굉장한 인기가 있다」식의 자조섞인 후련이 기사를 안타깝게 한다.

경기장이 표를 사려는 인파로 혼잡해 질때까지 나는 「태권도기자」라는 명찰을 달고나닐 작정이다.

현장을 찾아서

정규대학으로 개편, 태권도 명문대의 변화 가능성 예고

—대한체육과학대학—



대학유도학교에서 대한체육과학대학으로 개명

6.25적후인 1953년도에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2년제 초급대학으로 문을연이래 1956년도에 4년제 대학과정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 4월 강동구 풍납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가 1985년 2월 지금의 경기도 용인으로 옮겨오면서 13만여명의 대자연속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관, 기숙사, 학생회관 등을 갖춘 캠퍼스를 갖고 체육 지도자의 산실로서 그동안 34회에 걸쳐 3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온 대한유도학교가 90년대를 맞아 정규대학으로 개명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대한체육과학대학에서는 1979년도부터 격기학과에 태권도 전공자를 선발하기 시작 하면서 태권도 전문 지도자의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이후 80년대 태권도 발전의 기틀을 다져왔었다.

한국고유의 전통무술이 과학적인 체계위에서 범세계적인 스포츠로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에 개설되기는 이것이 처음의 일로서 당시 태권도계에서는 발전의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다.

격기학과에서 태권도 전공학생을 선발해온 이래 1982년도에 대학과정에서는 처음으로 태권도학과를 개설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배출과 이론과 기술연구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이듬해인 1983년도에 경희대학교에 태권도학과를 개설하는데 추진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1985년도에 용인의 새캠퍼스로 옮겨 오면서는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종합체육관을 현대적 시설을 갖춘 국제적 규모로 건립, 체육의 산실로서의 위용을 갖추었다.

종합체육관은 태권도장과 유도장, 사회체육 실습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의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태권도장은 바닥에 나무대신 탄력성이 좋은 서독제 레그폴 플라스틱을 깔고 있어 선수보호측면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우수한 시설과 장비는 경기력향상의 효과를 높혀주어 방학동안에는 전국의 학교와 외국팀의 전지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1989년도 만해도 미국과 유럽에서 170명, 동남아에서 80명의 선수단이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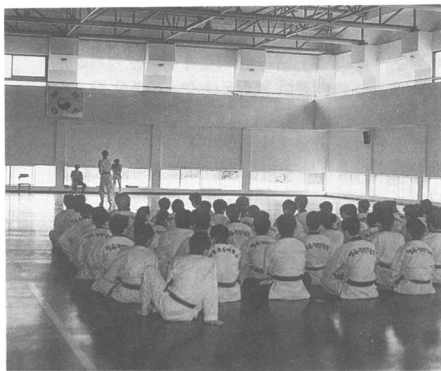
태권도가 대학의 학과로 개설된이래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 태권도 관련논문이 학회지 및 학위논문으로 발표되면서 태권도를 통한 신체활동을 과학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경기력향상에 접목시키고 있음을 물론 태권도의 이론적 영역을 구축해왔다.

태권도학과장실에는 태권도학의 산실로서 손색이 없도록 태권도관련 논문 및 참고서적을 전량 확보하고 있다.

문화적 유산인 태권도를 과학적인 연구분석의 토대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대학 태권도학과의 과제

또한 우수한 기량을 갖춘 국가대표선수의 배출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국위를 선양해왔고, 해외의 사범 진출로 태권도 보급을 통한 스포츠 외교로 국익을 신장시켜왔다.

대한체육과학대학에서는 올해 태권도학과를 비롯해 총 8개학과에서 680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이중 태권도학과는 11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입학전형시 800여명이 지원 7.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 다.



철학·역사적 체계위에서 태권도 기술을 배워야만 태권도의 무도로서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을것

앞으로 대한체육과학대학은 타대학과 동등한 입장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수한 선수를 유치할 수 있어 대학태권도 명문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체대나 경희대태권도학과를 비롯한 태권도전공자의 선발과 기타 대학에서의 특기생 전형후 유도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됨으로써 우수한 선수확보에 열세에 있던 점이 정규대학 개편으로 말미암아 제도적으로 보완되었다는 의미에서 큰의미를 갖는 것이다.

특히 대한체육과학대학이 체육전문인력의 육성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학진학을 앞둔 선수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과학대학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된 이래 지난해까지 7년간 태권도학과장으로 재직해오면서 태권도의 학문적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이규석 교수는 올해 체육과학연구소가 신설되면서 초대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규석교수는 『서양운동과는 달리 동양운동만이 『도』가 들어갑니다. 『도』는 『돈』과는

다릅니다. 서양이 추구해온 물질추구의 자본주의 사회의 스포츠가 동양에 밀려오면서 우리가 추구해온 『도』의 운동은 그 의미가 굴절되기 시작했습니다.』고 하면서 『태권도의 철학·역사적 체계위에서 태권도 기술을 배워야만 태권도의 무도로서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교수는 태권도학과와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태권도 정신을 강조하면서 『태권도인들이 술선수범을 보이고, 선후배간 신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도울줄 알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극기 정신을 보여주어야만 태권도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학과장인 진중의 교수는 『문화적 유산인 태권도를 과학적인 연구분석의 토대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대학태권도학과와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희대와 공동의식을 갖고 태권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유명대학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국내외에서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절학교를 개설해 태권도를 지도할 계획도 구상 중이라고 한다.



고광득 학장

**1990년대에 들어서 정규대학으로
개편되면서 많은 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과 발맞추어 앞으로는
교수와 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주역이 되어
웅비 2000년대를 향해
내실을 키워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

이와 병행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범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여 태권도 발전방향을 토의하고 해외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경험담 등을 들려주어 진로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과학대학의 고광득학장은 『태권도학과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지도자 양성으로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각광받는 태권도 인구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본교의 많은 졸업생들이 태권도계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재임중에 대한유도대학인들의

엄원이던 대학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현재 대학원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문교당국에 이를 신청중에 있다』고 밝히고 체육의 전문성을 살린 대학으로의 발전과 함께 오는 2000년대에는 종합대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원대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현재 대한체육과학대학의 태권도학과에는 태권도학회와 시범단, 훈련단이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학회는 1982년도에 태권도학과가 신설되면서 조직되어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통한 학문적 발전과 각종행사 등을 주축하면서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大虎』라는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다.

작년에는 김운용 IOC집행위원 겸 대한태권도 협회장 초청세미나를 열기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체육과학대학 총장기대회를 전국규모로 신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태권도 시범단은 82년도에 창단되어 지난 9년간 각종 대회를 비롯해 대학축제 등에 초청되어 시범을 보였고 매년 대학로에서 태권도시범발표회를 갖고 있다. 태권도 시범단은 현재 41명으로 구성되어 국기원시범단에 버금가는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시범의 기본인 점프와 난이도 높은 공중기술 발차기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태권도 훈련단은 현재 42명으로 구성되어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며 새벽의 조조운동과 오후 운동을 통해 우수한 기량을 갖춰 국가대표선수를 포함한 전국대회에서의 입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체육과학대학이 1990년대에 들어서 정규대학으로 개편되면서 많은 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과 발맞추어 앞으로는 교수와 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주역이 되어 웅비의 2000년대를 향해 내실을 키워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고 본다.

현장을 찾아서

한강 전역에 울려퍼지는 태권의 메아리

—한강시민공원 스포츠교실—



8개 지구에서 8개종목이 실시되는 스포츠교실

사회체육센터와 서울시 생활체육과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교실은 잠원 반포 여의도 광나루 잠실 이촌 양화 망원지구 등 8개 지구에서 운영되며 종목도 태권도를 비롯해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핸드볼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 8개종목이 실시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의 스포츠교실은 4월 2일 문을 연 이래 앞으로 11월 30까지 계속된다.

각 지구별로 주2회씩 개설되는 스포츠교실은 4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하계인 5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는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실시한다.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스포츠교실은 시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 여가선용 기회제공,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 사회체육진흥, 밝고 명랑한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하는 취지아래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교실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간편한 운동복차림으로 가까운 한강시민공원에 나가 바로 참가할 수 있다. 물론 회비도 무료이고 현장에서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다.

좀더 효율적인 홍보 이루어져야

특히 현대인의 레저와 휴식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강시민공원의 스포츠교실은 점차 주위에 알려지기 시작 하면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망원지구를 제외한 7개지구에서 모두 96, 852명이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이 한강 주변의 시민들에게만 활용되고 있고 그것도 아직은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 우연히 한강에 바람쐬러 나왔다가 알게되거나 참가자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구별로 한강 주변 시민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금요일 오후 망원지구에 나가보니 주변에 산다는 이미숙주부가 5살, 3살된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태권도 수련생들 앞에서 머뭇머뭇 하면서 구경을 했다. 어떻게 오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우연히 한강에서 스포츠교실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어 한번 나와봤다』며 『아들이 태권도를 해보고 싶어하던 참이라 보고서 시켜볼까 한다』는 것이다. 그때가 5월 말이었는데 그녀는 그 바로 앞에 살면서도 근 2달만에야 그것도 우연히 남한테 듣고 찾아왔다고 이렇게 늦게 알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 『여기는 내고장 신문으로 마포신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 기사를 실으면 더 홍보가 될 것이 아닌가. 또한 반사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홍보가 안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태권도의 사회체육으로의 뿌리는 한강에서 이루어질 것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시민들이 부담없이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한강시민공원에 스포츠 교실을 개설한 것은 스포츠를



윤상화
(전문지도위원)

통한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나은 환경과 시설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태권도는 월·목요일은 잠원·반포·여의도지구, 화·금요일은 양화·망원지구, 수·토요일은 이촌·잠실·광나루지역에서 실시된다.

전문 지도위원으로는 대한 체육과학대학 강사인 윤상화씨가 맡고 있고 트레이너로는 이기훈씨와 서원씨씨, 보조 트레이너로는 대한체육과학대학 학생들인 이서중, 김성환, 김상훈씨 등 총 6명의 지도자가 지구별로 순회하며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8개 지구에 5월 현재 257명의 회원이 등록을 했고 그의 등록을 하지 않고 태권도 수련에 참가한 인원까지 합치면 그수는 배이상일 것이라고 한다.

전문지도위원인 윤상화씨는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공원에서 쿵후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날에 시민공원에서 장소와 시설물에 관계없이 누구나 태권도를 수련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태권도지도는 기본 동작에서부터 전문 기술지도까지 수련생들의 수준에 따라 지도하게 된다. 연령, 인원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시키는 것이 지도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수련생은 주로 유치부와 국교생이 많고 중고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2시간의 수련시간은 기본동작과 호신술, 에어로빅, 특기운동 등 다

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요즘은 “하는 체육보다 보는 체육”으로 가는 경향인데 태권도는 시설 등에 구애받지 않고 준비물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운동이다. 그래서 앞으로 태권도의 사회체육으로의 뿌리는 한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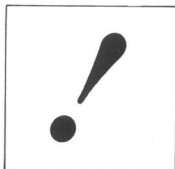
격투기 종목으로는 태권도가 유일하게 개설

특히 이번에 개설된 스포츠교실 8개종목 중 6개가 구기종목이며 격투기종목으로는 유일하게 태권도가 개설되었고 주부들을 위한 에어로빅이 주부 뿐만 아니라 어린이·어른 모두를 위한 여성 운동으로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특히 에어로빅의 경우는 태권도와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는데 이는 에어로빅을 배우러 나오는 주부가 자신의 아이들은 데리고 나와 에어로빅을 배우는 시간에 태권도를 수련하게 함으로써 태권도 수련인구를 높이고, 거꾸로 태권도 수련을 위해 아이들 손을 끌고 나온 주부가 기다리는 동안 에어로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망원지구에는 현재 65명이 등록을 했는데 동교국민학교 6학년이라는 박효준어린이는 5월8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같은 동네 친구인 박동주가 태권도를 한다고 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나와서 해보니까 『발에 힘이 세어지는 것 같다』며 좋아했는데 자기 때문에 다른 친구인 오경민이도 나오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야구와 축구라고 하는데 태권도도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한다.

박효준어린이는 태권도가 힘들지만 무척 재미있고 좋다고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태권도를 수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근처에 산다는 한 시민은 『한강시민공원 스포츠교실을 통해 태권도의 함성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확 트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저는 현재 전북 고창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범대 체육과를 졸업했고 사범자격증과 2급 코치아카데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대학부 대표로도 출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계간지를 정독해보니 “1급 경기지도자” “2급 사회체육지도자”교육이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제가 이런 교육을 받을 자격은 있는지요.

김동주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1급 경기지도자

1급 경기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체육 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수대상 자격은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경기지도자 경력이 있는자, 또는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선발절차는 추천의뢰→해당연맹 (협회)장의 추천→필기고사→면접고사→입학사정→합격자 발표
- 필기고사는 협회장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과목은 교양 및 일반상식과 전공 (스포츠과학)으로 실시
- 연수과정 수료자에게는 국가공인 1급지도자 자격 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

2급 사회체육지도자

2급사회체육지도자교육은 1988년에 1회 실시한바 있으며, 체육부는 91년부터 전국의 5개대학(서울대, 대한체육과학대, 충남대, 동아대, 조선대)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연수과정대상자격은
- 1. 3급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 또는 체육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전문대학 또는 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체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하면 2급 사회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태권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엽서에 간략히 적어 대한태권도협회 홍보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태권가족



이 향운





사범님 (12)

하늘을 바라보며



글·金 健 中
그림·이 향 원



1999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노스트라 담스가 예언했는데 그 1990년대로 접어드는 해라 그런지 몰라도 기상이변은 회안하기만 했다. 어찌보면 그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겨울이 봄처럼 포근해질 않나 봄이 겨울처럼 추지를 않나 아무튼 종잡을 수 없는 기상이변이 지난 겨울부터 내리 일어나더니 초여름에 접어드는 계절에 설악산 어디엔가는 눈발이 날렸다는 소리가 들리니 아무래도 이상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런 기상이변과 더불어 세상사조차도 묘한 이변이 속출하더니만 태권도계에도 그 이변 바람은 불어왔다.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에 태권도장의 감독관청이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해 태권도장이 교육기관이 아닌 체육시설업으로 전락이라면 전락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로 뒤바뀐 셈이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지도자도 새로 생긴 사회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문제까지도 생긴 것이었다. 이런 커다란 변화 속에서 나아갈 방향이나 그에 준하는 모든 문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판이니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범들로서는 아직도 갈피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인데 도사범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래 두칠이가 그 교육을 받으러 갔남?」

도사범으로부터 변화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별난 영감은 눈을 호동그레 뜨며 물었다.

「제가 보냈습니다.」

「그야 도사범이 보냈겠지만 내 애긴 그거야 아니고 도사범이 먼저 교육을 받는 게 순서가 아닌감. 그렇게 되면 두칠이가 제한테 그 녀석이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선행이 된단 말여. 허어이 물이 까꾸로 흐르겠구먼 그러.」

「원, 영감님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기가 막히다는 듯이 도사범이 말하자

「아녀, 아녀. 뱀이 그런게 아녀. 옛말에 냉수물도 순서가 있다고 했잖녀. 물론 고녀석이야 싸수가 있으니가 별게 아니지만 고 싸가지 읍는 녀석들은 세월이 흐르면 머리 위로 올라간다니까.」

별남영감은 무슨 사건이라도 되는 듯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영감님, 그런 사소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

터 일선 도장이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긴, 내야 뭐 장유유서나 찾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새로운 몇가지 안을 계획 놓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도사범이 누군감. 나 같은 노인도 태권 도장에 끌어들이 사범인데 호호호호…」

「원, 별 말씀을… 태권도 배우신 걸 후회하십니까?」

「어딜, 소싯적에 못 배운 게 한이지 그래, 계획한 것이 뭐감?」

「차차 아시겠지만 협동조합 비슷한 겁니다.」

「협동조합? 아니, 태권도가 무슨 농사짓는 일인 줄 아남?」

허드레 몸짓을 섞으며 별난영감이 반문하자, 도사범은 싱그레 웃으며 자신이 제출했다는 그 안에 대하여 폭발물을 취급하듯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태권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커다란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두개의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첫째는 일선 체육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또 하나는 마을금고 역할과 일선 체육관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물품을 싸게 구입하고 그 이익을 일선 체육관에 돌려줄 수 있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사범, 체육관 관리는 협회에서 하고 있잖남,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거야 많은 물건을 쓸 때 필요한 거고, 마을금고야 기존 창구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님가.」

고개를 가우뚱 꺾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별난영감에게 도사범은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기존의 협회는 행정적 기구로서 경거나 승단, 품심사의 업무만으로도 벅찰 뿐 아니라 일선 체육관 운영의 세부적인 면에는 손을 쓰지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문제는 지역 단위 별로 설치해서 운영할 때 적어도 체육관 하나가 연간 구입하는 물품이 적어도 기백 만원이 넘는다고 할 때 그 이익금 십 퍼센트와 기존 금융 기관이나 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자금을 협동조합에 투자할 때 생기는 이익

금을 갖고면 일선 체육관의 집세인상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또한 일선 체육관의 지도자간에 친목도 공고히 될 것 아닙니까.」

「애길 듣고 보니 그렇긴한데 그 일선 체육관 운영을 관리한다는 건 뭐감?」

「그것은 현재 일선 체육관이 수련생 유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각 체육관이 미니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제일 큰 지출이고 그 다음 매년 봄이면 현수막이다 포스타다 뭐다 해서 오백 만원은 길바닥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운영을 관리하는 기구를 지역별로 만든 다음 그 기구에서 통괄적으로 수련생을 접수 받아 가까운 체육관으로 배치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군별로 학생을 배치하듯 제도화 시킨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음… 따른 일리가 있긴한데 그게 될까?」

별난영감은 도사범의 생각이 기발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엉뚱한 발상이라는 것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제껏 말씀드린 것은 운영에 관한 것이고 다음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그렇습니다. 태권도 지도자도 병원의 전문의처럼 세분화해서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 중심으로 유아전문 지도자, 청소년전문 지도자, 노인전문 지도자로 구분한다면가 아님, 품새전문 지도자, 겨루기전문 지도자라면가 아무튼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제도화 시킨 다음 그 전문성있는 지도자를 한데 모아 태권도 종합체육관을 설립한다면 커다란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일반적인 기초과정으로 승단, 품까지의 과정과 기초체력 증진이나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의 기본 구조로서 역할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세, 난 뉘 소리지 알 듯 말 듯 하지만 도사범이 좋나더냐 좋은 거겠지. 허나 그런 생각을 다른 사범들도 해야 씨알이 먹히지 그렇잖음 팬스레 육이나 먹으니가 조심혀. 예전에도 거 좀 팬찮다하는 생각에서

핀 말을 했다가 경치는 길 종종 봤으니까 말어.]

별난영감은 도사범의 말을 쉽게 알아듣지 못해서 였는지, 노파심에서였는지 몰라도 아무튼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날로부터 보름 남짓 지나도록 일의 진행을 어디 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서성이 기만 했다. 초여름 신록의 싱그러움도, 아카시아 향내도, 후덥지근해지는 계절의 감각도 느낄 수 없으리 만큼 그는 애오라지 그 문제에만 골몰하더니만 일추한파수쯤 지났을 무렵, 실천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함께 세부계획서를 완성시켰다.

뜻있는 몇몇 사범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하는 도사범의 달뜰 가슴은 부풀기도 했지만 한편 거부당할 것 같은 불안감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불안감이 잔뜩 부풀 그 기대감을 억누르지는 못했다.

도사범이 나타나자, 신문을 펼쳐들고 있던 지역지부 사무장인 윤사범이 반색을 하며 그를 반겼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도사범은 들고온 계획서를 보이며 한 시간 가량이나 그것에 관한 설명을 했지만 윤사범은 고개를 가우뚱 띄울 뿐 시원스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이지역 전체 사범들의 의견을 물으면 될 것 아니냐?」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도사범이 말했다.

「그 방법이 제일 좋겠군. 그러나 문제는 사범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하느냐 이거야.」

아직도 윤사범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윤사범, 그러니까 자네가 홍보해 줘야겠어.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힘좀 써줘.」

「이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커다란 짐을 지우느군.」

「그렇게 사무장 아니냐.」

예정대로 임시총회가 열린 것은 그날로부터 두 주일이 지나서였다. 도사범은 전체 대의원(체육관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계획한 것을 커다란 차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설명과 함께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물론, 처음에는 이리저리 절충하는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하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80%에 가까운 찬성으로 기울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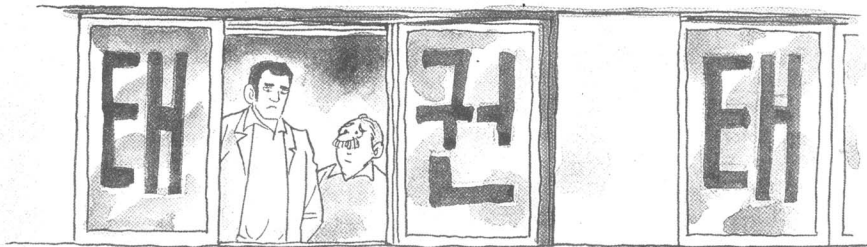
문제는 가결되었다. 우선 협동조합을 설립하되 자본금의 출자는 자유로 하지만 모든 상품의 구매는 전체 체육관이 그 조합에서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운영기구는 당분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협회에서 분과를 두어 운영하되 그 분과가 전담하는 것은 지역별로 수련생을 배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련생 모집도 그 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여 주소지 별로 해당 체육관에 배치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태권도의 새로운 개혁이라는 사명은 도사범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나게 만들었다. 그가 잠한숨 제대로 자지 않고 고심하며 사부작거린 덕분에 달포쯤 지나 드디어 협동조합은 문을 열게 되었다. 30여명의 사범으로부터 출자금 이천여 만원을 마련해 설립된 조그만 규모의 조합이었지만 도사범으로서는 그것이 재벌이 세운 커다란 기업체보다도 더 소중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만들었다는 성취감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태권도 사범들의 자율적인 협조로 공동체가 이룩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뻐서 때문이었다.

협동조합은 크게 나누어 돈을 취급하는 금고와 물건을 사고 파는 구판장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합의 모든 구성원은, 하다못해 경리까지도 태권도인으로 구성했는데, 조합장은 지역지부장이 겸임키로 하고 도사범은 조합사무에 선출 되었다. 그 바람에 덩달아 별난영감도 구판장 구매과장의 직책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별난영감에게는 신바람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잖아도 얼마전 만화가게를 처분하고 할일없이 복덕방 아니면 노인정이나 기웃대던 판이었는데 일거리가 생겼으니 웬 떡이나 싶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협동조합 구판장에 물건을 사러 오면 판매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난영감은 짹째 달려나가 직접 물건을 파는 것이었다. 물론, 그거야 성품이 소탈하고 직선적인 데다 별난구석이 있어서라고 도사범은 이해를 했지만 짧은 직원들은 그게 아니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서서 잔소릴 늘어 놓는 별난영감에게 그들은 주책이 없다느니, 체통이 없다느니, 하며 이맛살을 찌뻘리며 군시렁거리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협동조합은 잘 운영되었다.



일선 체육관 사범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주인 의식으로 사소한 물품조차도 협동조합에서 구입하고 또한 유치부 아동들의 저급도 협동조합 창구로 들어오니 구판장은 구판장 대로, 구판장 품고대로 점점 늘어났다. 그에 따라 직원의 숫자도 차츰 문을 열 때에 비해 거의 배가 넘는 숫자로 불어나니 그야말로 완전한 성공이었다. 그 덕에 체육관을 개설하지 못해 이리 저리 떠도는 최홍식과 비슷한 처지의 실업자 사범도 협동조합에 취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게 되었다.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후에는 수련생 배분의 문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론, 기존 수련생은 금년 말까지는 소속 체육관에서 그대로 수련을 하고 몇년 봄 유치부를 모집해서 배치할 때 함께 하기로 했으니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 수시로 입관하는 수련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골치거리였다. 왜냐하면 번두리 지역 체육관은 인구밀도가 적어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수련생을 데리고 와야 간신히 운영되는 판인데 자신의 구역에서는 입관하는 수련생이 없다보니 다른 지역에서 입관하는 수련생을 받아야만 했다. 자연, 지역을 침범

당하는 체육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모처럼 다진 태권도 체육관의 화목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로 부각하지 시작했다. 도사범은 머리를 짜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번두리 태권도 체육관의 경우는 인구 밀도가 많은 지역의 일부를, 그 지역 체육관과 협의 하에 배여 주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타결하기 위해 해당 체육관의 대표와 협상을 하기에 이르렀지만 참으로 힘든 일임에는 틀림 없었다.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 때마다 도사범은 동분서주하며 뛰어 다녔어야 했다. 그로서도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도사범의 설득력 덕에 전실한 자제는 그런 문제점들을 용케도 풀어 주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각 체육관의 차량운행을 금년 발표선 전면 중단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각서를 받는 것과 아울러 차량을 헐값이 아닌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일이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되겠지만 그 차량도 협동조합이 일괄적으로 위탁 판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사범으로서는 머리가 무겁지 않을 수 없었다.

「도사범, 좋은 수가 있네. 그 호메이니 강영감 있지? 그 영감이 중고차 시장에 명에 회장으로 있으니 그 영감한테 부탁해서 이문은 먹지 말고 팔아 달라던 될걸세.」

누런이를 내보이며 별난영감이 방법을 제시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중고차시장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을 순 없으니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팔아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마침 영감님이 구매과장 직함도 있으니 직접 나서도 됩니다.」

「거 개통도 약에 쓸 때가 있다더니 고집쟁이 강영감도 쓸 때가 있군. 가만, 그것이 내가 혼자 나설 게 아니고 술통 박영감을 앞세워야 일이 될거야. 웬고 하니 박영감 손주 딸이 그 강영감 손주 녀석과 혼담이 오가니 뭔가 무시할 순 없을 기라 이거야. 안 그런 감?」

신바람이 나서 말하던 별난영감은 부시럭거리며 주머니를 뒤지더니 박영감 전화번호를 펴보이며 히죽 웃었다.

「그러야 영감님 소란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별난영감의 큰소리는 적중했다. 그가 박영감을 앞세워 강영감을 어떻게 설득했는 지는 몰라도, 책임지고 체육관의 차량을 관인계약서 대금만 빼고 이익 없이 처분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사범이 안고 있던 크고 적은 문제들이 강물 흐르듯 무리없이 해결되며 협동조합은 점점 활기를 띄우게 되었고 아울러 체육관 운영에 관한 문제, 특히나 수련생 배분 문제도 가즈런한 실타처럼 술술 풀리게 되었다.

「뭘 쓰냐?」

도사범이 밤 늦도록 서류를 꾸미는 것을 보고 별난영감이 물었다.

「아니, 퇴근하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어허이, 퇴근이야 했었지. 근데 체육관엘 가도 자네가 안 왔다기에 다시 왔지. 상무님이 퇴근을 안하는데 구매과장인 내가 먼저 퇴근한 게 아무래도 미안하잖아.」

「원 영감님도 별 말씀을...」

쓰던 서류를 밀쳐 놓으며 도사범이 별난영감에게 자리를 권했다.

「지금 꾸미는 게 무신 서류여. 아직도 할 일이 그렇게 많냐?」

「아, 이거요. 실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펼쳐은 협동조합과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걸 뭇 할려구?」

「위에 보고해서 우리지역 뿐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산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실적보고서라 이건감?」

「그런 셈이요.」

「난 또 내 주소지가 아파트 쪽이라 천하체육관에 서 다른 체육관으로 내쫓는 서류를 꾸미는 줄 알았지.」

「네에? 하하하...」

모처럼 두사람은 통쾌한 웃음을 시원스럽게 날렸다. 그 웃음소리만큼이나 그들은 이미 깊은 정이 들었고, 그 정은 깊은 신뢰로 바뀌어 비록 세대차이는 컸지만 하나의 닻줄로 묶어 놓고 있었다. 어쩌면 그 닻줄은 태권도라는 풀 수 없는 닻줄 때문인지도 모른다.

계획대로 도사범은 수십매에 달하는 실적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고는 지역지부 이사회에서 보고를 마친 뒤, 애당초 의도 했던 대로 위에 보고서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어쩌면 그것은 협동조합의 성공이 가져다준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신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때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두툼한 서류봉투를 등기로 발송하고 돌아서는 도사범의 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그 가벼움은 바로 좋은 소식, 바뀌말하면 위로부터 연구 검토한 후 뭔가 좋은 희신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서였다.

(잘 되겠지.)

도사범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기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들어 맑게 개인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소라색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소리없이 번져 나가고 있었다. 그 번져 나가는 구름을 느닷간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도사범은 점점 도취되고 있었다. 그것은 끝없는 하늘에 번지는 뭉게구름처럼 태권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며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기대를 그 하늘에 조용히 수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자 상임심판원 이정연 · 김혜연씨



“여자태권도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여성지도자들이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올해부터 경기장내 판정시비 불식과 심판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전국의 4200여 심판자격 소지자 중 64명을 선발한 상임심판원 중에 2명의 여자 상임심판원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여성 심판을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경기를 명랑하게 이끌고 있음은 물론,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을 보고있어 심판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선배들도 있고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성 심판자격소지자들이 많은데 저희가 위촉된데 대해 영광스럽고 여성 심판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이정연 심판원과 김혜연 심판원은 입을 모았다.

현재 여자 심판자격소지자는 50여명에 달하는데 이정연씨는 올해 24세이고 김혜연씨는 20세이며 둘 다 4단이며 3급 심판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들은 올해 국내 경기규칙이 개정되면서 심판원으로서 『경기결과가 동점이거나 무득점인 경우 주심이 우세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경기운영이 더욱 치밀해지고 조심스럽다.』고 한다. 특히 이정연씨는 지난 해부터 심판활동을 함으로써 지난해와 올해의 심판원의 자세가 현격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정연 씨와 김혜연씨는 경고 2회에 -1점을 계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개정전 경고를 당할 때마다 -0.5점씩을 계산함으로써 어떤 선수의 경우는 경기에서 우세한 면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패하는 경우가 있어 판정시비의 원인이 되곤했는데 올해부터는 경고 2개에 대해서만 -1점으로 계산함으

“운동을 하지 않을때 화장도 하고 치마도 입고, 악세사리로 모양새줄도 알아요”

로써 경고 하나 때문에 부담을 갖고 경기운영이 위축되거나 하는 측면이 보완되었다는 점에서 경기활성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고에 대해서는 경고 나름대로 2개에 -1, 4개에 -2점씩 가산됨으로써 페어플레이를 유도하는 규칙의 운용에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세판정이 주심직권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주심의 독선이 우려될 뿐더러 심판간에도 이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것 같다.』며 우세판정에 대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것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혜연씨는 『매회전이 끝날 때마다 우세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많은경기에서 심판을 보면서 남녀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해 볼때 이정연심판과 김혜연심판은 둘다 공통적으로 남자선수가 체력과 기술면에서 전반적으로 월등히 우세함을 느낀다고 했다. 물론 남자들이 경기에 참가할 기회가 많고 대회 때마다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게 됨에 따라 그만큼 경쟁이 높아 경쟁력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기술면에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여자들에게도 그러한 기술과 체력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중추국으로서 세계 여성태권도인을 이끌어간다는 의식을 갖고 기술개발에 앞서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연 심판은 『여자들의 경우 작년도와 비교해 올해에 경기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여자 태권도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대학태권도 학과 등에서의 여성 지도자들의 배출로 여자부 학교팀이 증가추세에 있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대해 김혜연씨는 무엇보다도 “운동을 하려고 했으면 열심히 해야 할것”이라며 투철한 의식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연씨와 김혜연씨는 『앞으로도 계속해 심판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이정연씨는 여자 태권도인들이 남성들에 비해 일할 기회가 적게 주어지고 있지만 『일만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자들』이라며 여자태권도인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달라고 했다. 김혜연씨도 『태권도인으로서 상임심판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태권도 수련에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 같은 길을 걷는 태권도인과 결혼하고 싶고 태권도장도 운영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정연씨와 김혜연씨는 일반 사람들이 여자들이 태권도를 한다고 하면 남성들처럼 바라보거나 특이하게 보는 시선을 강하게 부정했다.

같이 운동한 친구나 선후배를 보면 비태권도인들보다 더 여자다운 면이 많은데 사람들이 외향만 보고 판단하는 잘못이 많다고 했다.

물론 외모에서부터 태권도하는 여자들이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머리로 대부분 짧게 커트를 했고 간편한 바지를 주고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녀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독서를 하고 뜨개질을 하는 등 『태권도 하면서 그런 것도 할줄아느냐.』 싶을 정도로 여성다운 면모를 많이 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정연씨의 경우 집에서 레이스를 떠 집안을 장식하고 있다고 했고 김혜연씨는 『운동을 하지 않을때는 화장도 하고 예쁜 치마도 즐겨 입고 악세사리로 모양도 낸다.』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태권도를 한다면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정연씨와 김혜연씨는 여성들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태권도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마음,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가짐, 솔선수범하는 마음 등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는 내면의 값어치를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태권도 시범으로 동구권을 순회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5월 8일부터 21일까지 태권도의 보급 촉진 및 공산권과의 스포츠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련, 불가리아, 헝가리 등 공산 3개국에 19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한 바 있다.

이글은 시범단 감독으로 파견되었던 김종영씨가 순회시범을 다녀온 뒤 본회에 기고한 것이다.

- 편집자주 -



김종영
국기원 시범단감독

이번 동구권 태권도 순회시범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스포츠 태권도의 불모지로서 세계적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지위를 위협해 왔던 스포츠 강국인 소련에 대해 WTF태권도의 뿌리를 보다 확고히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김운용 WTF총재의 노력으로 소련은 이미 WTF 가입을 결정하였고 그밖의 동구권 국가들도 NOC가 WTF가입 협회를 공인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헝가리, 불가리아 및 소련의 순회로 진행된 공산국가에서의 태권도 시범은 5월 9일, 동구권의 첫 국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산권에서의 첫시범, 헝가리

공산국을 많아 보는 설레임에 일행들은 모두 마음이 들떠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회낙낙했다.

다뉴브강의 잔물결이 유유히 흐르는 서정의 항구나 나라 헝가리!

그러나 북쪽은 체코슬로바키아, 동쪽은 소련 및 루마니아, 남쪽은 유고슬라비아, 서쪽은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는 내륙국가로서

면적이 9만 3천 30평방 킬로미터로 사방이 공산권에 싸인 인민공화국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는 오스트리아의 통치를 받기도 했으며 1918년에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 1920년에는 명목 뿐인 왕제(王制)가 부활되기도 했던 헝가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편에 가입하였다가 소련군에 의해 점령을 당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1956년 10월 헝가리 의거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내면으로는 자유를 추구하며 서방국가들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 공산국 중의 하나이다.

종교는 천주교로 부다페스트성 옆에는 명동성당처럼 큰 성당이 세워져 있었으며 자유의 여신상처럼 월계수를 받쳐주는 성모마리아상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거리의 건물들은 대부분 낡고 초라하였으며 폐허를 방불케 할 정도로 보수가 안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 아무도 국가 소유의 건물을 수리한다든가 애착심을 가지고 가꾸지 않는 것이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허구

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스포츠는 서울올림픽 때 5위를 차지 할 정도로 스포츠강국이라 할 수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특기를 살려 스포츠의 기량을 최대한 연마하므로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Stadion Hotel을 별도로 세워 놓을 정도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스포츠에 대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입국을 마치고 나와보니 짐찾는 곳에서 한 국인 부부 4쌍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아닌가 했는데 물어보니 서울에서 왔다고 했다. 과거 같으면 감히 생각지도 못할 공사권여행이었던간 세계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올림픽이후 눈부시게 성장한 국제적 교류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개방의 물결이 헝가리에도 일어나고 있었다.

공항에 내리니 그곳의 최창열 사범과 헝가리협회장 등 몇명이 우리 일행을 반겨 주었다.

10일 우리 선수들은 관광을 마치고 경기장을 찾아 출발하였다.

헝가리 역시 ITF 태권도 인구가 많다고 했다. 이곳에 ITF도장수는 약 35 곳으로 인원은 약 2000여명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ITF에서 우리 세계연맹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향해 오고 있다고 했다.

전향해 온 사람이 약 40명, 부다페스트 시 WTF 인원은 약 120명 정도이고 청소년은 약 150



명 정도로 총 270명 정도가 WTF라고 하며 여성 국기원 유단자도 있었다.

한국의 최사범은 스페인에 부인이 살고 있고 도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 태권도의 뿌리를 내리고 싶어 왔다고 했다.

알게 모르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음식도 언어도 어려운 세계에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도 마다하고 태권도 보급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11일 오후 6시 15분 우리는 역사적인 동구권 첫시범을 시작했다. 참석인원은 약 700여명 정도로 한국대사관 직원을 비롯하여 KBS의 오근환 기자, 참서관 2명을 비롯해 교포 김신일씨와 교포학생 15명도 참석해 주었다. 정말 감격의 순간이었다.

애국가가 울리고 서서히 올라가는 태극기가 펄럭이자 우리도 애국가를 제창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다.

곳이어서 이계광 단장의 선물 전달식에 이어 『헝가리 국민이여 태권도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도

헝가리 국민을 사랑합니다.』하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으로 공산권에 태극기를 달고 시범을 보이며 태권도가 스포츠외교에 큰 성과를 올리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뻗듯하였다.

불가리아, WTF계 500여명

헝가리를 떠나 소피아 공항에 도착하니 지효상 부부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북한 공작원인듯한 사람도 보였다. 공항에는 미니버스 두대밖에 없어서 우선 짐부터 대충 차에 실어 먼저 호텔로 보냈다. 짐을 실어다 놓고 다시 온 차에 일행이 타고 호텔로 갔다. 호텔로 가는 도중에 호텔 근처에서 북한 공작원 3명이 우리가 타고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 북한 대사도 김일성의 세째 아들이라고 들었다.

호텔에 도착하니 오후 4시15분이었다. 이곳 호텔방은 꽤 넓은 방이었으나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고 방바다의 연락도 어려웠다. 그리고 혹시나 북한 공작원이 우리



가 묵는 방마다 도청 장치나 하지 않았나 하고 신경이 쓰였다. 이제 광단장은 절대 개인행동을 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를 하였다.

다음날 우리는 지효상 선생과 함께 시범할 장소를 둘러 보러 나섰다. 시범할 장소는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금년 3월2일에 와서 수교조약을 한 외무성 바로 옆에 있는 체육관이었다.

불가리아는 500년전에 세워진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로 정치도 서기장 체제 중심으로 통치되며 국민은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불가리아는 터키에 의해 500년간의 긴 역사를 지배 받아오다 100년 전 소련에 의해 해방되었다.

소피아는 해방 기념으로 의사당 앞에 니콜라이 동상을 세워놓았으며 뒤에는 천주교, 즉 소련식 교회를 세워놓고 있으나 종교인은 보지 못했으며 이제는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듯 하였다.

이곳 불가리아에서의 협회 창설은 금년 1월에 했으며 ITF 회원은 2천명 정도이고 WTF는 현재 500명 정도라고 했다. 이 인원도 ITF에서 이탈해 온 사람이 많다고 했으며 서독에 있는 고의민 사범도 다녀갔고 파리에 있는 이관

요 사범한테 3단을 받았다는 이곳 협회장은 WTF로 많은 유단자를 배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는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며 불가리아 ABC방송국 기자이다. 협회장을 위시해서 수련자 500여명이 합심하여 정부의 협조 없이 협회를 창설하였다고 하였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보여달라며 우리에게 자기들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시범에는 20명정도가 참가했는데 장애물 몸돌려 뒤탈기는 묘기였으며, 1단이라는 꼬마의 고축 격파는 귀엽게 보였다. 모든 시범이 기본적이었으나 특히 호신술 시범은 50년대 우리의 시범 때 사용한 것과 흡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따랐다. 기술 시범이 아니고 힘의 시범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았다.

이제 태권도 시범은 과학적 기술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시범을 통하여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품새 시범에는 동작이 많이 틀렸으며 어깨에 힘을 너무 많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동작이 어색하고 몸의 균형이 잡히질 않았다.

다음날 세미나를 가졌다. 나와

이규형, 장권, 최광근, 김충석, 이충선 사범이 참석했다. 3시간 동안 기본동작, 품새, 심판, 겨루기 등을 보였고, 특히 품새 시범 때는 비디오 촬영까지 하였다. 또한 2명의 군인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명은 전날 시범 때 발목 부상으로 불참하여 1명만 심사를 하였는데 1단 실력은 충분하여 승단을 해주었다.

태권도에 대한 열기고조

시범 장소는 호텔에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불편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체육관 안과 경기장까지 2,200여명 정도의 관중이 꽉차 있었다. 먼저 국가가 두배로 있었다. 동구권 국가에서 두번째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애국가를 부르는 마음은 정말 감격스러웠다. 이어 이제광단장의 인사말과 불가리아 협회장의 환영사가 교환되었다.

또한 우리 임원 및 선수소개가 있고 난후 시범을 시작하려고 할 때 관중석에서 몇명이 고함과 야유를 보냈다. 이들은 각지역 ITF 관원들로서 그들을 지어 이곳에 참석하여 시범을 방해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조금 후 시범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돌아갔고 시범이 끝나자 감탄하면서 2천여명의 관중들이 하나같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종관 사범의 위력 격파시는 격파물이 장권 사범 얼굴에 맞는 등 활기가 넘쳤다. 또한 김경숙과 이의정의 호신술은 관중의 흥분도가 너무 열기에 넘쳐 이 강도 높은 묘기에 완전 압도된 분위기였

다. 태권도 종주국의 여러가지 기술 수준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모든 시범이 끝나자 우리 시범단은 많은 싸인공세를 받았다.

시범이 끝나자 그곳의 한 기자는 한국 태권도의 높은 수준에 탄복했다며 한국 사범한테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또한 불가리아 국민의 태권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여서 국민의 태권도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으며 언론기관에서 성심껏 취재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에 가다.

불가리아에서 성공적인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태권도 종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제 세번째 나라인 소련으로 떠나기 앞서 이제 광단장은 우리 단원들에게 행동지침을 다시한번 고취시켜 주었다.

시범단원들은 동구권 나라에 우리 태권도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동 국민학교 체육관에서 밤11시까지 피나는 훈련으로 고생한 보람을 안고 소련에서도 박진감있는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더 큰 성과를 올리겠다고 다짐하였다.

우리 일행이 탄 차는 레닌그라드를 경유해서 크레몰린궁 앞을 지나 호텔로 갔다. 호텔은 불가리아와 달리 깨끗한 편이었다.

스포츠 호텔에서 하루를 묵은 뒤 다음날 우리의 시범 일정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소련측은 자기를 편의대로 시간을 짜놓았다. 매일 오전에는 세미나를 열고 오후에 시범을 하도록 짜놓고 있었으나 우리 단원들의

휴식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시 수정하였다.

소련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붉은 광장과 크레몰린궁이다. 말로만 듣던 붉은 광장에서 바라보는 크레몰린궁은 너무나 엄숙하고 웅장하게 보였으며 공산주의의 산실이어서 그런지 으스스하고 음산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스타디움을 지나 천주교 사원을 볼 수 있었다. 이 사원은 1935년에 건립하였다고 했으며 사원 윗부분에는 금빛 도금을 한 것 같이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였다. 사회주의 국가가 다 그렇듯이 도시 구조가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스크바가 그 대표적 도시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다.

올림픽 스타디움 건너편으로 모스크바 대학이 있고 이 근처에 나무가 많은 것도 이곳의 특징 중의 하나였다.

한눈에 보는 소련은 과연 대국다운 면모를 보였다. 고르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개방의 물결이 점차 밀려들고 있지만 아직

“처음으로 공산권에 태극기를 달고 시범을 보이며 태권도가 스포츠 외교에 큰 성과를 올리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뻐뻐”



▲시범단 명단

단	장 : 이계광(국기원 이사)
감독	독 : 김중영(국기원 심사분과위원장)
설	외 : 박재욱(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체육부대표	: 윤승길
코	치 : 이규형(국기원 시범분과위원장)
시범요원	이종관 배은정(여)
	최봉호 김경숙(여)
	김충석 강진우
	장 권 김홍주
	최광근 이광로
	이춘우 김성진
	남승현 이의정

까지도 사회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눈에 보였다.

또한 대국답지 않게 이곳은 생필품을 구입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은 통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려고 배급 물품을 파는 상점 앞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곳은 채소와 과일을 구입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나마 물품을 사기 위해서 직장의 근무 시간 중에도 자리를 비우고 물품 구입하기에 애를 써야 할 정도에서 직장에서도 이시간만은 허용이 된다고 했다.

일반 시민의 교통 수단은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지하철역마다 특색있는 대리석으로 꾸며놓아 외관상으로는 제법 단장되고

**WTF
회원국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다음
올림픽 때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여건에서 소련에
태권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였다.**

깨끗하게 보였다.

크레mlin궁(레닌묘)을 관람하려고 사람들은 붉은광장에서 자면서 새벽부터 줄을 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붉은광장과 백화점에

건학온 소련 어린이들도 옷깃에 붉은 리본과 꽃을 달고 있었다.

17일 오전에는 세미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태권도 기술 전수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고 우리 사범의 파견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그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었다.

이곳에 ITF는 2년전에 발족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와서 시범을 보이게 되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방해 공작을 펴고 있었다.

2개월 전부터 신문과 방송으로 WTF는 운동이 아니라고 혹평하였으며 우리의 태권도를 비판하였다.

18일 오전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참석 인원은 60여명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ITF 회원이었으며 태권도 초보자가 많았다. 세미나에서는 이번 시범 준비 관계를 협의하고 앞으로 양국간 태권도 교류와 기술 보급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공산권으로의 교두보 마련

세계에서 WTF 회원국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다음 올림픽 때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여건에서 소련에 태권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였다.

19일 오후 3시 우리 단원들은 시범에 들어갔다. 교포 가족들과 그곳 체육부 간부들도 참석하였다. 관중은 약 700여명에 이르렀다.

시범은 첫째 전 단원의 태권도 기본동작부터 시작하여 이종관의

위력 격파, 남승현의 사과 격파, 일렬 결파, 김충석의 고축, 김홍주의 3스텝뛰어 회축, 장권의 4단 회축후리기, 이준우의 2단 앞돌려차기, 이규형 이중관 이준우의 품새 시범, 최봉오의 7방 회축후리기, 이규형의 뒷차기, 위력열차기 고공, 3단계 고축 앞차기, 장권 최광근의 4단 연속 회축 격파, 이

준우의 장애물 이용 돌려차기, 남승현의 장애물 이용 고축, 장권 배은정 김경숙 최광근의 머리 사과 사방 격파, 최광근 강진우 배은정의 거루기 발차기시범, 김충석 최광근의 양발 고축, 이의정 김경숙의 호신술 등 고도의 기술에 의한 기술 시범 및 파괴력 있는 시범으로 관중을 사로잡았다.

너무나 훌륭히 치룬 시범이었다. 무엇보다 단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 태권도의 정통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면은 앞으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부심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동구권 3개국의 시범을 성공리에 끝을 맺게 되었다.



인터뷰



이규형사범
(국기원 시범단 코치)

△ 소련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김운용회장의 노력으로 소련 스포츠 당국자는 이미 WTF 가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소련의 범 국민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에 따라 시범과는 별도로 소련의 요청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되었다.

△ 세미나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는가?

—소련내 11개공화국에서 활동하

소련에서 태권도 세미나 개최

고 있는 태권도 관계자들이 거의 참석했다. 이들은 거의 북한이 이끄는 ITF소속 태권도지도자 및 선수로 그들이 입고온 도복에는 ITF마크가 붙어있었다. 또한 일본 무술인 가라테 선수들도 있었다.

△ 세미나 개최장소는?

—모스크바의 인근 도시인 울리야노프스키에서 10일간 실시했다.

△성과라면...

—이론과 기술로 10일간 이루어진 세미나는 마지막날 심사를 통해 유단자 22명과 유급자 1백 50명을 공인했다. 세미나를 마친 뒤 세미나에 참가한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고 ITF탈퇴 및 WTF 가입을 결의하였다.

△ 세미나에 참석한 사범들의 반응은?

—이들은 ITF세미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반응이었는데 WTF 태권도가 이론과 실기면에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것에 감탄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열의를 보였고 첫날 버젓이 ITF도복을 입

고 나오던 사람들도 며칠 지나자 ITF자를 가리고 나오기도 했다.

특히 각 공화국 사범들은 자기네 지역에도 와서 세미나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소련에서의 어려웠던 점은?

—울리아나스키가 세탁하면 단란색 물이 들 정도로 물이 좋지 않아 식수관계가 어려웠다. 물자사정이 좋지 않아 간식이 전혀 없을 정도라 사서 먹을 수도 없었다. 소련이 물자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 알고 있던 것이지만 그렇게 나쁜줄은 몰랐다.

다만 소련은 어딜가나 체육관시설이 잘 되어있어 “살아있는 체육관”과 같았다.

△앞으로 소련에서의 태권도의 전망은?

—태권도에 대한 열기가 그렇게 높은줄 몰랐다. 더군다나 ITF태권도인들 뿐만 아니라 가라테, 그밖의 다른 종목의 무술인들이 많아 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WTF태권도는 급성장할 것이라고 본다.

띠의 철학적 무도성

이경명 <태권도 9단, 출판사 비전 대표>

태권도에 입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도복이다.

도복은 태권도의 외양이라 하겠다.

도복은 바지 저고리 및 띠로 이뤄져 삼국을 이룬다. 또한 도복은 유급자 품 그리고 유단자 도복으로 구분되고 띠도 유급자 품 및 유단자로 각각 구분되어 역시 삼국을 이루고 있다.

이 삼국개념은 만물생성 변화의 근본이며 천부경의 바탕철학이다.

띠의 색상은 다섯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초보자의 흰색 유급자의 노랑 파랑 빨강 및 유단자의 검은 색이다.

오랫동안 태권도지도자의 일상생활에서 띠의 철학성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 왔다. 비단 필자 뿐만 아니라 태권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한 두번이상은 부딪혀 궁금증을 품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이 의문을 갖고 수수께끼를 풀고자 여러 문헌을 뒤졌으나 어느 책에서도 언급된 것을 발견 할 수 없었다.

태권도는 동양철학성을 바탕으로 깔고 이제는 무도스포츠로서 올림픽운동화에 매진하고 있는데 종주국 태권도인은 학문적 연구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필자는 이 문제를 연구 정리한 띠의 철학적 무도성을 여기에 간략히 밝혀 보며 태권도인들과의 발전적 대화를 기대해 보는 바다.

도복에 있어 띠는 우주 즉 코스모스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코스모스로 정의내릴 때 질서와 조화를 지니는 특성이 바로 띠의 철학성인데 이는 즉 동양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변화의 원리인 음양오행론에 바탕을 둔다.

태권도수련은 질서를 엄격히 요구하며 그 질서는 바로 띠색상의 차이에서 상하관계가 분명해 지고 그것이 예를 바탕으로 조화와 질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흰 띠에서 노랑, 파랑 빨강 종내는 검은 띠에 이르는 변화는 피땀나는 수련을 통한 변화의 원리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색의 삼원색은 노랑 파랑 빨강색이다.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은 해와 달 즉 낮과 밤, 음양의 상징적 빛깔이다.

이 다섯가지 빛깔은 오행, 즉 화 수 목 금 토에 해당되며, 이 색은 불교에서도 단청의 문양을 그리는 기본색을 이루고 단청은 불교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띠가 상징하는 5색은 바로 5행 5기와 상호 연계된다.

우주 즉 코스모스를 이루는 화 수 목 금 토 5원소는 소우주라 일컫는 사람의 인체에서 심장 콩팥 폐 간 비위계통에 해당하고 이것들이 상징하는 색상이 태권도에 있어 띠의 빛깔과 일치하는 것이다.

변화의 원리로 볼 때 띠의 5색은 5행의 5색에 부합하며 또한 이 5색에 해당되는 인체내의 5기는 자아자제가 우주적 기의 흡입점과 모임의 끊임없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적인 현상으로서 생명소이다.

태권도에 있어 띠는 도복에 견주어 코스모스라 표현했듯 실제로 태권도인은 도복을 몹시 조심스럽게 다루고 간수하는 예를 중요시 하는 것이다.

특히 태권도 입문시 도복을 다루는 법을 사범으로부터 엄격히 배우게 된다.

띠는 단전부위를 중심으로 단단히 허리둘레를 감고 단전부위 앞에 삼각매듭을 이루며 묶는다.

이는 단전에 기를 모아 적소적재에 기를 기술에 운용하자는 것이다.

태권도 수련은 도장 즉 전통적으로 “깨우침의 장소”에서 띠의 매개체를 통해 단전을 강하게 긴장시켜 생명의 근원인 5기 즉 5색소를 체내에서 증강시킴에 따라 기량의 연마는 물론 광명을 이루어 마침내 도의 깨달음을 얻자는 것이다.

띠의 올바른 묘용 즉 수행은 기를 왕성하게 생성시키는 방법인데, 태권도에 있어 띠를 바로 다루는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건강과 밝음을 성취할 수 있다.

광의로 태권도는 이런 의미에서 5행 5기에 의한 변화원리를 기본으로 한 운동으로서 띠의 철학적 무도성을 정립해 본 것이다.

오랫동안
태권도지도자의
일상생활에서 띠의
철학성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 왔다.
비단 필자 뿐만이
아니라 태권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한 두번
이상은 부딪혀 궁금증을
품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겠다.

행사기록

임명

'90년도 상임심판원

(감독관)

고국환 맹만호 조 동 홍정부 박덕규 김강인
장용갑 심명규 유문규 문창남 최중수 허지희

(주부심)

이상언 최돈오 한상진 양병석 김광현 황병재
오수근 최봉호 노달선 차청훈 최정호 이상근
박홍신 이한현 유세종 양희석 엄영섭 이봉학
김병숙 진명범 장명수 송우길 박점수 정정식
박종부 이정연 김성칠 최영태 김영현 공영목
홍연화 김화룡 장세백 최복현 류충선 박경선
이종찬 유백만 한상철 김혜연 이규중 서인원
김상호 배종기 임광섭 최기술 김진욱 유효열
윤성기 한복동 석영환 정재봉

심사

1차고단자 승단 심사대회(6.7.8.9단) (3월 7일, 국기원)

▲서울 6단: 최덕상 황병재 강석한

박명수 김영희

7단: 박종률

▲충북 6단: 박정규

▲경기 6단: 김태석

7단: 남목현

▲대구 6단: 윤영조

▲전남 6단: 김중옥 이용우

7단: 장수남 이창규

▲경남 7단: 장정설 김억곤 이용주

▲제주 8단: 김영희

(총18명)

교육

제11기 태권도지도자 2급 연수과정수료자 (4.9-4.27, 태권도지도자연수원)

지성룡, 박 구, 조남혁, 김용호, 안혁기, 민관철,
김영희, 최점현, 이인환, 김용섭, 권영무, 김덕일,
최용환, 안봉규, 김의상, 김영하, 우경동, 강규진,
김상익, 양재기, 조영복, 진완구, 김중철, 조영도,
이경호, 도재선, 정정설, 이정범, 김근진, 김낙중,
박용구, 경종필, 정도정, 이은영, 오종구, 홍명철,
서상민, 김무인, 고영중, 이지성, 구본열, 김중현,
지용석, 신득호, 성기석, 전종열, 이병곤(총 47명)

국제대회

제2회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4.5-8,스페인 산탄테)

(남자부)

▲편급

1위: 서성교(한국)

2위: LY HOANG(미국)

3위: MANUEL ANTOLIN(스페인)

CHANG JUNG SAN(중화대북)

▲플라이급

1위: SAMMY PEJO(미국)

2위: 윤희준(한국)

3위: FRANCISCO HERNAN(스페인)

LUIS RUBE PALAFOX(멕시코)

▲밴텀급

1위: 이안호(한국)

흰 띠에서 노랑, 파랑 빨강 종내는 검은 띠에 이르는 변화는 피땀나는 수련을 통한 변화의 원리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색의 삼원색은 노랑 파랑 빨강색이다.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은 해와 달 즉 낮과 밤, 음양의 상징적 빛깔이다.

이 다섯가지 빛깔은 오행, 즉 화 수 목 금 토에 해당되며, 이 색은 불교에서도 단청의 문양을 그리는 기본색을 이루고 단청은 불교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띠가 상징하는 5색은 바로 5행 5기와 상호 연계된다.

우주 즉 코스모스를 이루는 화 수 목 금 토 5원소는 소우주라 일컫는 사람의 인체에서 심장 콩팥 폐 간 비위계통에 해당하고 이것들이 상징하는 색상이 태권도에 있어 띠의 빛깔과 일치하는 것이다.

변화의 원리로 볼 때 띠의 5색은 5행의 5색에 부합하며 또한 이 5색에 해당되는 인체내의 5기는 자아자제가 우주적 기의 흡입점과 모임의 끊임없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적인 현상으로서 생명소이다.

태권도에 있어 띠는 도복에 견주어 코스모스라 표현했듯 실제로 태권도인은 도복을 몹시 조심스럽게 다루고 간수하는 예를 중요시 하는 것이다.

특히 태권도 입문시 도복을 다루는 법을 사범으로부터 엄격히 배우게 된다.

띠는 단전부위를 중심으로 단단히 허리둘레를 감고 단전부위 앞에 삼각매듭을 이루며 묶는다.

이는 단전에 기를 모아 적소적재에 기를 기술에 운용하자는 것이다.

태권도 수련은 도장 즉 전통적으로 “깨우침의 장소”에서 띠의 매개체를 통해 단전을 강하게 긴장시켜 생명의 근원인 5기 즉 5색소를 체내에서 증강시킴에 따라 기량의 연마는 물론 광명을 이루어 마침내 도의 깨달음을 얻자는 것이다.

띠의 올바른 묘용 즉 수행은 기를 왕성하게 생성시키는 방법인데, 태권도에 있어 띠를 바로 다루는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건강과 밝음을 성취할 수 있다.

광의로 태권도는 이런 의미에서 5행 5기에 의한 변화원리를 기본으로 한 운동으로서 띠의 철학적 무도성을 정립해 본 것이다.

오랫동안
태권도지도자의
일상생활에서 띠의
철학성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 왔다.
비단 필자 뿐만이
아니라 태권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한 두번
이상은 부딪혀 궁금증을
품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겠다.

▲플라이급

- 1위 : 권혁선(한체대)
2위 : WANG MING-SUNG(중화대북)
3위 : TAN KHENG JUAN(싱가폴)
CHENG KAI CHUNG(홍콩)

▲밴텀급

- 1위 : 김성진(한체대)
2위 : CHEN YU-HUAN(중화대북)
3위 : MOHMED MATER AZAR(쿠웨이트)
HUSSEIN A. M. AL-QADJ(요르단)

▲페더급

- 1위 : LEE CHIAN-HSIANG(중화대북)
2위 : 김현철(한체대)
3위 : ROBERT VARGAS(필리핀)
TAREQ A. LABABIDI(요르단)

▲라이트급

- 1위 : 박세진(경희대)
2위 : HUANG MINE-JEN(중화대북)
3위 : YOUSEFF MOHD ABU-ZAID(요르단)
VICTOR VEN ERACION(필리핀)

▲웰터급

- 1위 : 진정우(국군체육부대)
2위 : SEYED HASSAN ZAHEDI H.
GILANI(이란)
3위 : LIU TSU-IEN(중화대북)
TAREQ NAWAF HAJ ALI(요르단)

▲미들급

- 1위 : 정용석(현대자동차)
2위 : SALEM A.A.AL
ZHARRANY(사우디아라비아)
3위 : SEYED HOSSEIN ABASI(이란)
AMMAR FAHED SBEIHI(요르단)

▲헤비급

- 1위 : TAWWFIQ R. T. NWASER(요르단)
2위 : 최상진(경희대)
3위 : FARZAD ZARAKHSH(이란)
VICTOR BATEMAN(호주)

1위 : WU SHAN-CHEN(중화대북)

2위 : 김진성(송곡고)

3위 : VASUGI MARUTHAMUTHU(말레이시아)
SITA RAI(네팔)

▲플라이급

- 1위 : YENNI LATIEF(인도네시아)
2위 : ANITA FALIEROS(호주)
3위 : 모선영(인덕공고)
LEE BEE HONG(말레이시아)

▲밴텀급

- 1위 : 이승민(온광여고)
2위 : HIIKING HUNG(말레이시아)
3위 : SUSAN KOH GEKLANG(싱가폴)
CHEN MEI-HWA(중화대북)

▲페더급

- 1위 : TUNG YA-LING(중화대북)
2위 : 박진경(상명여대)
3위 : LEE KA KI(홍콩)
KISHIYAMA MIKA(일본)

▲라이트급

- 1위 : LIO CHAD-CHING(중화대북)
2위 : 남정동(성신여대)
3위 : ANGELA ABREW(인도네시아)
ANGELA COULSON(호주)

▲웰터급

- 1위 : 고재경(성신여대)
2위 : DENISE PARMLEY(호주)
3위 : MARY MARK ALINDOGAN(필리핀)
HSIEN FENG-LIEN(중화대북)

▲미들급

- 1위 : LIU YI-LING(중화대북)
2위 : ANIS DEWI(인도네시아)
3위 : LAU CHOO BOON(말레이시아)
BEATRIZ DAPHNE TIOSECO(필리핀)

▲헤비급

2명 출전으로 경기불성립

(여자부)

▲핀급

국내대회

'90년도 전국춘계종별 선수권대회 (3. 26-31, 국기원)

(중등부)

▲핀급

- 1위 : 정정래 (구월중)
- 2위 : 권경덕 (배명중)
- 3위 : 이동준 (성남동중)
박희강 (풍생중)

▲플라이급

- 1위 : 최만용 (선덕중)
- 2위 : 김진수 (성남동중)
- 3위 : 박태영 (성남동중)
이기철 (개성중)

▲밴텀급

- 1위 : 김기성 (재송중)
- 2위 : 이순태 (구월중)
- 3위 : 김지환 (공릉중)
오지훈 (부평중)

▲페더급

- 1위 : 이정석 (용곡중)
- 2위 : 국관호 (부평중)
- 3위 : 김천규 (동성중)
김인준 (부천남중)

▲라이트급

- 1위 : 김정수 (개성중)
- 2위 : 이완규 (청주중)
- 3위 : 김현구 (재송중)
하태준 (효성중)

▲L-웰터급

- 1위 : 서철용 (용곡중)
- 2위 : 김연철 (동성중)
- 3위 : 신명국 (영북중)
유용진 (부천동중)

▲웰터급

- 1위 : 김영길 (재송중)

2위 : 김신영 (구암중)

3위 : 김경훈 (자양중)

이동주 (풍생중)

▲L-미들급

- 1위 : 강명구 (태성중)
- 2위 : 김정현 (배명중)
- 3위 : 정재균 (자양중)
정승진 (쌍문중)

▲미들급

- 1위 : 심기선 (태성중)
- 2위 : 백희진 (성남동중)
- 3위 : 김영주 (광주체중)
방영선 (배명중)

▲L-헤비급

- 1위 : 김형국 (자양중)
- 2위 : 윤인성 (구월중)
- 3위 : 공병수 (부평중)
임종식 (부평중)

▲헤비급

- 1위 : 문권수 (성남동중)
- 2위 : 이용일 (송도중)
- 3위 : 오동린 (송실중)
노홍진 (오정중)

(고등부)

▲핀급

- 1위 : 김건일 (동성고)
- 2위 : 김승호 (완산고)
- 3위 : 김상필 (파주공고)
김재경 (송곡고)

▲플라이급

- 1위 : 김종운 (대전체고)
- 2위 : 서덕수 (동성고)
- 3위 : 김홍식 (풍생고)
조하남 (성동고)

▲밴텀급

- 1위 : 김경희 (송림고)
- 2위 : 이지철 (광주체고)
- 3위 : 김태호 (한성고)
천명규 (리라공고)

▲페더급

1위 : 안홍엽 (송림고)

2위 : 이영준 (대전체고)

3위 : 주대식 (인천체고)

김진섭 (송곡고)

▲라이트급

- 1위 : 김혁원 (서울체고)
- 2위 : 김공배 (동명공고)
- 3위 : 고재환 (여수고)
손효봉 (경남체고)

▲웰터급

- 1위 : 김천일 (경남체고)
- 2위 : 김진 (동성고)
- 3위 : 이철우 (강원사대부고)
이신철 (정명고)

▲미들급

- 1위 : 임석배 (대전체고)
- 2위 : 홍종수 (금천고)
- 3위 : 김학래 (전북체고)
권오열 (영천고)

▲헤비급

- 1위 : 안성주 (대전체고)
- 2위 : 김경진 (전북체고)
- 3위 : 김길곤 (리라공고)
안금호 (광성고)

(일반부)

▲핀급

- 1위 : 조성우 (체육선교신학교)
- 2위 : 김신덕 (체육선교신학교)
- 3위 : 서진환 (창릉도장)
김정희 (청도체육관)

▲플라이급

- 1위 : 유은재 (성균체육관)
- 2위 : 이영중 (인천전문대)
- 3위 : 강전식 (보령군청)
명호정 (체육선교신학교)

▲밴텀급

- 1위 : 박상호 (대구시협회)
- 2위 : 이진영 (인하체육관)
- 3위 : 문병태 (인천전문대)
정복교 (인천전문대)

국내대회

'90년도 전국춘계종별 선수권대회 (3. 26-31, 국기원)

(중등부)

▲핀급

- 1위 : 정정래 (구월중)
- 2위 : 권경덕 (배명중)
- 3위 : 이동준 (성남동중)
박희강 (풍생중)

▲플라이급

- 1위 : 최만용 (선덕중)
- 2위 : 김진수 (성남동중)
- 3위 : 박태영 (성남동중)
이기철 (개성중)

▲밴텀급

- 1위 : 김기성 (재송중)
- 2위 : 이순태 (구월중)
- 3위 : 김지환 (공릉중)
오지훈 (부평중)

▲페더급

- 1위 : 이정석 (용곡중)
- 2위 : 국관호 (부평중)
- 3위 : 김천규 (동성중)
김인준 (부천남중)

▲라이트급

- 1위 : 김정수 (개성중)
- 2위 : 이완규 (청주중)
- 3위 : 김현주 (재송중)
하태준 (효성중)

▲L-웰터급

- 1위 : 서철용 (용곡중)
- 2위 : 김연철 (동성중)
- 3위 : 신명국 (영북중)
유용진 (부천동중)

▲웰터급

- 1위 : 김영길 (재송중)

- 2위 : 김신영 (구암중)
- 3위 : 김경훈 (자양중)
이동주 (풍생중)

▲L-미들급

- 1위 : 강명구 (태성중)
- 2위 : 김정현 (배명중)
- 3위 : 정재균 (자양중)
정승진 (쌍문중)

▲미들급

- 1위 : 심기선 (태성중)
- 2위 : 백휘진 (성남동중)
- 3위 : 김영주 (광주체중)
방영선 (배명중)

▲L-헤비급

- 1위 : 김형국 (자양중)
- 2위 : 윤인성 (구월중)
- 3위 : 공병수 (부평중)
임종식 (부평중)

▲헤비급

- 1위 : 문권수 (성남동중)
- 2위 : 이용일 (송도중)
- 3위 : 오동린 (송실중)
노홍진 (오정중)

(고등부)

▲핀급

- 1위 : 김건일 (동성고)
- 2위 : 김승호 (완산고)
- 3위 : 김상필 (파주공고)
김재경 (송곡고)

▲플라이급

- 1위 : 김종운 (대전체고)
- 2위 : 서덕수 (동성고)
- 3위 : 김홍식 (풍생고)
조하남 (성동고)

▲밴텀급

- 1위 : 김경희 (송림고)
- 2위 : 이지철 (광주체고)
- 3위 : 김태호 (한성고)
천명규 (리라공고)

▲페더급

- 1위 : 안홍엽 (송림고)
- 2위 : 이영준 (대전체고)
- 3위 : 추대식 (인천체고)
김진석 (송곡고)

▲라이트급

- 1위 : 김혁원 (서울체고)
- 2위 : 김공배 (동명공고)
- 3위 : 고재환 (여수고)
손효봉 (경남체고)

▲웰터급

- 1위 : 김천일 (경남체고)
- 2위 : 김진 (동성고)
- 3위 : 이철우 (강원사대부고)
이신철 (정명고)

▲미들급

- 1위 : 임석배 (대전체고)
- 2위 : 홍종수 (금천고)
- 3위 : 김학래 (전북체고)
권오열 (영천고)

▲헤비급

- 1위 : 안성주 (대전체고)
- 2위 : 김경진 (전북체고)
- 3위 : 김길곤 (리라공고)
안금호 (광성고)

(일반부)

▲핀급

- 1위 : 조성우 (체육선교신학교)
- 2위 : 김신덕 (체육선교신학교)
- 3위 : 서진환 (창릉도장)
김정희 (청도체육관)

▲플라이급

- 1위 : 유은재 (성균체육관)
- 2위 : 이영중 (인천전문대)
- 3위 : 강전식 (보령군청)
명호정 (체육선교신학교)

▲밴텀급

- 1위 : 박상호 (대구시협회)
- 2위 : 이진영 (인하체육관)
- 3위 : 문병태 (인천전문대)
정복교 (인천전문대)

▲페더급

- 1위 : 인한순(인천전문대)
- 2위 : 황민호(웅비체육관)
- 3위 : 최영갑(수원대)
김남용(홍익체육관)

▲라이트급

- 1위 : 신경수(보령군청)
- 2위 : 송재훈(전북산업대)
- 3위 : 권영배(인천체육전문대)
이호진(수원대)

▲웰터급

- 1위 : 최기선(설악케이블카)
- 2위 : 이정기(체육선교신학교)
- 3위 : 이상국(인천전문대)
안중석(신관체육관)

▲미들급

- 1위 : 최진성(인천체육전문대)
- 2위 : 김영국(형체체육관)
- 3위 : 남택규(인천전문대)
이우경(인천전문대)

▲헤비급

- 1위 : 홍윤기(청천체육관)
- 2위 : 장홍주(안중체육관)
- 3위 : 백대열(문종국체육관)
김영범(설악케이블카)

**'90년도 국가대표선수
1차선발대회
(4.10-12, 국기원)**

▲핀급

- 1위 : 김인경(성동고)
- 2위 : 유성호(체과대)
- 3위 : 서보훈(한체대)
양현석(동아대)

▲플라이급

- 1위 : 남학현(체과대)
- 2위 : 권혁선(한체대)
- 3위 : 김동은(조선대)
오영주(국군체육부대)

▲밴텀급

- 1위 : 김성일(인천전대)
- 2위 : 성대중(한체대)
- 3위 : 조기현(경희대)
김성진(한체대)

▲페더급

- 1위 : 김현철(한체대)
- 2위 : 박재홍(한성고)
- 3위 : 오상명(경희대)
김태형(경희대)

▲라이트급

- 1위 : 박진석(경희대)
- 2위 : 김광수(풍생고)
- 3위 : 손원기(계명대)
오병철(한체대)

▲웰터급

- 1위 : 이창건(국군체육부대)
- 2위 : 조재춘(인천전대)
- 3위 : 김태형(한체대)
신광수(한체대)

▲미들급

- 1위 : 김제경(동아대)
- 2위 : 박은석(전남협회)
- 3위 : 정주석(한체대)
주의홍(리라공고)

▲헤비급

- 1위 : 김광섭(국군체육부대)
- 2위 : 이정진(보령군청)
- 3위 : 김태형(광주체고)
박경철(관동대)

**'90년도 여자국가대표
선발대회
(4.24-25, 국기원)**

▲핀급

- 1위 : 유수진(오산여중고)
- 2위 : 김진성(송곡고)
- 3위 : 최인숙(인천전대)
이순영(고양중고)

▲플라이급

- 1위 : 진용순(광명상고)
- 2위 : 오선영(인덕공고)
- 3위 : 김민정(체과대)
강경숙(상명여대)

▲밴텀급

- 1위 : 박동선(성신여대)
- 2위 : 이승민(은광여고)
- 3위 : 박현숙(체과대)
공오분(체과대)

▲페더급

- 1위 : 박선영(경희대)
- 2위 : 박진경(상명여대)
- 3위 : 김성숙(성신여대)
박연실(성신여대)

▲라이트급

- 1위 : 박정희(인천체고)
- 2위 : 남정동(성신여대)
- 3위 : 박상희(리라공고)
정은옥(상명여대)

▲웰터급

- 1위 : 이성미(상명여대)
- 2위 : 고재경(성신여대)
- 3위 : 백정자(문산중고)
박선미(인덕공고)

▲미들급

- 1위 : 양인덕(상명여대)
- 2위 : 장 철(경희대)
- 3위 : 김은주(인천체고)
안 숙(은광여고)

▲헤비급

- 1위 : 백영미(경희대학교)
- 2위 : 김태희(문성여상)
- 3위 : 백현정(덕소고)
박은주(상명여대)

**'90년도 국가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
(4.26-27, 국기원)**

▲핀급

- 1위 : 김인경(성동고)
- 2위 : 신재현(국군체육부대)
- 3위 : 서성교(한국체대)
양현석(동아대)

▲플라이급

- 1위 : 김철호(현대자동차) ✓
- 2위 : 권혁선(한국체대)
- 3위 : 정동현(한국체대)
김동은(조선대)

▲밴텀급

- 1위 : 함 준(현대자동차) ✓
- 2위 : 김성진(한국체대)
- 3위 : 조영남(동아대)
조기현(경희대)

▲페더급

- 1위 : 하태경(한국체대)
- 2위 : 김현철(한국체대)
- 3위 : 장 혁(한국체대)
강창모(동아대)

▲라이트급

- 1위 : 양대승(한국체대)
- 2위 : 박세진(경희대)
- 3위 : 김광수(풍생고)
박진석(경희대)

▲웰터급

- 1위 : 이현석(동아대)
- 2위 : 진정우(국군체육부대)
- 3위 : 이창건(국군체육부대)
이종학(부산시협회)

▲미들급

- 1위 : 박은석(전남협회)
- 2위 : 정용석(현대자동차) ✓
- 3위 : 정주석(한국체대)
박종범(한국체대)

▲헤비급

- 1위 : 김광섭(국군체육부대)
- 2위 : 최상진(경희대)
- 3위 : 노 신(국군체육부대)
김현일(국군체육부대)

'90년도 전국여자개인 태권도선수권대회 (5.10-11, 국기원)

▲핀급

- 1위 : 장이숙(상명여대)
- 2위 : 강선경(인천체고)
- 3위 : 이순영(고양중고)
김진성(송곡고)

▲플라이급

- 1위 : 원선진(효원고)
- 2위 : 조화임(광명상고)
- 3위 : 박은미(성신여대)
이화진(경희대)

▲밴텀급

- 1위 : 이승민(은광여고)
- 2위 : 박동선(성신여대)
- 3위 : 서연화(천안여고)
방성자(인천체고)

▲페더급

- 1위 : 윤명숙(인천체고)
- 2위 : 김은미(고양중고)
- 3위 : 김윤희(체과대)
양은정(성신여대)

▲라이트급

- 1위 : 박정희(인천체고)
- 2위 : 김미영(체과대)
- 3위 : 최동현(은광여고)
이현화(경희대)

▲웰터급

- 1위 : 조향미(인천체고)
- 2위 : 이영미(천안여고)
- 3위 : 고재경(성신여대)
신은정(인덕공고)

▲미들급

- 1위 : 심현숙(성신여대)
- 2위 : 김은주(인천체고)
- 3위 : 박은선(고양여중)
이창성(경성여고)

▲헤비급

- 1위 : 박은주(상명여대)
- 2위 : 정원숙(경기도협회)
- 3위 : 추수연(은광여고)
남명희(한양여중)

제11회 어린이태권왕겨루기 전국국민학교태권도대회 (5.12-13, 장충체육관)

▲핀급

- 1위 : 강규선(서울성산) 미기상
- 2위 : 민병석(서울광희)
- 3위 : 김종주(충북서원)
노충균(경기부원)

▲플라이급

- 1위 : 이완기(경기서릉)
- 2위 : 유인평(충북한별)
- 3위 : 문성민(여수남)
정광채(서릉)

▲밴텀급

- 1위 : 이근호(서울금천) 최우수상
- 2위 : 이동삼(경기서릉)
- 3위 : 백승진(서울중마)
강종원(인천일신)

▲페더급

- 1위 : 선명수(서울금천)
- 2위 : 엄광흠(성남제2)
- 3위 : 김정훈(충북서원)
한관희(서울면목)

▲라이트급

- 1위 : 양순호(충북서원)
- 2위 : 김형남(충북한별)
- 3위 : 김병기(경기단대)
노현구(경기성남북)

▲웰터급

- 1위 : 박창호(서울쌍문)
- 2위 : 김주변(경기단대)
- 3위 : 최성호(서울신석)
최규성(서울화계)

▲미들급

- 1위 : 강순호(서울쌍문)
2위 : 송보선(서울금양)
3위 : 강정혁(경기상원)
최복철(충북서원)

▲헤비급

- 1위 : 조영진(서울광희)
2위 : 백언문(서울보광)
3위 : 진현민(서울금천)
권혁원(서울신석)

최영남(인천체육고)

▲웰터급

- 1위 : 김혁원(서울체육고)
2위 : 김 호(동성고)
3위 : 유용조(인천 체육고)
박대수(전북 체육고)

▲미들급

- 1위 : 주희홍(리라 공고)
2위 : 한갑석(부산체육고)
3위 : 임상도(경남 체육고)
홍중수(금천고)

▲헤비급

- 1위 : 문청일(송곡고)
2위 : 안성주(대전체육고)
3위 : 김형태(광주 체육고)
김재호(한성고)

3위 : 신은정(인덕공고)

김명희(완산여상)

▲웰터급

- 1위 : 조향미(인천체고)
2위 : 박선미(인덕공고)
3위 : 박경희(고양종고)
이선희(문성여상)

▲미들급

- 1위 : 박소라(은광여고)
2위 : 이은주(문성여상)
3위 : 김은주(인천체고)
김성자(남해상고)

▲헤비급

- 1위 : 윤현정(문성여상)
2위 : 백현정(덕소고)
3위 : 신혜진(인천체고)
안 숙(은광여고)

제17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타기 대회
(6.4-9, 국기원)

(남고부)

▲핀급

- 1위 : 박병준(리라공업학교)
2위 : 최성철(동성고)
3위 : 조영국(풍생고)
정주철(대전체육고)

▲플라이급

- 1위 : 서민관(풍생고)
2위 : 김현용(서울 체육고)
3위 : 김준규(성동고)
서덕수(동성고)

▲밴텀급

- 1위 : 이명철(경남 체육고)
2위 : 박형식(여수고)
3위 : 이지철(광주체육고)
이기영(풍생고)

▲페더급

- 1위 : 강재구(경상 공고)
2위 : 박기채(경남 체육고)
3위 : 김은국(관악고)
신보현(청주기계공고)

▲라이트급

- 1위 : 정현우(성동고)
2위 : 양원철(인천광성고)
3위 : 조진현(영천고)

(여고부)

▲핀급

- 1위 : 김지향(광명상고)
2위 : 조현주(보령여중고)
3위 : 박은주(은광여고)
이강희(고양종합고)

▲플라이급

- 1위 : 김혜선(은광여고)
2위 : 김보영(천안여고)
3위 : 조화임(광명상고)
김현화(시온고)

▲밴텀급

- 1위 : 서연화(천안여고)
2위 : 김 희(완산여상)
3위 : 방성자(인천체고)
윤애숙(완산여상)

▲페더급

- 1위 : 권혁실(문성여상)
2위 : 윤명숙(인천체고)
3위 : 박정미(인천체고)
김은선(완산여상)

▲라이트급

- 1위 : 김은이(고양여중고)
2위 : 김경애(문성여상)

(남중부)

▲핀급

- 1위 : 홍성호(부평중)
2위 : 김범주(성남서중)
3위 : 박희강(풍생중)
하정훈(동성중)

▲플라이급

- 1위 : 박왕기(부산개성중)
2위 : 조성일(성남동중)
3위 : 김철현(부평중)
유정호(배명중)

▲밴텀급

- 1위 : 지진성(한영중)
2위 : 김태호(풍생중)
3위 : 김영훈(광주체육중)
최윤섭(부천영남중)

▲페더급

- 1위 : 정대영(동성중)
2위 : 박정혁(배명중)
3위 : 김성태(풍생중)
손민호(배명중)

▲라이트급

- 1위 : 김정수(부산개성중)

2위 : 김대훈 (영남중)
3위 : 박기태 (한성중)
국관호 (부평중)

▲L-웰터급

1위 : 이임수 (부산개성중)
2위 : 유용진 (부천동중)
3위 : 김연철 (동성중)
신명국 (영북중)

▲웰터급

1위 : 박정우 (한영중)
2위 : 임광수 (부산개성중)
3위 : 김정희 (성남동중)
김광호 (예산중)

▲L-미들급

1위 : 김동현 (동성중)
2위 : 전갑규 (성남동중)
3위 : 정재균 (자양중)
김정현 (배명중)

▲미들급

1위 : 이진우 (부평중)
2위 : 조태형 (동성중)
3위 : 방영선 (배명중)
백휘진 (성남동중)

▲L-헤비급

1위 : 임세명 (한성중)
2위 : 김귀수 (영남중)
3위 : 안용준 (공릉중)
이용재 (경수중)

▲헤비급

1위 : 문권수 (성남동중)
2위 : 김영호 (한영중)
3위 : 정형철 (경수중)
송호진 (개성중)

(여중부)

▲핀급

1위 : 조명식 (만수여중)
2위 :
3위 : 장선영 (동인천여중)

▲플라이급

1위 : 김은미 (대원여중)

2위 : 안주영 (철산여중)
3위 : 장현미 (동인천여중)
최영아 (자양중)

▲밴텀급

1위 : 이은옥 (천안동여중)
2위 : 문경애 (광명북중)
3위 : 최현주 (철산여중)
기해진 (광명북중)

▲페더급

1위 : 김병희 (제천여중)
2위 : 조미라 (철산여중)
3위 : 김미연 (대원여중)
박선희 (대원여중)

▲라이트급

1위 : 전명화 (천안동여중)
2위 : 최재숙 (자양중)
3위 : 이해경 (화명중)
양소희 (천안북자여중)

▲L-웰터급

1위 : 임신희 (관인중)
2위 : 이지은 (근영여중)
3위 : 한은진 (공릉중)
함진희 (영성여중)

▲웰터급

1위 : 이경민 (광명북중)
2위 : 임병은 (대원여중)
3위 : 채수진 (공릉중)
장선미 (동인천 여중)

▲L-미들급

1위 : 박은숙 (공릉중)
2위 : 곽태정 (만수여중)
3위 : 박옥수 (대원여중)
김옥님 (국사봉중)

▲미들급

1위 : 박민주 (찰원여중)
2위 : 이방실 (남성중)
3위 : 윤미라 (공릉중)
최민정 (대원여중)

▲L-헤비급

1위 : 정미화 (산내중)
2위 : 하영화 (만수여중)

3위 : 김선경 (만수여중)

▲헤비급

1위 : 정명숙 (공릉중)
2위 : 남명희 (한양여중)
3위 : 주미자 (신철원중)
유옥순 (만수여중)

(단체상)

▲남중부

우승 (동성중)
준우승 (부산개성중)
3위 (한영중)
감투상 (부평중)
장려상 (신철원중)
지도지상 이철주 (동성중)
최우수상 김동현 (동성중)

▲여중부

우승 (공릉중)
준우승 (천안동여중)
3위 (만수여중)
감투상 (대원여중)
장려상 (광명북중)
지도지상 이재수 (공릉중)
최우수상 정명숙 (공릉중)

▲남고부

우승 (서울체고)
준우승 (경남체고)
3위 (풍생고)
감투상 (리라공고)
장려상 (선인고)
지도지상 박창덕 (서울체고)
최우수상 김혁원 (서울체고)

▲여고부

우승 (문성여상)
준우승 (은광여고)
3위 (인천체고)
감투상 (천안여고)
장려상 (리라공고)
지도자상 김영수 (문성여상)
최우수상 권혁실 (문성여상)

제25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대회 (6.19~22, 대구실내체육관)

(고등부)

▲핀급

- 1위 : 유병석(리라공고)
- 2위 : 정주철(대전체고)
- 3위 : 조영국(풍생고)
손유영(관악고)

▲플라이급

- 1위 : 윤병관(광성고)
- 2위 : 장대순(동성고)
- 3위 : 김인경(성동고)
윤현범(관악고)

▲밴텀급

- 1위 : 김태호(한성고)
- 2위 : 김민수(동성고)
- 3위 : 신보현(청주기공)
서민관(풍생고)

▲페더급

- 1위 : 정광채(관악고)
- 2위 : 박재홍(한성고)
- 3위 : 강재구(경상공고)
김진섭(송곡고)

▲라이트급

- 1위 : 김광수(풍생고)
- 2위 : 서재남(대전체고)
- 3위 : 김득영(포항수고)
정대동(송곡고)

▲웰터급

- 1위 : 임영호(부산체고)
- 2위 : 김혁원(서울체고)
- 3위 : 이동희(부평기술고)
장종오(정명고)

▲미들급

- 1위 : 강병삼(한성고)
- 2위 : 최승길(부평기술고)
- 3위 : 황현달(관악고)
한갑석(부산체고)

▲헤비급

- 1위 : 박형래(승실고)
- 2위 : 안성주(대전체고)
- 3위 : 김형태(광주체고)
최재영(동성고)

*단체입상

- 우 승 : 한성고(금2, 은1)
준우승 : 관악고(금1, 동3)
3 위 : 풍생고(금1, 동2)
감투상 : 부산체고(금1, 동1)
장려상 : 포항수고
지도상 : 윤창욱(한성고교사)
우수선수상 : 강병삼(한성고3)

(대학부)

▲핀급

- 1위 : 서보훈(한체대)
- 2위 : 정현섭(대한체과대)
- 3위 : 김명운(송원실전)
임재경(청주대)

▲플라이급

- 1위 : 조성호(계명대)
- 2위 : 박재성(한체대)
- 3위 : 남학현(대한체과대)
선상준(청주대)

▲밴텀급

- 1위 : 성대중(한체대)
- 2위 : 권태호(경희대)
- 3위 : 배종임(동아대)
최현열(대한체과대)

▲페더급

- 1위 : 하대경(한체대)
- 2위 : 강창모(동아대)
- 3위 : 임성욱(계명대)
오상명(경희대)

▲라이트급

- 1위 : 손원기(계명대)
- 2위 : 박진석(경희대)
- 3위 : 장 혁(한체대)
김명식(인천전대)

▲웰터급

- 1위 : 양대승(한체대)
- 2위 : 조광천(경희대)
- 3위 : 임태규(청주대)
최태희(대한체과대)

▲미들급

- 1위 : 김재경(동아대)
- 2위 : 공두환(경희대)
- 3위 : 이광성(청주대)
최진성(인천전대)

▲헤비급

- 1위 : 임영희(청주대)
- 2위 : 박종범(한체대)
- 3위 : 김재욱(동아대)
임택수(인천전대)

*단체입상

- 우 승 : 한체대(금4, 은2, 동1)
준우승 : 계명대(금2, 동1)
3 위 : 동아대(금1, 은1, 동2)
감투상 : 청주대(금1, 동4)
장려상 : 인천전문대
지도상 : 문원재(한체대코치)
우수선수상 : 양대승(한체대4)

(일반부)

▲핀급

- 1위 : 신재현(국군체육부대)
- 2위 : 박재완(현대자동차)
- 3위 : 전동준(지하철공사)
김신덕(체육선교신학교)

▲플라이급

- 1위 : 김철호(현대자동차)
- 2위 : 이종선(설악케이블카)
- 3위 : 박인덕(성균관체육관)

▲밴텀급

- 1위 : 함 준(현대자동차)
- 2위 : 강동범(체육부대)
- 3위 : 허재영(설악케이블카)
박상호(범양식품)

▲페더급

1위 : 유명식(현대자동차)

2위 : 임석섭(체육부대)

3위 : 김기복(범양식품)

고정호(지하철공사)

▲라이트급

1위 : 박용웅(체육부대)

2위 : 전정배(체육선교신학교)

3위 : 석종우(중앙체육관)

정승환(지하철공사)

▲웰터급

1위 : 진정우(체육부대)

2위 : 최기선(설악케이블카)

3위 : 이화상(현대자동차)

김성택(광주시협회)

▲미들급

1위 : 윤순철(체육부대)

2위 : 정용석(현대자동차)

3위 : 김동섭(범양식품)

김현곤(전북협회)

▲헤비급

1위 : 이계형(광주시협회)

2위 : 이정진(보령군청)

3위 : 임재익(현대자동차)

노 신(체육부대)

※단체입상

우 승 : 국군체육부대(금4, 은3)

준우승 : 현대자동차(금3, 은2, 동1)

3 위 : 광주시협회(금1, 동1)

감투상 : 설악케이블카(은2, 동1)

장려상 : 범양식품, 보령군청

지도상 : 황영갑(국군체육부대)

우수선수상 : 윤순철(국군체육부대 이병)

이 경 명 에세이 · 칼럼



철학적 무예인의 길

“적어도 내겐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난의 아픔 없이는 철학적인 나의 삶에서 정신적인 회열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스스로 자랑스레 택한 고행의 길을 묵묵히 견고 있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 알프스풍광 오스트리아의 인정 풍물 문화 등 삶을 사랑하며 느낀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 주옥같은 에세이
-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지에서 올림픽을 향한 태권도의 장정에 한몫을 했던 저자의 예리한 비전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값 3,300 원

도서
출판

비전

부산/ 남부산우체국사서함 54호
전화 051-626-9235 FAX 051-626-9263

행사안내

▲대한태권도 협회

- 7.30-8.4 : 제26회 협회장기타기 전국단체대항대회 (부산)
9.28-30 : '90년도 월드컵태권도대회(스페인 마드리드)

▲서울특별시협회

- 7.8 : 제336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국기원)
7.22 : 제337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국기원)
7.24 : 제71회 전국체육대회 대표최종선발대회 (국기원)
8.19 : 제156회 승단심사대회(1. 2. 3단) (국기원)
8.20-22 : 제1회 서울시태권도 사범품새보수교육 (국기원)
8.26 : 제338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국기원)
9.9 : 제339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국기원)
9.19-20 : 제11회 서울시협회장기어린이겨루기대회 (국기원)
9.22 : 제3차 고단자심사대회(4. 5단) (국기원)
9.23 : 제340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국기원)

▲부산직할시협회

- 7.30-8.4 : 제26회 협회장기타기 전국단체대항대회(구덕실내체육관)
8.26 : 제4회 승품·단심사대회(구덕실내체육관)
9. 6- 7 : 제15회 부산직할시 교육감기타기대회(구덕실내체육관)
9월 : 전국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각부훈련장)

▲대구직할시협회

- 7.1 : 3차 승품·단 심사대회 (실내체육관)
7.28 : 제6회 대구시협회장기대회 (실내체육관)
8.18 : 1990년도 비등록선수권대회 (실내체육관)
8.26 : 승품·단 심사대회 (실내체육관)
9.9 : 구청별친선체육대회 (경일중운동장)

▲인천직할시협회

- 7.15-16 : 제71회 전국체육대회 인천시 최종선발전 (실내체육관)
8.25 : 제5회 고단자(4.5) 심사대회 (전용도장)
8.26 : 제4차 승품심사 및 승단심사대회 (실내체육관)
9.28-29 : 인천시국민학교 우수선수권대회 (실내체육관)

▲광주직할시협회

- 7.14-15 : 제4회 교육감기타기대회 (광주실내체육관)
8.5 :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광주실내체육관)
8.18-19 : 제4회 회장기타기대회 (광주실내체육관)
9.16 : 제2차 지도자품새보수교육 (광주실내체육관)
9.29-30 : 제3회 시장기타기대회 (광주실내체육관)

▲대전직할시협회

- 7.7-8 : 제2회 회장기타기대회 및 전국체전 1차 선발전 (충무체육관)

▲경기도태권도대회

- 7.6-9 : 제12회 경기도협회장기쟁탈전(수원실내체육관)
7.8 : 승품·단심사대회 및 4.·5단 고단자심사대

회 (수원실내체육관)

7.13-15 : 제71회 전국체육대회 최종선발대회
(수원실내체육관)

8.12 : 승품·단심사대회 및 4·5단 고단자심사
대회 (수원실내체육관)

9.9 : 승품·단심사대회 및 4·5단 고단자심사대
회 (수원실내체육관)

9.14-17 : 제9회 경기도 교육감기쟁탈전태권도대
회 (수원실내체육관)

▲강원도태권도협회

7.3-6 :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강원대학교체육
관)

7월중 : 제8회 교육감기타기태권도대회 (강릉시)

▲충청북도태권도협회

7.7 : 제16회 중고연맹회장기타기태권도대회
(청주중학교체육관)

7.24-25 : 제12회 정갑순회장추모대회 및 제71
회 전국체육대회대표선발대회
(충북실내체육관)

8.1-4 : 충북도내 태권도대표선수전지훈련
(천태중구인사)

9.15-16 : 제17회 교육감기 및 중정기태권도대
회
(충북실내체육관)

9.23 : 제3차 승품·단 심사 (충북태권도협회)

▲충청남도태권도협회

7.5 : 전국소년체육대회 (국기원)

7.14 : 제71회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대전학생체
육관)

9.30 : 승품·단 심사대회 (대전학생체육관)

▲전라북도태권도협회

7.16-19 : 제3회 도지사배태권도대회 (전주실내
체육관)

8.26 : 제4차 승품단 실기대회 (전주실내체육관)

▲전라남도태권도협회

7.14-15 : 제71회 전국체육대회대표최종선발대

회 및 여자개인선수권 대회 (태권도훈련장)

9월 : 전남 추계종별선수권대회 (광주실내체육
관)

▲경상북도태권도협회

7.19 : 제23회 도교육감기대회 (실내체육관)

8월중 : 제2회 도지사기대회 (실내체육관)

9월중 : 승품 및 승단심사 (실내체육관)

▲경상남도태권도협회

7.5-6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국기원)

7.29 : 제97회 승품단심사대회 (마산)

8.18-19 : 제71회 전국체전최종선발전

8.25-10월 : 제71회 전국체전대표선수 합숙훈련
(마산·진주·울산)

9.30 : 제98회 승품단 심사대회 (마산)

▲제주도태권도협회

7월 : 서귀포시 개인선수권대회 (서귀포시 시민
회관)

7.23 : 전국체육대회 제주도대표선수 강화훈련입
소식 (한라체육관)

8.11 : 승품·단 심사대회 (한라체육관)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

7.14-15 : 제11회 체육부장관기타기 전국국민학
교태권도대회 (국기원)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8.21-25 : 제1회 체육부장관기검 제17회 중고연
맹개인대회 (국기원)

▲한국대학태권도연맹

9.28-30 : 제13회 회장기타기전국대학태권도대
회 (국기원)

▲국기원

7월이후 : 제1기 3급사회체육 및 제64기 지도자
교육 (연수원)

9.8 : 3차고단자(6,7,8,9단) 승단심사(국기원)

통일이 되면

김 규 동

통일이 되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모두는 감사하여
걸음을 멈추게 되리
눈물을 뿌리리
이름없는 풀포기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껴
두 손 맞잡게 되리
남북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누구든지 서로 붙잡고
감사하여 상기된 얼굴 비벼대리
뜨거운 눈물 쏟으리
땅에 하늘에
삼삼히 때도는 녀들
통일 위해 싸운 녀들 앞에
머리 숙이리
머리 숙이리
오직 하나된
내나라 내겨레 우리레
검은한 종이 될 것을
맹세하고 맹세하리
위대한 한반도에 태어난
기쁨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리
가슴에 새기리.





시작메모

희망이 없다면 사람은 하루도 살 수 없이 된다. 그 희망을 바라고 모두는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것이다. 분단의 지나긴 세월을 어둠에 싸여 살면서도 꿈만은 항상 통일에 있었고 잊혀져가는 북녘땅 고향하늘에 가 있었다.

국토가 하나로 되는 통일, 민족이 한마음 한 뜻이 되는 통일—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꿈과 희망을 나는 결코 버릴 수 없다. 나의 시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벽차고 힘겹다할 것이다.

통일이 되었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노래해야 할까. 가슴 떨리는 그날, 그날을 쳐다보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김규동

1925년 함북출생.

1948년 문단에 나와 모더니즘운동을 했고, 1970년 이후 민중시를 쓰고 있다.

시집 『나배와 광장』, 『깨끗한 희망』, 『오늘밤 기러기떼는』 등 다수. 현재 『민중예술인총연합』 고문.

국제대회

확인! 종주국위용, 남자부 9연패 달성 충격! 여자부 중화대북에 종합우승 뺏겨

제 9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The 9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June 2~4, 1990)



결단식에서 조영기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는 김운용회장.
Dr. Un Yong Kim at the
inaugural ceremony.



미들급 우승을 차지한 정용석(현대자동차)선수.
Awarding ceremony for middle weight.



여자부의 종합우승실과는 앞으로 여자부의 효과적인 육성과 훈련방
법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요구되었다.

A scene of a competition in female division.



중화대북의 언론들은 이번 대회를 대서특필, 인기스포츠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This Championships attracted much interests from the
press of Chinese Taipei.

선수전원이 메달획득하며 종합우승

제 2 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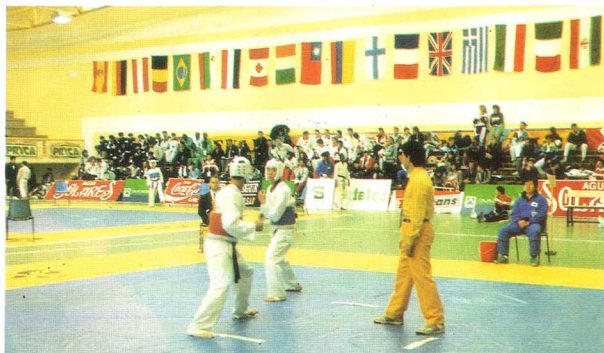
The 2nd World University Taekwondo Championships
(April 6~8, 1990)



남녀종합우승을 차지한 대표팀.

Korean male and female delegation teams ranked 1st place respectively.

우리나라 선수들이 노련한 경기를 펼쳤으나 체격, 체력면에서는 뒤졌다.
A scene of a competition in male division.



국내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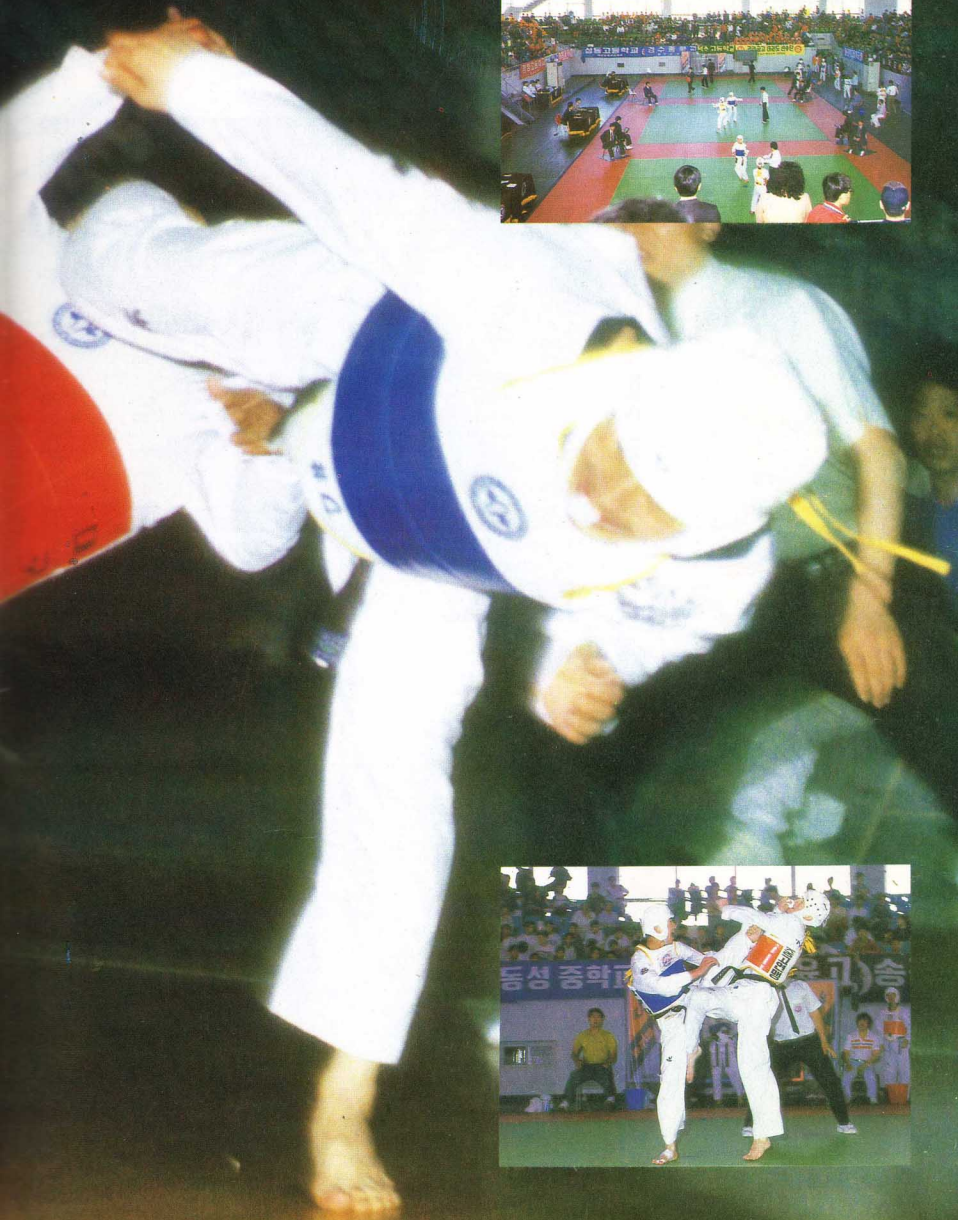
개정된 경기규칙 적용으로 박진감 넘친 경기
상임심판원제와 선수단 임원등록제 시행으로 경기장 질서확립



3월 7일부터 시작된 전국춘계종별선수권대회(우측위)를 비롯한 남녀국가대표선발전(좌측아래), 여자개
인선수권대회, 어린이태권왕겨루기, 중고연맹회장기(우측아래), 대통령기쟁탈전(좌측위)이 6월말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남자국가대표선발전은 올해부터 토너먼트방식으로 경기를 치루어 우수한 선수발굴에 역점을 두었
고 여자국가대표선발전을 통해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있었다.

National Taekwondo events such as Selection Tournament for Korean delegation, etc were hel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to June.



태권도소식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ANOC) 회장 바스케스 라냐와 환담하는 김운용회장.
Mr. Mario Vazquez-Rana, President of ANOC and Dr. Kim.



본회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은 체육주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판문점과 전방 땅굴을 견학했다.
Officials and staffs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visited Pan Mun Jom on April 28.

태권도소식



● 30일 국기원에서 6단 23명, 7단 19명, 8단 44명이 응심한 가운데 6단자 심사대회가 있었다.

Participants for Senior-grade Dan promotion tests (6th, 7th and 8th Dan) on June 30.



● 헝가리, 불가리아, 소련 등 공산 3개국에 19명의 국기원 시범단이 파견되었다.

● Gukkiwon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visited the Eastern Block countries—Hungary, Bulgaria and USSR.